
지 구 백 일 장

W E L C O M E

2020년은 코로나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해졌고 지구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백일장으로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환경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4주 동안 비록 서로 얼굴을 맞대지는 못하더라도 지구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엄청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정수기라는 소재를 가지고 긴 글을 완성하고, 동물권에서 시작된 관심을 채식으로 이어갔습니다.

리뷰를 달면서 저희는 '글'이라는 매체를 통한 공감을 경험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가능했던 이유는 환경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소통에 대한 간절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구백일장의 가장 큰 성과는 글이 삶으로 스며들고 실천으로 이어진 점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언젠가는 푸르른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글로 만나는 시간은 설레고 감사했습니다. 지구백일장을 기획해주신 평화문화진지 이울빈 주임님, 참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디자인이음 편집부

①주 차

**코로나,
지금도 기억할 것**

..... 8

②주 차

**쓰레기,
환경을 쓰다**

..... 64

③주 차

**동물,
동물권에 대해**

.....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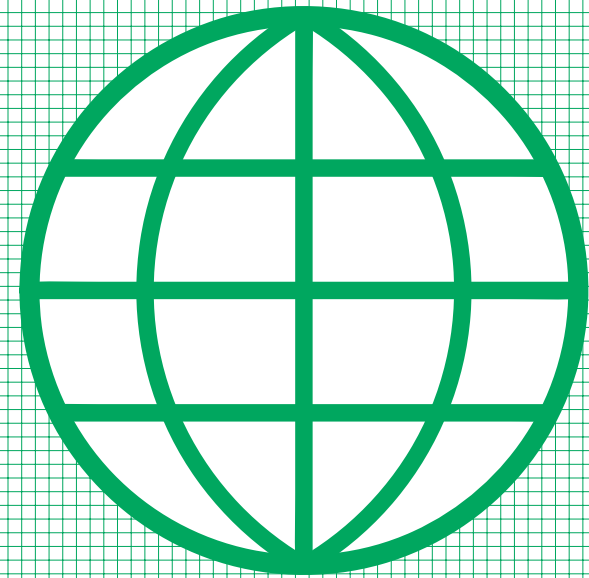
④주 차

**실천,
환경보호 일지**

..... 184

참 여 작 가

고서영 김보아
김지안 김희라
노현정 독고예지
박예진 서희원
선옥영 성지은
손유진 송혜현
안미향 안지연
엄지혜 유혜선
울립 이정요
이지영 임정은
장철완 정다정
정현주 차지양
최지희 표승희
함영현 현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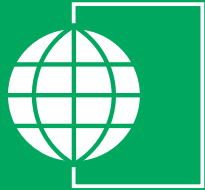




코로나,
지금
기억할 것

1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인간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자연과 동물이 설 자리를 무분별하게 빼앗은 행동이 발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 건강한 삶을 되찾는다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1주 차에는 '지금을 기억하고 더 나은 태도로 살아가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환경에 대한 지점에서 양극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대기오염 수치는 줄어드는 반면 일회용품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치솟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배달음식으로 한 끼를 먹은 뒤 나오는 일회용품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비닐 진공 팩이 강하게 달라붙은 일회용품은 처리와 분류가 어려워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닐슨 코리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 전후를 기준으로 배달음식 이용률이 33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증가했다고 합

니다. 자연스럽게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 역시 전년 대비 25퍼센트까지 증가했습니다.

-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카페, 음식점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식당 내에서는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을 사용하고, 카페 안에서도 머그컵 대신 일회용 용기에 음료를 담아줍니다. 개인의 위생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음식점 내 감염 사례를 보면 세척, 소독된 그릇과 식기보다 의자, 손잡이, 테이블 등이 더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늘어난 플라스틱 사용량에 따라 하루 평균 수거된 쓰레기의 양이 1209톤으로 전년 대비 15퍼센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 병원에서 사용되는 주사용품은 모두 일회용이며, 가운이나 고글 역시 사용 한도가 있어 버려지는 주기가 짧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발표한 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1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누적된 코로나19 격리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최소 1486톤에서 최대 2882톤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료 폐기물은 병원균이 묻었을 위험이 있어 소각 폐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 역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팬데믹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마스크와 의료 물품을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버려지는 마스크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한 마스크를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 인식을 뒤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된 뒤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의 위생과 안전을 지키며 환경에도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방법은 무엇인지, 또 코로나 19와 환경오염이 직결된 문제임을 인지한 지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두 번째 과제

고서영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우리네 일상은 너무나 선명하다. 퇴근 후 체육센터로 저녁 수영을 하러 갈 수도 없고, 주말 오전 카페에서 즐기던 친구와의 브런치 타임을 마음 놓고 즐길 수도 없어졌다. 이렇게 변화된 개인의 일상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입힌 것 같다. 약속이라도 한 듯 굳게 닫힌 상점의 문과 임대 문의가 적힌 유리 벽, 잠정 폐쇄가 적힌 동네 공원의 벤치까지도 외롭게 보이기만 한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좋지 않은 점과 좋은 점이 동시에 오는 법.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귀찮아도 마스크 쓰는 법을 학습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이 우리 사회가 겪는 경제 변화에 격한 공감을 하면서도 환경 변화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푸른 가을 하늘에 감탄하다가도 고개를 내리고 시선을 앞으로 향한 채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을 쓰레기통에 무심히 툭 던지고 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과 일회용 의료용품의 소비가 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심각하게 증가했고, 이는 환경오염으로 직결되고 있다. 병들어 가는 지구를 알면서도 코로나19라는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기 급급한 우리는 높은 파도가 무섭게 달려드는 걸 알지 못한 채 해변을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온갖 종류의 플라스틱 용기와 일회용 마스크로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기에 모두가 환경오염의 위기에 공감하는 기회가 온 것 아닐까? 모두 공감하는 시기에 환경 문제를 공론화한다면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할 사람을 찾는 일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물론 동참할 개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동참의 대상은 기업일 것이다. 예를 들

어 일회용 마스크는 코 부분의 철사를 따로 버려야 한다. 기업에서 분리수거를 하기 쉽도록 내장된 철사 부분에 칼집을 새긴 마스크를 제작한다면 어떨까? 더 많은 사람이 환경보호를 위한 올바른 분리수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업의 제1 목적은 이익 추구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기업뿐 아니라 환경 관련 정부 기관과 단체에서도 환경 요소를 고려한 코로나19 예방 수칙 배포,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 인식 개선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회용품 대신 개인 텀블러 사용 홍보,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 식기(수저, 젓가락 등)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할인 제도 도입 등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다.

물론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모두의 노력이 쏟린 만큼 현재 우리 사회는 환경오염에 관심을 둘 여력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앞에 환경보호라는 과제가 놓여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과제가 놓인 것처럼 말이다.

새로운 일상

김보아

2019년 말 과외 수업을 위해 영어 뉴스를 찾다가 그레타 툰베리라는 열여섯 살의 환경운동가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올랐다는 기사를 보았다. 『타임』지 최연소 올해의 인물이며 10대 환경운동가라는 타이틀이 흥미를 자극하여 그녀의 유명한 연설을 들었다.

“How dare you!”

그녀의 연설 중 내 귀에 가장 크게 꽂힌 말이었다. 지구와 환경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어른들에게 분노가 치솟았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내가 그 ‘어른들’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나이의 반밖에 안 되는 환경운동가를 보면서 스스로 되물었다. 나는 정말 책임이 없는가. 언론에서 기후변화가 문제라고 하니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때는 매일 소포장된 닭가슴살을 먹었으며 밥하기 귀찮다고 배달음식을 주문해서 반만 먹고 남은 걸 버린 적도 많았다. 내가 과거를 반성하는 사이 지구가 책임감 없는 인간의 행태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바이러스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발전과 확장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가져왔고, 이것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코로나19는 자업자득이란 이야기다.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걸 알고 난 뒤 기후 위기에 대한 나의 인식은 단순히 ‘심각한 환경 문제’ 이상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아닌 척했지만 경제 성장과 너무 편리해진 일상에 편승하여 기후와 환경을 외면해 온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금요일 저녁이면 매운 국물 닭발을 주문하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매일 닭가슴살을 먹던 삶을 되돌아봤다. 닭 한 마리는 발이 두 개인데 내가 먹은 국물 닭발에 열 개 이상은 들어 있었다. 소포장된 닭가슴살 100그램 한 달 치를 만들려면 또 얼마나 많은 닭이 필요했을까? 이어서 공장

식 축산이 필요했구나. 또 나는 그것들을 편히 먹기 위해 매주 배달을 시키고 쓰레기를 만들었다. 내가 맛있는 것을 편하게 먹는 동안 지구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했던 것일까? 나는 기후 위기와 녹아내리는 빙하, 북극곰의 멸종 위기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데 얼마큼의 원인을 제공했을까? 생각에 생각이 이어지니 올해 초가 법계 시작했던 채식에 조금 더 책임감이 생겼다. 채식은 배달해 먹는 데도 한계가 있고 3년 동안 맛있게 먹은 음식들을 포기하는 일이라 정말 새로운 일상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일상은 곧 평범한 일상이 될 것이고, 나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새로운 일상이 매일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쓰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일상은 새로운 관계와 규범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우리 동네, 우리 가족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10대 환경운동가, 점점 녹아내리는 빙하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극곰, 내게 오랫동안 발과 가슴을 내준 닭 등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 확장된 관계 속에서 이들에게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일상으로 다시

김지안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달라졌다. 눈뜨자마자 확진자 수를 체크하고 확진자 동선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며 안부를 묻는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답답해서 착용하지 않았던 마스크는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익숙해졌고 야외 활동을 즐기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바이러스가 2021년까지 간다니 절망적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다른 이름의 바이러스가 또 찾아올 거라는 예견이다.

할머니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기 전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코로나19가 일상을 뒤흔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때문에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것이다. 장례식도 조문객을 받지 않고 가족끼리 보내드렸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로우실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일상이 자리 잡을까 봐 걱정스럽다.

지금 생각해 보면 환경보호에 관심은 있었지만 관심으로 그쳤던 것 같다. 그러다 우연히 바이러스 다큐멘터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하면서 숙주인 동물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간다는 내용이였다. 결국 바이러스가 생겨난 배경도 인간이 자초한 환경 문제였다.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걸 새삼스레 깨달았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생각보다 많은 동물과 자연이 희생되고 있었다. 바이러스는 자연이 주는 경고였다. 지구를 소중히 대하지 않은 인간에게 질병이라는 무서운 응징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무서운 응징을 이겨내기 위해 환경보다는 백신에 기대고 있는 듯하다. 환경에 대한 생각이 전보다 조금은 나아진 듯하지만 편의에 기대는 생활습관은 바꾸기 어려운가 보다. 코로

나19로 달라진 일상에 적응하느라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횟수가 늘면서 쓰레기가 더욱 늘어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인간의 생활이 편해질수록 환경이 파괴된다는 공식을 깨닫고 경각심을 주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듯하다.

분리수거를 해도 재활용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뉴스를 접한 뒤로 박스를 정리하면서 하나라도 재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테이프를 뜯어 배출하고 플라스틱이 온전히 재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라벨을 제거하거나 비닐에 묻은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있으면 “너 같은 사람 없다(적당히 해라)”라는 말을 듣곤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불편하고 귀찮은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사서 고생,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짙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고민해보았다. 첫 번째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나 하나라도, 라는 마음가짐으로 바꿔서 코로나19가 없는 일상을 되찾기 바란다.

불편함이 주는 편함

김희라

코로나19로 불편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게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에 종업원들의 위생 관념이 철저한지, 누가 다녀갔는지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고, 종일 마스크를 끼다 보니 입 주변이 울긋불긋해졌다. 추석 때는 고향에 내려가지도 못했다. 불편함을 늘어놓자면 끝이 없다. 2019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가물가물하다. 드라마에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으니,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가 전개되어도 꼭 판타지나 시대극을 보는 느낌이 들곤 한다. 카페 테라스에 앉아 친구와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나누던 마음 편한 대화가 간절하다. 사소하게 누리던 행복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상 속 일이 되어버렸다.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물량이 늘어나서 배송기사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뉴스가 눈에 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뉴스는 안 나오면 허전할 정도로 문제시되는 부분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나는 온라인 쇼핑이나 음식배달하곤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걸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외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온라인 쇼핑을 했다. 시장이나 대형 마트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대부분의 물건은 직접 샀는데, 외출이 어려워지자 손가락 몇 번 움직여 순식간에 물건을 주문하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졌다. 얼마 전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어보고 싶어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생크림과 크림치즈를 사고 최소 주문 금액을 넘기기 위해 달걀 한 판까지 담았다. 에코 패키지를 신청하면 수거용 상자에 담아 보낸다고 했다. 몇 시간 뒤 도착한 상자에는 생크림과 크림치즈, 아이스 팩 몇 개만 담겨 있었다. 상자 크기를 생각하며 한 번에 넣을 만한 양을 주문했는데 달걀이 오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시 몇 시간 뒤 달걀이 종이 상자에 담겨 따로 배송됐다. 이유를 알고 싶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배송처의 상황에 따라 따로 배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문할 때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고작 2만-3만 원대 물건을 사는데 배

송기사가 두 번이나 다녀갔다. 심지어 달걀은 마트의 몇 배로 과대 포장했고, 수거용 상자에 담긴 아이스 팩은 에코 패키지와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팩 대신 물을 얼렸지만, 정작 물을 얼린 팩의 소재는 비닐과 종이 합쳐진 소재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였다. 환경을 생각하려고 애쓴 부분은 큰 소용이 없었다.

얼마 뒤 부엌 한쪽에 있던 분리수거함을 마당으로 뺐다. 분리수거함을 집 안에 두었을 때는 분리배출만 잘하면 되겠지 싶어 정작 내가 만든 쓰레기의 양에는 관심이 없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거실과 현관문을 지나 마당으로 가는 몇 미터의 간격을 만들었을 뿐인데, 두 손에 들린 쓰레기의 양이 하루 동안 만든 쓰레기라는 게 실감 났다. 물건을 살 때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양을 머릿속에 그려보기 시작했다.

초반엔 분리수거함을 다시 집 안에 들여올까도 생각해봤다. 그렇지만 내가 편해질수록 누군가는 반드시 불편해진다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에코 패키지라는 구색만 갖춘 기업 마케팅의 이면에는 달걀 한 판에서 나온 몇 개의 달걀판과 종이팩, 5000원짜리 달걀 한 판을 배송하려 다녀간 택배기사의 수고가 담겨 있었다. 모두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었다. 나도 쌓여가는 쓰레기산에 가담하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택배기사의 고단함을 외면한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중 '내 일이 아닐 거야'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은 얼마 없다. 아예 없을 지도 모른다.

나는 자연의 일부인 터, 자연에서 태어나 죽으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쓰레기는 인간의 편의 때문에 생겨났는데 쓸모를 다해도 쉽게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고민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편리함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돌아가지 못한 쓰레기는 바다 위에서 떠돌거나 흙에 파묻혀 몇 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고 알려져 있을 뿐 누구도 그 광경을 목도하지 못했다. 우리에게겐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각, 불편함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감각, 불편함과 편함 사이에서 적당한 줄다리기로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 내가 편해지는 만큼 누군가는 불편하고 아프며, 내가 불편해지는 만큼 누군가는 숨을 고를 여유가 생기고 덜 아플 것이다.

기록으로 기대하기

노현정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추자 오히려 생각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사색하기 좋은, 조용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질까. 덕분에 나는 더 바빠졌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딘가에 적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라서.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자연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에서 수백, 수천만 명을 앓아간다. 태풍이 여러 차례 찾아와 여름이 덥지 않았고 오징어는 금징어가 되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무엇인가가 계속 인류를 찾아온다. 이게 모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제와 급격하게 다른 오늘을 보내며 지구온난화도 아니고 기후변화도 아닌 기후 위기 속에 있음을 실감한다. 이 생각 역시 코로나19가 성큼 불러온 것이다.

앞으로 2주 차, 3주 차 글쓰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번 지구백일장을 통해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미리 밝혀두자면 나는 맥시멀리즘에 가까운 소비와 확고한 잡식 식성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목소리를 내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¹⁾라는 말처럼, 더욱 나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영성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지금 당장 소리를 내야 한다. 모르는 척 침묵하면 편하겠지만, 알고 내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야말로 변화를 불러오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일들에 앞서 오늘의 모습을 기록하려고 한다. 나는 기록의 힘을 믿는다. 추상적인 다짐을 구체적인 문자로 표현해놓으면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한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단계다. 쓸모에 따라 물건을 고르는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았던 삶을 반성하고,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것들이 버겁다. 배가 고프거나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지만 미디어의 육식(반드시 폭식을 동반하는) 장면을 보고 난 후에 고기를 정도 이상으로

먹던 날을 후회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시되는 미디어 환경이 못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소비를 극한으로 줄이고 모든 동물성 식품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향'해보려고 한다. 저렴한 가격에 쉽게 사서 한 철만 쓰다 버리는 물건이 줄어들도록, 새빨간 조명 아래 놓인 모습에 혹해서 굳이 먹고 싶지도 않은 고기를 사지 않도록,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처리가 쉬운 대체재가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둘 바뀌기를 바란다. 그래서 4주 차의 기록에는 한 달 전과, 또 어제와 다른 주변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

1) 타일러 라쉬, 『두 번째 지구는 없다』, RHK, 2020, p.78

최선이 아닌 차선의 노력들 - 파란 하늘을 기억해

독고예지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2020년의 하늘은 유독 파랗다.

하늘이 뿌옇다 못해 회색과도 같았던 지난날들을 보내며 지구가 하루하루 병들고 있는 것 같아 생긴 죄책감이 꽤 오랜 시간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최근 파란 하늘은 이런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씻어주었다. 더운 여름에도 마스크에 갇힌 답답한 숨이 맑은 하늘을 보면 해소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바라던 맑은 하늘이 찾아와도 마스크 벗고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는 게 어렵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지만 말이다.

코로나19와 함께 맑아진 하늘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닌 듯싶었다. 세계의 불안한 고요함이 관광지로의 발길을 끊게 만들자, 그로 인해 오염이 심했던 베니스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의 하늘과 수질이 눈에 띄게 맑아졌다고 한다. 항공과 크루즈 산업의 탄소 배출량 또한 줄어들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네 배나 낮아진 탄소 배출량이 그간 우리의 행적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듯했다. '코로나가 인간에게겐 독이어서도 지구에게겐 득이려나' 싶은 복잡한 마음과 다르게 지속된 상황들은 또다시 지구에게 독이 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수칙을 설명해주던 뉴스가 어느새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로 바뀌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한 달 기준 한국에서 버려지는 마스크는 6000만 장, 전 세계적으로는 1290억 장이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수치는 1년이면 스페인을 덮을 정도이고,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일회용품이 바다로 유입되는 양은 1분마다 트럭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들이붓는 수준이라고 했다. 뉴스 영상은 마스크에 두 발이 묶인 갈매기를 구조하는 영상으로 이어졌는데, 지구에게 조금이나마 득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나의 지난 생각이 부끄러웠다. 나와 소중한 가족들의 코와 입을 덮던 마스크가 버려져 갈매기의 발을 묶었다. 지금도 해파리처럼 바닷속을 떠다니고 있을 마스크는 비단 해양동물들에게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마스

크가 버려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필수품이 된 일회용 마스크는 플라스틱 병뚜껑과 같은 재질인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이다. 사용한 마스크는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와 함께 버려진다. 그렇게 버린 마스크는 태워져서 미세먼지가 되거나 시간이 흘러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겨진다. 이렇게 미세한 형태로 남은 마스크는 물고기의 먹이로, 갈매기의 먹이로, 또 우리의 식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또 다른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쓰레기 처리법을 연구하는 것도, 친환경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법도 모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는 끈을 잘라서 말아 버리는 것, 집 앞 카페의 디저트가 먹고 싶을 땐 용기를 들고 가서 포장해 오는 것, 택배나 배달음식에 딸려 오는 일회용품을 받지 않고, 포장물을 최소화해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쓰는 것. 이 정도의 노력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며 사는 것. 이렇게 나는 최선, 아니 차선의 노력을 할 뿐이다.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차선의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도 파란 하늘을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색깔 없는 세상

서희원

기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나는 사회자의 질문에 디자이나 브루스 마우가 대답했다. "그건 바로 인간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기름 없는 세상은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의 행동 방식만 바꾼다면, 이를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창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월부터 나의 일상에 제약을 두기 시작했다.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나는 역마살이 낀 것처럼 휴일이면 무조건 밖으로 돌았고 휴가를 받으면 길지 않더라도 머나먼 나라로 떠났으며 언제든 어디가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나리오와 동반자인 웹 지도는 '가고 싶은 곳' 핀셋투성이였다.

호기심이 많은 성격 탓에 실패와 성공 50 대 50의 확률에도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택했으며 긍정적인 성향 탓에 실패와 성공 50 대 50 확률의 어떤 결과에도 늘 다음을 기약하고 그날을 웃으며 추억할 자신이 있었다. 세상이 스케치북이라면 나는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물감 색깔은 어떤 것을 골라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갈지 나의 경험과 색깔을 가득 담아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며 밑그림을 그리고 파릇하게 색칠해나갈 사람이였다.

"우리가 이미 지닌 것을 가지고 전 세계가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에드워드 윌슨(생물학자)

환경 문제가 내게 인식된 후로 지속가능성을 알고 그 개념이 점차 확장되면서 윤리적 책임감이 생겼고, 이는 나의 정체성이자 앞으로 삶을 살아갈 신념이자 기준점이 되었다. 그러다 문득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마비되고 바깥세상이 유령마을처럼 변하자 '우리가 이미 지닌 것'

만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소비는 줄고 공장은 멈췄다.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지 못한 새로움은 빛을 보지 못했고 생각보다 길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얼어붙은 대신 잃어버렸던 우리의 봄은 생기를 되찾았다. 미세먼지보다 실감 나는 바이러스의 공포는 안 쓰던 마스크도 쓰게 만들었으며 자연의 냄새도 맡지 못한 채 봄은 그렇게 똑 떼어져나갔고 시간의 흐름을 인식할 새도 없이 그렇게 움츠러들었다.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발전이 없다면 과연 미래가 있을까? 우리 모두가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원시 생활로 돌아가서 필요한 만큼만 자급자족하며 살면 우리의 지구는 지금보다 더 큰 숨을 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단조로워지고 늘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과연 살아 있는 지구의 모습일까? 친환경 제품, 탄소 배출 규제, 기후 변화, 동물 복지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 것도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때문 아닐까? 그 속에 수많은 얽힌 복잡한 관점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

지구는 싱그러워졌고 봄은 눈부시고 찬란하게 빛났지만 정작 그 자연을 누릴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금의 확실하고 소소한 행복조차 매일 똑같이 반복된다면 과연 그 행복의 감정은 언제까지 행복으로 느껴질까.

일상 날갯짓

선욱영

아무 바닥이나 주저앉고, 아무 의자이나 가방을 내려두고, 아무 풀밭이나 드러누워 숨을 쉬었다. 손이 더러워지면 수도가에 가서 씻으면 되고 가방이나 옷은 툭툭 털면 그만이었다. 아이를 키우고부터 내 가방에는 언제나 형광증백제가 안 들어간 코인티슈 몇 알, 물 한 병, 물티슈, 손수건 등이 들어 있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외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꼭 나가야 할 때는 마스크를 쓰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아무 데나 아이와 함께 앉고, 그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와 많은 것을 직접 만져보며 시간을 보냈다. 쓰레기를 함께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놀이도 했다.

2020년 1월부터는 아이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갈 때도 손 소독제, 소독 스프레이, 소독 티슈, 물티슈, 여분의 마스크, 쓰레기 담을 봉투, 마실 물을 담은 텀블러를 챙겨서 나간다. 혹시라도 아이가 밖에서 심하게 활동할 것 같으면 여분의 옷도 챙긴다. 바로 갈아입혀서 데려오려고. 평상시에도 짐이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더 많은 짐을 이고 지고 다닌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 짊어지고 온 신경을 써서 나갔다 오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살기가 올라오지만 그렇다고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쉴 수는 없다.

피곤 덩어리를 열두 개의 어금니로 악물며 단호하고 빠르게 귀가 의식을 행한다. 혹시나 뒤따라왔을지도 모를 바이러스를 전멸시킬 기세로. 마스크는 현관 쪽 마스크 걸이에 걸어두고, 거실 입구에서 걸옷을 조심스럽게 벗은 후 아이를 그대로 화장실에 데려가 같이 비누로 손을 뿑뿑 씻는다. 깨끗한 손으로 아이를 목욕탕에 넣어두고 나와서는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 싱크대에 담아놓고, 오늘 외출할 때 입은 옷들은 모두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오늘 사용한 마스크가 사람 많은 곳에 다녀왔거나 짧게 3회 정도 사용한 마스크면 끈을 모두 잘라내고(야생동물의 목이나 발에 감기지 않도록) 쓰레기통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되가져온 쓰레기가 담긴 봉투

를 꺼내 분리수거를 한다. 아이 과자 봉지, 커피캔, 소독 티슈 한 뭉치.

아, 소독 티슈 한 뭉치라니. 아이와 세 시간 남짓 산책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손을 닦아왔던가. 뿌리는 것보다 닦는 게 더 안전하다 해서 소독 스프레이 대신 소독 티슈를 무자비하게 써대고 있었다. 갑자기 위잉- 위잉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 거슬린다. 바이러스를 죽인답시고 물을 얼마나 써대는가. 외출할 때마다 세탁기는 여지없이 돌아간다. 외출 후 버려지는 일회용 KF94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다. 얼마 전 본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인수 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를 쓴 데이비드 콰먼이 바이러스 전쟁에 대해 한 말이 생각났다.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 세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무거운 말. 나비효과. 이 생명력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온 것도, 그래서 내 삶이 바뀐 것도 모두 인간이 한 일들 때문이다. 그러면 이 소독 티슈 한 뭉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내 가방 속에는, 내 일상의 몸짓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불러오는 날갯짓이 얼마나 많은지.

지구에 최소한의 폐를 끼치며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만으로 멈추지 않으려고 텀블러도 사용하고, 재활용도 하고, 분리수거도 집요하게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와 함께 지구와 환경을 이야기하고, 책을 읽고,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와 가족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열심히 생산해내는 쓰레기와 오염된 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저 내 아이가 아무 곳이나 앉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마스크 없이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뛰어놀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마음으로. 소독 티슈 사용량도 줄이고, 외출 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도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방수 파우치를 사용해야겠다. 헝구고 말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나부터라도, 결과를, 미래를 다시 바꿔야겠다. 작은 날갯짓을 보태 본다.

아이가 코로나19로 배우는 것들

성지은

“엄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겨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대.”

“기침할 때는 팔로 막아야 한대.”

“엄마! 마스크 챙겨야지!”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 입에서는 온통 코로나19 관련 말들이 쏟아진다. 지켜야 하는 방법과 손 씻는 방법을 배운 대로 척척 잘한다. 옷을 입고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자랑하는 아이를 칭찬하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준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의 소풍이나 현장학습 같은 외부 일정이 취소되거나 미뤄졌다.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을 이제 아이도 안다. 이렇게 아이의 일상도 달라졌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더 배워야 하는 건 어떤 것일까?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혼란에 빠져 있고 일상은 위축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기고 ‘마스크 의무화’ 등 꼭 지켜야 하는 수칙이 늘어났다.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혹은 지키라는 사람에게 비난과 폭언, 폭력까지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경계를 아이들도 고스란히 느끼며 배우고 있다.

“사람이 많은 곳은 가면 안 되지?”

“엄마! 해수욕장에 사람 또 많아? 그럼 못 가지?”

당연히 두려워 할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데, 당연하다는 듯 체념하는 아이의 모습이 찡하다.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려 원망스럽고 미안하다.

우리 가족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제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2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 제주로 이사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펼친다는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한 우리 가족의 시작은 친구 결혼식이나 돌잔치 참석 여부를 놓고 밤

새 잠을 못 이루는 등 축하하는 마음보다 미안함이 먼저 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 펼쳐야 했다.

제주의 삶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제주가 주는 환경은 우리 가족에게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 사람 많은 도심에서 팍팍했던 삶을 과감히 정리하고 조용한 제주의 시골 마을로 이사한 것이 우리 가족에게 ‘신의 한 수’였다.

시골 마을의 삶은 느리고 불편하다. 배달음식도 없고 음식점도 많지 않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 아이에게 요리하는 과정은 놀이가 된다. 텃밭에 직접 심은 채소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건 느리지만 즐거운 일이다.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반딧불이를 보며 밤산책을 한다. 높은 건물이 없어 한눈에 하늘과 바다를 보며 아이와 감탄할 수 있다.

복잡한 도심에서는 상상도 못 할 풍경들이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코로나19를 겪고 있지만,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한 우리의 일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제주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느리고 불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감염병에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제주로 이사 오지 않았다면 코로나19를 어떻게 버티고 있었을까? 답답한 아파트에서 아이와 어떤 놀이를 하며 보냈을까? 그 답답함은 또 다른 소비를 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배달음식을 쉽게 이용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그 결과로 쌓여만 가는 쓰레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났을 것만 같다. 아이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보고, 듣고, 배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빠르고 편리하게만 사는 것을 선택한 도시의 삶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코로나 블루 같은 우울감과 무기력만 남기지 않았을까?

아이가 코로나19로 배워야 했던 일상도 있지만, 자연과 함께 하는 제주의 삶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이에게도 값진 일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느리고 불편한 이곳 생활을 통해 충분히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삶의 자신감 또한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더 넓게 바라보기

손유진

코로나19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사람마다 나라마다 제각각이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은 한 가지다. 바로 우리가 자연과 동물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발생했고 이제는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돌려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1위라고 한다. 미국의 면적은 한국의 43배에 달하고 미국의 인구수는 3억 명 한국의 인구수는 5000만 명인데 미국보다도 높은 플라스틱 소비량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텀블러도 사용할 수 없어서 머그컵에 음료를 받아 텀블러에 옮겨 담노라면 내심 어마무시하게 생길 일회용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주말이 오면 분리수거장에 쌓여 있는 어마어마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보게 된다. 아,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키는구나, 요즘. 그리고 올바른 방식의 분리배출이 아닌 마구잡이로 버려진 재활용품을 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곤 한다. 당장 내 집 내 눈 앞에서 사라졌다고 플라스틱이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 플라스틱 섬, 쓰레기 전쟁, 뉴스에서만 접하는 이 이야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용한 플라스틱이 내 집 앞에 쌓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더 이상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해외여행이 중단되고 당연하게 누리던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생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야 할 불편함이나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을 쓰고 살아가야 할 날을 생각한다면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미 후회하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 사실은 불편한 게 아니라 당연했던 걸 우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결정권과 소비권이 있다.

우리의 작지만 가치 있는 선택으로 편리성만이 아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하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다. 우리는 개인의 영역, 나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받기를 원한다. 이처럼 우리도 자연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과 영역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개인의 영역을 침범당하면 화를 내듯이, 자연과 지구가 인간에게 화를 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행동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밭 딛고 있는 이곳은 서울, 한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닌 지구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다.

작은 노력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는 그 지겨운 말

송혜현

티끌 모아 티끌.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작은 것은 여전히 작았기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은 종종 놀림거리가 되었다.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쉽게 가시화되지 않는 작은 노력의 총합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환경 문제에선 더욱 그랬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겹도록 들었지만, 혼자 페트병 라벨지를 뜯어 분리수거하는 수고를 해봤자 우리 집 분리수거장은 여전히 심각했다. 내 노력이 지구를 보호할 만큼 대단한 것이 될런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런 나날의 연속에서 코로나19가 찾아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전 세계는 수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중엔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대기오염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러 기사를 찾아보지 않아도 체감할 만큼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하늘은 모든 대화의 화두였다. 누군가 비행기를 안 탔을 뿐인데, 누군가 자동차를 덜 타고 집에 있었을 뿐인데, 그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될 때 거짓말처럼 세상은 맑아졌다.

모든 인간이 그레타 툰베리처럼 주목받는 환경운동가가 될 수는 없다. 환경을 위해 소리치고 시위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자동차를 타겠다는 결정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분리수거를 귀찮아하지 않고 조금 불편해도 텀블러를 세척하겠다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 더 나은 오늘을 만든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사실 단 하나다. 티끌이 모이면 별 일이 된다는 것. 인간이 나 편하자고 해온 일들이 어찌면 코로나19의 발단일 수도 있는 것처럼 작은 것들이 모여 대단해질 수 있었다. 이 대단한 결과를 막아보려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지구의 공기를 바꾼 것처럼, 나 하나의 노력이 대단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겨워진 그 말을 여전히 되새길 수밖에 없다. 그 가치를 의심했지만 실제로 증명된 ‘그 말’ 말이다. “작은 노력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는 그 말.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안미향

아직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현존하는지 긴가민가하다. 자가격리자도, 확진자도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까.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일상과 인생이 변했다는 건 확실할 수 있다. 내 스마트폰에는 줌, 시스코웹엑스, 구루미비즈 등 다양한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려던 동료는 아직도 함께 직장을 다니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나도 우리도 느끼고 있다.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외교 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환경에는 코로나19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에는 코로나19 덕분에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다. 미세먼지도 감소했고 비행기 운항 횟수가 줄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환경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는 극히 일부였다. 전 국민이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페에서 마시는 음료도 멋없는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다.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줄이고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어쩔 수 없다'이다. 한 번 사용한 마스크나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다회용 컵에는 바이러스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폐기물이 늘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기에 폐기물이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불편을 감수한다면 안전도, 환경도 지켜내는 방안이 있다. 내가 실천한 방안 중 하나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사용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편안함을 버리는 대신 매일 빨고 널어 말리는 불편함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하지만 반복된 불편함은 일상이 되었고 당연한 일이 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가장 유력한 원인은 야생동물의 병균이다. 나는 코로나19가 야생동물, 나아가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처럼 느껴진다. 그동안 우리는 더 편해지고자 다양한 일회용품 을 쓰고 버려왔다. 지구와의 공생은 뒷전이였다. 그동안 환경은 사스, 미세먼지, 태풍 등 다양한 경고를 보내왔고 코로나19도 그러한 경고의 하나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에 양보도 하고 부탁도 들어준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함께 살아가려면 다회용 물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작은 불편을 감수한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나에게,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라 확신한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어려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낸 이 시그널을 기억하고, 이를 계기로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나만의 불편함을 만들어보기 바란다.

네모난 일상

안지연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 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오늘도 언제 끝날지 모를 네모난 일상이 이어진다.
네모의 꿈은 네모난 일상의 연속이었을까?
네모난 하루를 동그란 눈에 가득 담아 되새겨본다.

땡!
스마트폰 알람을 듣고 기상. 어제 확인 못 한 코로나 안내 문자가 쌓여 있다.

쿵!
현관문을 열면 택배 박스. 집 밖 쇼핑이 위험하지 않을까. 인터넷 마트 쇼핑이 너무 익숙해진 요즘, 택배 박스가 하루하루 계속된다.

휴!
냉동실을 가득 채운 아이스 팩. 택배 박스와 함께 온 포장지가 베란다에 가득 쌓여 있다. 배달음식 용기가 점점 늘어난다.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생활화된 듯하다.

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가 마스크를 두고 온 게 생각나서 다시 집 안으로 향한다. 책상에 놓여 있는 마스크 박스. 비상약처럼 늘 수량을 챙겨놓아야 할 듯한 마스크 박스. 네모난 일상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이 하얀 마스크인 듯하다.

생각해보면 네모가 가득한 세상은 늘 계속되었다. 세상을 모나지 않고 동글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거란 생각으로 네모난 세상을 더 자세히 보지 않았던 날들. 네모난 택배 박스에서 만나는 가게들. 네모난 화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네모가 너무나 가득 넘쳐나는 요즘은 네모난 일상에 익숙해져 그 고마움도 잊어버릴 듯하다.

동글동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동그란 입으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더라도 네모세상을 잊지 않고 일기장, 사진첩에 고이 간직하듯 있는 그대로 남겨보고 다시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마스크 위로 더욱 반짝 빛나고 돋보이는 눈빛, 밝은 생각으로 바라본 네모난 세상들. 무겁고 답답한 마음과 생각은 네모난 상자에 담아 비우고, 삶에 기쁨을 주는 힘을 네모난 화면으로 한 줄 한 줄 써본다. 오늘도 하루하루 채워지는 네모난 일상. 불편하고 답답한 일상이라고 혹 지나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저장해보는 건 어떨까? 네모난 일상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한 기회의 문으로 한 걸음 더 힘차게 안내해주지 않을까?

내가 발 딛고 있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지혜

2019년 여름,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그 상실의 감각은 정말 처음 느껴 보는 것이어서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가장 생경했던 건 잠든 콩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동물'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개는 동물인 것이 당연하지만 그동안 콩이를 동물이 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내 친구이자 우리 가족 그 이상으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슬픔 속에서 콩이를 보내주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매일 출퇴근길에 시장을 지나야 했는데, 이상하게 정육점에 걸려 있는 소와 돼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자꾸만 콩이가 생각났다.

비슷한 시기에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을 읽었고, 정육점의 소와 돼지를 보고 콩이를 떠올리는 것이 '연결감'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이전까지 내가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식탁에 오르는지, 내가 쓰는 물건이 어디서 온 것인지, 내가 버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마트에서 고기를 사다 요리하고, 집에 원래부터 있던 접시에 담아 먹고, 남은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끝이었다. 그 이전과 이후는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아무튼, 비건』에서 '연결감'이라는 단어를 만나고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상함을 느끼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웠던 생각과 마음을 명료히 정리해주는 단어를 만난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무튼, 비건』을 읽고 나서도 내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빴고, 콩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때문에 힘든 나날이었다. 그런데 한번 되살아난 '연결감' 때문인지, 자꾸만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이고 들렸다. 즐겨 듣는 팟캐스트 <듣똑라>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를 알게 되고, 인간-동물-환경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것, 중학교 때 걸렸던 '신종플루'의 원래 이름이 '돼지독감'인데 축산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신종플루'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탈바꿈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밀레니얼 여성들의 커뮤니티인 '빌라선샤인'에서 만난 뉴먼(빌라선샤인에서는 서로를 '뉴먼'이라고 부른다)분이 만든 캠페인 '비건위크'¹⁾에 참여하며 비건을 실천하고 지향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콩이의 죽음이었지만, 내가 더욱 실천의 중요성을 깨달은 건 코로나19 이후다.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거리를 뒤흠리고, 연결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자 비로소 이 세계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한 것이다.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세계에 균열이 나면 나의 일상 역시 무너진다는 것. 하지만 그 균열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지, 더디게 할지도 그 세계를 딛고 있는 나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고 무력감을 느낄 때도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불완전하더라도 우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독려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기로 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기억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1) '비건위크'는 n명이 모여 일주일씩 비거니즘을 실천하면, 그렇게 모인 일주일들이 한 명이 n개월 동안 비건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캠페인이다.

2020 코로나 시대, 하나의 힘

유혜선

바야흐로 2020년 10월, 코로나 시대이자 사방 곳곳에 쓰레기산이 들어서는 시대에 사는 나는 스물여섯 살 취준생이자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다. 상반기에는 유명한 베이커리 겸 카페에서 근무했고, 하반기인 7월부터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생산하고 만드는 사회적 기업, 효과적인 기후 변화와 대기오염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사회적 벤처 기업이 소속된 건물의 1층 카페에서 일한다. 같은 듯 서로 다른 두 카페에서 나는 같은 듯 서로 다른 일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유명 베이커리 겸 카페에서 근무하던 5월, 날이 점차 따뜻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쳐가는 사람들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다시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에 얽힌 데 얽힌 격으로 가정의 달까지 다가왔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줄지은 연휴에 일부 위태로운 움직임들이 예고되었다. 그에 따라 유명 베이커리 겸 카페였던 그곳은 연휴 기간에만 한 시적으로 다회용 컵 사용을 중지하고 일회용 컵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후 내가 퇴사할 즈음 6월 말까지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다. 손님도 직원도 개인의 위생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암묵적인 약속을 한 것처럼 모두가 당연하게 일회용 컵을 사용했고, 여기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 역시 지금 시국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위생적이고, 감정싸움을 만들지 않고, 무엇보다 너무나 편리했다.

다양한 사회적 벤처 기업이 소속된 건물의 1층 카페에서 근무하던 8월, 광복절날 벌어진 광화문 집회 시점을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또다시 급격하게 증가했다. 사내 카페와 다른 없던 그곳에 어느 때와 다름없이 단골 직장인 손님들이 매장을 방문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당연히 일회용 컵을 제공하려 했는데 그들은 평상시처럼 개인용 텀블러를 가져오거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물론 모든 손님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

만, 내가 입사한 이후 자주 보았던 '그들'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매번 텀블러를 가져와 커피를 담아 가는 손님, 텀블러를 깜빡하고 놓고 온 날은 일회용 컵이 아닌 매장 내에 비치된 다회용 컵을 사용한 뒤 깨끗이 씻어서 매장에 반납하는 손님, 차가운 음료로 인해 컵이 흐물흐물해질 수 있는데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 가는 손님 이외에도 빨대 안 쓰는 손님, 최소한의 포장을 원하는 손님, 깨끗이 쓴 캐리어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하는 손님 등 모두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음료를 주문했다.

물론 두 카페는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내가 두 카페를 통해 보고 배운 점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한 사람의 힘'이다. 사내 카페에서 매일같이 보던 그들은 나에게 단 한 번도 환경을 언급한 적이 없이 환경이라는 단어조차 꺼낸 적이 없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갔을 테지만, 아르바이트생인 내 눈에는 보였다.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줄어드는지 말이다. 그리고 나도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스타벅스에서 종이 빨대를 도입하자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투덜거리던, 누구에게 선물할 것도 아닌데 물건을 사면 굳이 예쁜 봉투에 담아주기를 바라던, 음식 먹을 땀 부족함보다 풍족함을 추구하여 실컷 먹고도 많이 남기던 내가 말이다. 나는 그들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는 한 사람의 소신 있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았고, 개인의 위생과 환경오염 모두 지킬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해결책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무 한 그루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숲 전체가 사라지듯이 나무 한 그루를, 한 사람의 힘을, 플라스틱 컵 하나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될 것이다.

멈춘 일상에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것

올림

2020년 코로나19가 퍼진 이후 선명하게 떠오르는 몇 가지 기억이 있다. 첫째, 올해의 안티에 이징으로 삼았던 즐거운 취미인 줘바를 멈춘 것이다. 무엇이든 결심하고 시작하기 좋은 새해에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보겠다며 시작한 줘바였다. 헬스를 꾸준히 하던 시절엔 무거운 아령을 들며 흔히 말하는 '무게를 치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줘바댄스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속세의 스트레스와 칼로리를 동시에 날려주는 기특한 운동이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근하지 않길 바라며 주 2회 줘바댄스에 재미를 붙이던 어느 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에 침투했다. 코로나19는 감염률이 상당히 높고 심각한 바이러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왔다. 게다가 줘바댄스 스튜디오는 집단 감염의 새로운 온상으로 떠올랐고, 그렇게 대역죄인이 된 줘바와 2월 중순, 생이 별해야만 했다.

2월을 지나 여름 즈음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호기롭게 가장 긴 연휴라는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홍콩 휴가 계획을 세웠다. 설 즈음에 끊어둔 표였다. 하지만 4월 초쯤 되자 해외여행은 무리라는 걸 직감하면서 2020년 처음이자 마지막 표를 취소했다. 그때만 해도 2020년을 내리 코로나19와 마스크랑 보낼 줄은 몰랐다. 한여름에는 코로나19가 물러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코로나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모든 일상을 중지시켰다.

여름이 찾아오면서 역대급 긴 장마와 여러 번의 태풍이 찾아왔다. 맑은 날과 햇살이 생경할 정도로 하늘에서는 비를 퍼부었다. 수해 피해를 복구하려고만 하면 강한 태풍이 찾아왔다. 채소 값이 폭등하고 여름의 행복한 달콤한 과일에는 물비린내가 스며들었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 긴 장마, 강한 태풍 모두 인간이 환경을 파괴한 대가라고 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수온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토록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일은 손

에 꼽혔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던가. 맑은 햇살과 달콤한 과일,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면 모임이 주는 즐거움이 늘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오만한 착각이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이제라도 그 외양간을 단단하게 고쳐야 한다. 크게는 환경과 지구를 구하기 위해, 작게는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되기에 지금까지 영위해온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여 익숙해졌을 때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천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나의 실천은 회사에서 귀찮아도 머그잔과 텀블러를 사용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가져올 때 텀블러를 챙겨 가는 것.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무조건이다. 이 작은 실천으로 하루에 사용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하루에 한 개라면 한 달이면 스무 개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자주 애용하는 카페와 집 다음으로 가장 오래 있는 회사에서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것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씩 넓히면 될 것이다. 멈춘 일상을 경험하고 더욱더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다른 것에 기대지 않는 삶

이정요

문득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집에서 무얼 하며 지내는지 궁금해졌다. 마스크 쓰고 외출하고, 손소독을 자주 하고, 집에서 수업을 듣는 거 말고,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일상 세 가지를 짧게 서술하는 과제를 내주고, 나도 내 일상을 돌아봤다.

우리 집 베란다엔 화분이 생겼다. 그것도 아주 많이. 선인장도 쉽게 죽이는 무시무시한 손을 가진 나라서 ‘앞으로는 생명을 쉽게 들이지 않겠다’ 했는데, 키워줄 사람이 없어 떠맡은 시클라멘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빈둥대는 내게 할 일을 주었다. 시클라멘은 추운 날에도 꽃을 피우는데, 물은 밑에서부터 흡수할 수 있도록 저면관수로 주어야 한다. 올라오는 꽃대를 잘라주면 계속해서 새로운 꽃대가 올라와 하루가 다르게 꽃을 피워내는 시클라멘은 몸을 잔뜩 웅크리게 만드는 쌀쌀한 아침에도 나를 설레게 했다. 이토록 가슴 뛰게 하는 생명체를 더 만나고 싶어 하나둘 집으로 데려온 화분이 열여덟 개다. 바질트리 화분은 벌레가 생겨 결국 죽고 말았지만, 나머지 화분은 아주 싱그럽게 잘 자라고 있다. 여유롭게 식물을 들여다보며 그를 알아갈 시간이 충분했기에 가능했다. 이는 분명 코로나19가 선물한 취미다.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사진과 함께 제출한 과제에는 보석 십자수, 유화로 명화 그리기, 글씨 토퍼 만들기, 손톱 꾸미기, 비즈 공예 등 생소한 예술 활동이 즉 소개되고 있었다. 그중 유화로 그린 명화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꽤 멋져 보였다. 밑그림을 그려넣은 도화지에 번호가 쓰여 있는데, 그 번호가 붙은 물감을 칠하기만 하면 명화가 완성된다고 했다. 학생들 표현으로 이거 하나면 시간 순삭¹⁾이란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하나 그려 방안에 걸어두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잠시 하면서 학생들 이야기를 들여다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중 몇은 학교에서는 들여다보지도 않는 책을 다 읽는다며 자신을 기특하게 여겼고,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는 학생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갑자기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학생들은 나름 건전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학생들이나 나나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세 가지 중 하나는 거의 먹는 이야기였다. 외출과 함께 외식을 자제하다 보니 집에서 삼시 세끼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먹고 치우고 돌아서면 어느새 또 먹고 치우고 있다. 세끼를 모두 차려 먹으려니 이리다 하루가 가겠다 싶어 두 끼만 먹기로 하는데, 이도 여러 번 하다 보면 게으름이 생긴다. 그러다 결국 찾는 건 배달음식이다.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이면 깨끗하게 포장된 음식이 따끈하게 내 손에 들어오니, 이보다 강력한 유혹이 어디 있으랴. 배달 앱을 난생처음 이용해봤다는 학생부터 본인이 한 달 동안 주문한 내용을 사진으로 첨부한 학생까지,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했다. 무궁하게 살이 붙은 어느 ‘확찐자’의 고백도 들을 수 있었다. 살이 찌서 고민인 것도 알겠고, 맛있는 걸 잘 먹는 것도 알겠고, 세상 편해졌다는 것도 알겠는데, 쓰레기통아, 너는 안녕하니?

술만 마셨다 하면 명언을 남기는 선배가 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명언 중 내가 오래 기억하고 싶은 건 “사람이 다른 것에 기대면 쓰레기를 만든다”라는 말이다.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어느 큰길가 슈퍼에서 방향을 바꿔 하나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의 집이 나온다. 손님이 찾아왔다고 사과를 깎아 내온 접시에는 가느다란 나뭇가지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이쑤시개를, 포크를, 젓가락을 포기하고 집 앞마당에 있는 나뭇가지를 툭 꺾어 흙먼지를 후후 불어 접시에 올려놓는 그의 소박한 마음이 자주 생각나는 요즘이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에 기대어 살았나. 그렇게 만든 쓰레기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움직일 때가 되었다. 움직이고 싶어졌다. 아니, 움직여졌다.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기대지 않고 집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들고 나간다. 쉽게 뜯어 갈 수 있는 비닐봉지에 기대지 않고 천 주머니에 과일을 담는다. 알맹이만 살 수 있다는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흥이 한껏 실린다. 내가 느끼는 묘한 즐거움을 매일 만나는 학생들과도 나누고 싶어 몇몇 선생님하고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수업을 기획했다. 10월 한 달 동안 동네 쓰레기를 줍고, 자신이 버린 쓰레기 양을 기록하고, 관련된 책을 읽고, 재활용품으로 생활용품과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오늘 수업에서 한 학생이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마다 바다 생물이 떠올라 멈칫하는 자신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경험이지, 그로 인해 느끼는 뿌듯함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가꾸는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나저나 나는 오늘도 너희 이야기에 빠져서 퇴근 시간을 놓쳤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간 순삭!

1) ‘순식간에 삭제했다’의 줄임말.

코로나 공존을 생각할 때

이지영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자연이 더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간이 그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같다.

처음 코로나19가 심해졌을 때 모든 경제 활동이 주춤하면서 자연이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다. 미세먼지가 없어서 인도 북부에서 230킬로미터나 떨어진 히말라야산맥을 볼 수 있었고, 영국에서는 산에서 야생염소들이 내려와 공원과 마당에서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람이 경제 활동을 멈추니 자연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다.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이 다시 회복된다는 희망도 잠시, 우리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자연의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매일 하나씩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폐기물, 위생을 신경 쓴다는 이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있다. 급한 불을 끄듯이 일회용품을 남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폭풍전야처럼 곧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요즘 나는 카페 가기 전에 엄청난 고민에 휩싸인다. 바로 일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컵을 들고 가면 에코 할인을 적용해주지만 일회용 컵에 음료수를 담아준다. 과연 내가 이 할인을 받아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결국은 나도 찰나의 즐거움인 음료를 사 마시기 위해 일회용품을 썼으며 이 일회용품은 앞으로 200년 동안 우리 삶과 함께 있으면서 오염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카페뿐만 아니라 마트, 빵집을 가도 위생을 위해 개별 포장을 선호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소비하게 만든다.

사실 일회용품 사용이 더 위생적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한다. 최근 읽은 기사에 따르면 기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다회용품 재사용은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물체 표면을 통한 코로나 바

이러스 전파가능성은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이 비슷하며 오히려 일회용 플라스틱이 버려졌을 때 청소원 등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

뉴스에서는 이대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가득 차 더 수용할 수 있는 매립지가 없어진다고 했다.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심리 요인이 크다. 바이러스가 나에게 전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에 초점을 두는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적어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식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이 신호를 토대로 지속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1-2년 동안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정해놓은 이 규칙을 실행한다면 그때의 후유증은 견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자연은 유한하다. 코로나19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이 주는 풍족함을 원 없이 누렸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자연이 우리의 이기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짊어줘야 앞으로 1년 또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 동안 다회용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여겨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씩 없애가야 한다. 이는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뤄나가야 하는 아주 장기적인 목표다. 갑작스럽게 바뀐 일상이 혼란스럽겠지만 지금까지 외면했던 사실들을 마주 보고 실천해야 할 때다.

건강한 날을 기다리며

임정은

“나, 내년 여름 베를린에 갈 거야.”

도통한 패딩을 꺼입고 목도리를 둘러매도 시리도록 춥던 2019년 연말 무렵, 모든 강의 강강을 했는데도 열심히 학교에 갔다. 다름 아닌 독일어 수업 때문이었다. 나에겐 큰 꿈이 있었다. 졸업하면 바로 베를린으로 떠나리라! 막연한 다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이었다. 베를린에 가서 독일어도 더 배우고 여행도 하고 실력을 갈고닦아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턴도 하고 싶었다. 그동안의 알바비와 장학금을 톼툼이 모아둔 통장을 보며 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세상만사 내 마음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계획과 다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 해의 야심 찬 계획이 무너진 건 나뿐만이 아닐 테니까. 2020년 2월, 전 세계에 재앙이 찾아왔다. 영화 속 상상의 존재였던 바이러스가 현실 세계에 착륙했다. 하루아침에 자유를 잃었다. 곧 종식될 거라고, 머지않아 끝날 거라고 굳게 믿었던만 야속하게도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바이러스는 끝없이 퍼지고 있다. 모순적이게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수록 하늘은 미세먼지 한 점 없이 파랗게 물들어 갔다.

갑작스레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나는 오랜 시간 방황했다. 지난 10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애꿎은 코로나 탓을 수백 번 해봐도 소용이 없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나서야 현재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넷플릭스 창업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지금 상황에서 미래에 뭐가 통할지, 뭐가 망할지는 나도 솔직히 잘 모른다. 대신 내가 집중하는 건 이거다. 현재 하는 일에서 조금

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것. 몸을 가볍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실행에 옮길 것.”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던 날들이 그립다. 어쩌면 다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르지. 우리는 오랜 시간 아무런 자각 없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왔으니까. 모든 게 예전 같을 순 없겠지만, 부디 어리석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인류에게 희망은 있을까? 적어도 나는 그렇다고 믿고 싶다. 이번만큼은 절망하지 않는 낙관주의자가 되고 싶다.

습관의 변화

장철완

어릴 적 좋아하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스펀지>였다. <스펀지밥> 말고 이휘재가 진행하는 생활 정보 예능 <스펀지> 말이다. '빛나라 지식의 별!'이란 명대사를 남긴 그 프로그램. 제보자들이 지식을 가져오고 그걸 평가해 별 다섯 개를 받으면 상금 100만 원을 받는 인류애 넘치는 프로그램이었다. 사실 즐겨 본 것치고는 거기 나온 지식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써먹는 지식이 있다.

라면에 대한 에피소드였다.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을 꼭 소개하고 마지막에 라면 봉지를 깔끔하게 버리는 꿀팁을 알려주었다. 봉지를 네 번 접어 건더기 수프 비닐에 넣으면 딱 들어간다는 얘기였다. 나는 배운 걸 활용하고 싶어 방송 다음 날 라면을 먹었다. 찹싸게 면과 수프를 냄비에 털어넣고 봉지를 접었다. 그리고 건더기 수프 비닐에 넣으니 정말 예쁘게 딱 들어맞았다. 이때 이후로 라면 봉지는 무조건 이 방식대로 버린다. 맹세컨대 단 한 번도 그냥 버린 적이 없다.

마스크 대란이 지나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때쯤 마스크 제대로 알고 버리자란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언론에서는 다리에 마스크줄이 영킨 야생동물을 보여주며 시민들을 독려했다. 마스크줄을 자르거나 묶어서 버려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모를 땀 그냥 버릴 수 있었지만 한번 알고 나니 그냥 버릴 수 없었다. 줄을 가위로 자르는 것까지는 번거로워서 못 하고 줄을 묶어서 버리기 시작했다. 애처로운 야생동물 사진이 힘을 발휘한 셈이다.

두 달을 실천하니 어느새 마스크 묶어버리기는 습관이 되었다. 라면 봉지를 건더기 수프 비닐에 넣어 버리듯이 마스크 역시 종량제 봉투에 넣을 때 묶어서 버리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이제 야생동물을 바라보며 생겼던 애처로운 마음은 흐릿해졌다. 그런데도 마스크를 묶어서 버리는 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이 대개 그렇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쓰기 시작한다. 어색하던 텀블러 사용이 손에 익으면 플라스틱 컵

이 오히려 어색해진다. 매번 환경을 생각하며 텀블러를 씻을 수는 없다. 오직 습관만이 귀찮은 일을 강제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습관을 만들어주었다. 음식점에 들어가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일, 매일 아침 마스크를 챙기는 일이 그렇다. 2020년 1월만 해도 마스크 사용이 이렇게 일상화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한어름에 마스크를 어떻게 해? 난 답답해서 못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어떨까? 마스크 쓰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습관이 되었다. 대중교통, 공원, 스포츠 경기장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쓰고 있다. 땀이 줄줄 흐르는 날에도 모두의 입가에는 마스크가 있었다.

마스크 묶어서 버리기는 분명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한 달 평균 1290억 개의 마스크가 버려지는 상황이니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처음 한 달은 야생동물을 생각하면서 해보자. 다음 한 달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보자. 이제 그다음 달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미 묶어서 버리고 있을 테니까.

멀망을 상상하는 일

정다정

‘멀망’이라는 단어는 잇을 만하면 영화의 주제로 소개되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월드워Z」「투모로우」 등 멀망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멀망의 복잡한 원인만큼 화려했고 늘 블록버스터급 영화라는 표제가 붙었다.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 막대한 자본으로 만든 영화는 화려한 광고를 통해 눈으로 귀로 줄거리를 알려주었다. 덕분에 멀망을 상상하는 일은 쉬웠다. 일상이 고단한 날이면 친구들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라고 쉽게 바라기도 했다. 그럴 때면 ‘만일 나라면’이라는 상상을 했지만 영화만큼 무섭지 않았다. 상상은 가정법이었다. 영화 속 멀망은 참담했지만 그 멀망은 내게 다가오지 않을 일임을 알고 있었다.

메르스가 왔을 때 비말로 쉽게 감염되어 사람들이 죽었지만, 나와 사랑하는 사람은 피해갔다. 여전히 멀망은 가정법이었다. 우한폐렴이 왔을 때 뉴스에서는 메르스보다 무서운 질병이라 보도했지만, 나를 피해 지나가리라는 마음이 한쪽에 있었다. 질병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며, 빠르게 우한폐렴을 안내받고 손 씻기 활동을 강조하며 상시 아이들의 열을 재고 공간을 소독했지만 여전히 멀망은 가정법이었다.

그러던 2월 우한폐렴이 아닌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브리핑을 통해 매일 방송되었고,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오르면서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멀망은 가정법보다 더 가깝게 ‘어쩌면’이라는 단어로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돌았다. 과거의 나를 차근차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코로나19는 왜 왔을까?’를 시작으로 내가 한 선택들을 되짚어보았다. 계절이 돌아와 봄이 되고 벚꽃이 피었지만 당연한 3월의 시작이었던 개학, 개강 등 일상은 멈췄다. 멈추는 기간 동안 나를 반성했다. 육식을 해온 나를, 일회용품을 넘치게 사용해온 나를, 비행기를 자주 타온 나를.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송에 탄식하고 반성하던 사람

들이 반성과 다르게 배달을 선택했다. 1인 가구당 배달률이 (10월 기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73.6퍼센트 상승했다. 사람들은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외출 대신 택배로 주문하고, 위생을 이유로 다회용기 대신 일회성 용기를 썼다. 코로나19가 생겨난 원인으로 무분별한 환경오염이 조명되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바라보며 행동을 멈추는 것만으로 지구가 정화되는 모습에 놀라워했지만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불편했던 마스크가 어느새 익숙해지고 자연스레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는 일이 어렵지 않다. 사진첩에 마스크를 끼고 촬영한 사진들이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삶이 일상이 되었지만,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편히 숨 쉬고 싶고,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을 보고 싶고,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 언제가 될까? 언제쯤 돌아올까? 나를 중심에 두고 ‘멀망’을 상상해보니 역시나 가정법일 때가 더 좋다. 그래서 나는 반성 대신 실천하려고 한다. 멀망은 상상일 때가 좋다.

‘구멍 난 오존층’은 어떻게 됐지? - 공포를 동력으로

정현주

2020년은 시작부터 날씨가 이상했다. 온난한 겨울, 추운 봄, 비가 끊이지 않은 여름.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이상 기후가 끝없이 이어졌다. 이번 여름은 특히 습기와와의 전쟁이었다. 제습 모드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다. 그러다 문득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 귀에 못이 박이게 들은 얘기가 떠올랐다.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니깐 에어컨 틀면 안 돼!”

오존층은 지구 대기 중 오존(O₃)이 밀집된 층으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차단하는, 지구 생명체의 보호막 같은 존재다. 프레온 가스(CFCs)는 1928년에 개발된 냉매제이며 무독성과 가성비로 에어컨, 냉장고, 헤어스프레이 등 생활 전반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40년 후인 1974년 프레온 가스의 오존층 파괴 가설이 제기되고, 1985년에 실제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NASA가 촬영한 남극의 오존분포량 사진이 공개되며, 파괴된 오존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상이 뒤집혔다. 정확히는 오존층의 두께가 얇아진 것이지만, 사람들은 ‘구멍이 뚫렸다’는 직관적인 표현과 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보며 문제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내가 피부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졌다.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었다.

개인, 국가 할 것 없이 모두가 오존층 보호, 프레온 가스 배출을 외쳤다. 그리하여 1987년, 23개국이 모여 프레온 가스를 비롯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모든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꾸준히 개정되며 참여국이 200여 개국으로 늘었다. 그 결과 단계적으로 줄인 프레온 가스 사용이 2010년에 완전히 금지되었고, 오존층 파괴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2016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50년까지 남극의 오존층이 완전히 회복되어 메워질 거라고 예측했다. 프레온 가스는 사라졌고 오존층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오존층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아산화질소 등)가

남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해냈다. 다 함께 힘을 합쳐 환경 파괴를 막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더 이상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고, 북극곰의 이야기가 아니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했고, 전 세계가 멈췄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었다. 따뜻한 겨울로 매미나방 애벌레가 산을 차지했고, 폭우와 태풍의 연속으로 채소 값이 폭등했다. 우리는 지금껏 웅케 비껴갔던 피해를 온전히 겪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기온이 올라가며 대기 흐름이 엉망이 되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나는 텀블러와 에코백 사용은 실천하지만 그 이상의 제로웨이스트나 채식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재활용품을 열심히 닦고 말려서 버려도 분리수거장에서 엉망으로 배출된 쓰레기와 뒤섞이는 것을 보면 허무했다. 무력함에 해이해지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다 2020년을 맞았다. 이제 환경 문제는 나의 생존 문제가 되었다. 내 생활의 변화는 선의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니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많았다. 환경운동을 하는 청소년(‘청소년기후행동’ 등),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상점(‘알맹상점’ 등), 일회용품 없이 운영하는 카페(‘얼스 어스’ 등), 불필요한 물건을 만들지 말라고 기업에 직접 요구하는 단체(‘쓰담쓰담’ 등) 등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앞서가고 있었다. 혼자 힘이면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떻게? 먼저 시작한 사람의 노하우를 듣고 따라 해보고, 활동에 동참하거나 응원해보자.

우리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이 있고, 환경운동가들이 추진하는 활동도 있고, 친환경 물건이 있다. 다수의 공포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좋은 예를 ‘구멍 난 오존층’을 통해 보았다. 코로나19와 지구온난화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하지만 모두가 공포에 질린 지금만큼 달라지기 좋은 시기도 없다. 공포심에 무릎 꿇지 말고 맞서보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직 이어지지 못했을 뿐 같은 생각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 코로나19, 지금을 기억하고 이 공포와 불안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 달려보자.

'왜'를 생각하며

차지양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과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드러난 '환경오염 인재'의 증거들은 그것을 본 모든 이에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안겨주었고, 인간의 만행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몇 년간 좌절감을 안겨준 미세먼지의 감소로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되찾고, 야생동물들이 우리가 그어놓은 인간 생활 구역 안으로 들어와 유유자적하고, 쓰레기가 떠다니던 천과 강이 경이로운 빛깔을 띠며 해양생물을 맞이하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가'를 뼈저리게 알려주었다.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골칫덩어리는 인간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인간으로서 저지른 만행이 부끄러웠다.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이가 동의하는 가장 큰 우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계속되는 사회 제재와 규율에 지친 나머지 '이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한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평범'이라는 것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와 똑같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평범'이란 무엇일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제재 없이 불안감 없이 마음껏 돌아다니며 일상을 즐기는 걸 의미할 것이다. 더불어 또다시 '배기가스로 공기를 더럽히고 쓰레기로 땅과 물을 오염시키며 무분별한 벌목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빼앗는 것'을 의미할 터다.

최근 몇 달간 '위생과 안전 수칙'이라는 이유를 대며 이전보다 더 많은 쓰레기 배출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오고 있다. 일회용 마스크와 음식 포장에서 나오는 포장재가 대부분일 것이다. 거의 모든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는 나의 일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일회용 마스크인데, 이 지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가 단순한 쓰레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충격이었다. 쓰레기가 그토록 빠르게 자연

으로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평범'의 정의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가장 빠르고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일상 속 쓰레기 줄이기가 아닐까 싶다.

제로웨이스트 및 친환경운동가들이 권장하는 면과 소창 마스크 사용이 장기적 차원을 고려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세탁하는 작은 수고만 감내하면 된다. 피부에도 훨씬 덜 자극적이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효력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감 부족으로 나부터도 실천이 잘되지는 않는다. KF80, KF94는 안전성 검증이 되었다고 하니 의심 없이 사용하는데, 과연 면 마스크는 안전할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안전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당장은 일회용 마스크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 야생동물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단기적 차원의 방법은 잘 버리는 것이다. 마스크 줄을 자르거나 묶어서 버리면 야생동물이 줄에 걸려 위험에 빠지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마저 귀찮다면 정말 이기적이고 게으른 것이므로 '아직도 현실을 보지 못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다른 면에서 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이 또한 작은 귀찮음만 이겨내면 되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장바구니를 애용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나 역시 장바구니 사용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다만 습관이 되지 않았고 비닐 사용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조금씩 장바구니에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해왔다. 지금은 장보러 나갈 때 장바구니부터 챙기는 게 습관이 되었다. 장바구니가 없을 때 무언가를 사면 백팩에 넣어 오거나, 백팩이 없으면 급하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서 손에 들고 온다. 불편하게 왜 손으로 드냐.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건 생각과 태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본다.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운동이 되겠구나, 이렇게 또 한번 비닐을 줄였구나, 생각하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이 우리가 일상에서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면, 그 대책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 그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에도 분명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하느냐'를 끊임없이 인지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민해진 지구를 배려하고 싶어서 같이 예민해졌습니다

최지희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금방 사라질 거라고, 금방 백신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벌써 2020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자꾸 변이되며 백신을 이기는 터라 내년 각종 조사 율이 두렵기만 합니다. 낮아야 하는 비율은 높아질 거고, 높아야 하는 비율은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이 야생박쥐를 먹자 인간의 몸 안에서 변이되며 시작되었다는 설과 우한연구소에서 변이시킨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설이 최근까지도 큰 이슈였지만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진실에서 시작되었든 두 가지 이유 모두 인간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스브스뉴스'에서는 사람들이 한 해 소비하는 환경을 예산으로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이라는 국가에서 물이나 전기, 가스 등 1년 치 예산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그 예산을 2-3분기 안에 모두 소진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초반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관광지로 더럽혀졌던 자연환경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한참 동안 SNS 화젯거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필수품이던 마스크와 거리 두기로 인해 늘어가는 배달 용기가 환경을 다시 악화시킬 거라는 예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분리수거 하나만으로도 환경을 지킬 수 있으나 실천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SNS에서 화제가 되며 친환경 용기나 물품이 늘어갔고, 마스크줄을 잘라서 버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좋은 변화 속에서 다른 문제점에 대해 예민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액체 비누 사용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살아가는 지금 중요한 필수품인 액체 비누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나중에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고 자료를 찾아보니 액체 비누가 환경오

염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먼저 고체 형태의 비누를 액체화하려면 제조 과정에서 고체형 비누보다 다섯 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펌프형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과 운송 과정을 포함하여 25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펌프 뚜껑은 재활용도 안 됩니다). 또한 고체형 비누에 비해 액체형 비누는 여섯 배 이상 많이 사용하며, 보습제 성분이 첨가되어 있어 잔여물까지 씻으려면 더 많은 물로 행귀야 합니다. 고체 비누를 사용하려고 무던히 애쓰지만 위생적이지 않아 보여서 주저하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고체 비누는 쉬운 관리로도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베이스에 들어가는 팜유를 만들기 위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멸종위기 동물이 많아지며 오염된 물은 근처 수로와 토양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비누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팜유가 들어가지 않은 팜프리 비누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렵고 귀찮을 수 있지만 이 글을 보는 분들이라도 팜프리 고체형 비누를 찾아서 사용하려고 애써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현재가 편하면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첫 시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전문가들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된 건 코로나19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팜유, 플라스틱, 육식, 바이러스 연구 외에도 다양한 환경문제의 시작이 인간의 욕심이기에 현재를 잊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려하며 어느 순간부터 환경과 공존하는 삶과 태도가 당연해지면 좋겠습니다.

예민해진 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같이 예민해지려고 합니다.

삶에서 빼야 할 것

표승희

추석이 지나면 꼭 이런 사람이 보인다. 무언가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장염 유발균을 지니고 있다.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했다. 장염이 발생했다고 예측한 나는 고열에 시달리는 그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은 COVID-19 비상사국 인자라 고열=격리 공식이 성립되므로 병원에 가는 게 상당히 꺼려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열에 시달리는 가족 구성원의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못해 결국 집 근처 대형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역시나 입구에서부터 ‘코로나 우대’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면 원인은 너무 분명해 보이지만(그 원인을 단어로 명명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입원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병동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고열의 가족 구성원을 휠체어에 앉히고 방호복을 입으신 분들의 안내에 따라 격리병동으로 이동했다. 보안카드가 필요한 육중한 문을 몇 차례 지나 병원 꼭대기 층으로 예상되는 병실로 안내받았다. 열 떨결에 따라 들어간 나 역시 격리 대상자가 된 것은 나만 예측하지 못한 사실.

격리병동은 음압병실과는 다른 곳인데 말 그대로 목적이 ‘격리’인 병실이었다. 예전에는 7-8인이 사용했을 법한 다인병실을 싹 비우고 나와 가족 구성원 둘만 그곳에서 먹고, 자고, 싸고를 하는 공간이었다. 새벽에 응급실을 찾았다가 격리까지 하게 된 우리는 기초 생활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 두툼한 방호복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장착하신 우주인급 직원분의 안내가 끝나고 문이 닫혔다.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는 바로 물과 휴대전화 충전기.

이곳에서 생활하며 가장 편리한 것은 쓰레기 처리였다. 타인의 접촉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모든 쓰레기는 ‘위험’ 표시를 큼지막하게 그려넣은 큰 드럼통에 던져 넣으면 되었다. 모든 식사는 일회용기에 담아 비닐봉지에 넣고 공공 싸서 병실로 들어왔다. 음식물 쓰레기 역시 일회용기에 그대로 두고 비닐에 묶어 코로나 전용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넣으면 되었던 것. 이토록 편리하다니.

격리병동에 머문 시간은 열두 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큼지막한 휴지통은 몇 차례나 가득 채워졌고, 물과 충전기도 들고 오지 못한 나와 가족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쓰레기를 생산해냈는지, 계

속해서 쓰레기를 만들어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먹고, 싸고, 자고, 그리고 생산하는 것이다. 인류에게 유익한 창조물이 아닌 코로나 위험 물질로 취급되는 쓰레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격리된 그 짧은 시간 우리는 쓰레기 생산자였고, 그 쓰레기로 인해 또 다른 코로나균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간단한 도식이 그려졌다.

그렇다면 쓰레기=인류 재앙(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임이 분명하다)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

며칠 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님박스 DT점에서 커피를 한 잔 산다. 종이컵 두 개 쓰면 환경오염 되니까 벤틀리 사이드로 한 개만 주문하자고 동의한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차에서 내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마친 뒤 드라이브 스루를 하여 물건을 건네받았다. 큼지막한 종이컵을 보자 마음이 뿌듯했다. 오늘도 종이컵 하나 덜 썼어! 그런데 문득 차 안 여기저기 널브러진 텀블러가 눈에 보인다.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 다양한 디자인의 텀블러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사다 놓은 텀블러만 해도 10여 개인데, 커피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사 모았을 엄청난 수량의 텀블러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요즘 커피 매장에서 텀블러를 들이미는 선진 의식을 장착한 사람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이것도 유행을 탄다. 환경을 사랑하자 할 때는 텀블러를 산다. 텀블러 수요가 늘어나면 해외 제조 국가의 공장을 그리고 제품을 판매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운송 수단이 바빠 움직일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올라간다. 또 요즘 같은 COVID-19 상황에서는 위생을 생각한다고 다회용 컵 사용을 지양하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종이컵 쓰레기섬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다른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러나저러나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토록 유해한 인간이라니,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갑자기 철학자가 된 기분이다.

아마도 우리가 빼야 할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닌 듯하다. 일회용기의 경우만 봐도 우리는 사고, 쓰고, 버리는 존재다. 삶에서 빼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인 듯하다. 선진 의식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텀블러를 먼저 장착해야 한다는 욕심을 지닌 우매한 인간의 본성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욕심을 빼지 못한다면 우리는 들고 도는 쓰레기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빨간 약’이 코로나균을 99.9퍼센트 제거할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누리꾼들의 댓글이 가관이다. 그러면 ‘빨간 약’을 먹으면 되겠네. 이것도 기사냐 등등.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 ‘빨간 약’을 때문에 발라놓으면 코로나균이 못 들어오나? 마치 성서의 인물 모세가 이집트에서 재앙을 피하려고 문지방에 바른 양의 피처럼 말이다. 그리고 보니 양의 피를 만들기 위해 양을 엄청나게 죽였고, 그때 발생했을 이산화탄소도 엄청났겠구나 싶다. 이러나저러나 환경오염이다. 결국 모세님께도 조언을 드려야겠다.

“좀 덜 죽이시고 아껴 쓰세요.”

당신이 내게 화를 내줬으면

현요아

예상치 못하게 불어닥친, 그러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바나나 한 송이마저 비닐에 칭칭 감겨서 택배로 옮겨진다. 생활용품을 고르면서 카야잼 하나를 추가했더니 잼이 담긴 병보다도 두꺼운 비닐과 박스가 도착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상이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도 대수롭지 않게 고꾸라지리라는 확신이 든다.

흠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 생경한 사회에서는 새롭게 익혀야 할 게 참 많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장사하면서 맛에만 신경 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그들의 온도는 36.5도에서 멀어지지 않는지 점검할 방안이 있어야만 돈을 번다. 맛보다 청결이 더 중요해서 사람과 사람을 가로막는 투명한 유리 벽이 있는 식당에 들어간다고들 한다.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 번 쓰고 버려지니 다른 사람의 타액이 묻었을까 봐 겁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회용품이 늘어났다면, 일상에서 마스크가 필수 불가결한 위치로 올라갔다면 잇따라 배워야 할 게 많은데도 새로운 지침들이 알려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듯싶다. 마스크는 묶어서 버려야 하고 야생동물의 발이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줄을 잘라야 한다는 '줄 자르기 운동'도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시들거리는 듯하다. 예전에는 길거리에 찌그러진 캔이 보였다면 지금은 찌그러진 마스크가 보인다. 물론 줄이 잘렸거나 마스크를 묶지도 않은 날것 그대로의 모습이다.

시국에 맞물려 늘어난 택배에 한숨짓는 택배기사와 산처럼 쌓인 배달용품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환경미화원의 사진을 봤다. 카페나 식당 출입을 제한하면 집에서 요리해 먹거나 커피를 내려 마실 거라는 예상이 완벽하게 빗나간 풍경에 저절로 숙연해졌다. 배달 앱에 주문할 때 일회용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체크를 해도 몇몇 사장님은 여전히 일회용 수저를 함께 넣는다. 얼

마나 많은 사람이 체크를 안 하면 요청 사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회용품을 반찬처럼 함께 동봉하는 건지 상심에 빠졌다. 눈앞의 편리함에만 주목하다가 커다란 악재로 돌아올 텐데. 코로나19가 최대의 재난이라고들 하나, 나는 왜 이게 시작처럼 보이는지. 사실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하게 불어닥친 일이 아니다. 물론 함부로 얘기하다간 비관적인 사람으로 몰리니 입만 다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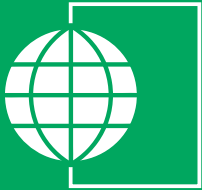
코로나 종식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궁금해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늘어나는 플라스틱 사용과 해마다 괴이해지는 이상 기후에 관한 관심은 빠르게 사라진다. 나는 현재의 답답함에만 주목해서가 아닐까 생각했다. 호흡이 답답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기후와 환경오염 같은 문제는 신경이 덜 쓰이는 거라고. 코로나19가 하루를 덮쳤다는 소식은 뉴스를 보지 않고도 언제나 느끼지만 그 밖의 문제는 굳이 신경 써야 알 수 있는 일이므로.

가끔은 나도 있다. 육즙이 흐르는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충동에 빠진다. 하지만 육식과 온실가스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소식을 되새긴다. 해이해지는 순간 미래의 행복도 해이해지므로. 편리함에 주목하는 소확행만 즐기면 미래의 행복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 우리는 서로에게 알려줘야 한다. 무심코 일회용품을 고르는 미래의 내게 당신이 귀땀 해줘야 한다. 당신이 내게 화를 내주기 바란다.



쓰레기,
환경을 쓰다

2



오늘도 몇 번은 손에 쥐었을 테이크아웃 컵, 대량의 휴지, 썩지 않는 스티로폼을 떠올려봅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는 사람의 형체만 한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사람이 사는 데 지독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또 생각 없이 소비한 물품이 환경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2주 차에는 그동안의 습관을 돌아보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지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 쓰레기의 심각성

이번 여름 우리는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토록 비가 많이 내리는 걸 처음 봐서 자연스럽게 공포라는 감각이 따라왔습니다. 홍수뿐 아니라 봄과 가을의 경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진 상태이고 매년 돌아오는 봄이면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한국에서 1년간 사용되는 비닐의 양은 235억 장이며, 한반도의 전체 면적의 70퍼

센트를 뒤덮고도 남는 규모라고 합니다. 또 한국인이 1년간 소비하는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이고 한 명당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비량은 1인당 100킬로그램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의 쓰레기 배출량이 15.6퍼센트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로 뻗어나가면 버려지는 양보다 재활용되는 양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21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활용조차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대부분 소각과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한국은 현재 대부분의 쓰레기를 소각 중입니다.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결국은 기후 위기 문제까지 야기하게 됩니다.

●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운동.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시작한 제로웨이스트 운동. 0(zero)와 쓰레기를 의미하는 웨이스트(waste)의 합성어인 '제로웨이스트'는 단어 그대로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각 도와 시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동참하기'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막상 제로웨이스트라는 말을 들으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는 생각이 들어 막막하겠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페트병,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하는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장을 볼 때는 비닐에 넣어 오는 대신 장바구니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완벽하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것보다 다수가 한 걸음씩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동행인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문득 힘이 나는 것처럼요.

환경 속의 인간

고서영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플라스틱 컵 반입을 금지했다. 대신 입구 한쪽에서 이음만 기재하면 언제든지 회사에서 제작한 텀블러를 대여해주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라면 회사 사람들과 함께 쓰는 텀블러라니, 경악을 했겠지만 그때는 깨끗이 씻어 살균기에 보관했기 때문에 꽤 그럴직한 일이었다.

사실 회사에서 텀블러 대여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회사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강제성을 두고 문화를 조성해나가자 플라스틱 컵을 들고 회사에 들어오는 게 꽤 눈치 보이는 일이 되었다는 점이다. 모든 직원이 서서히 개인 텀블러 혹은 회사 텀블러를 사용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다시 종이컵을 비치했고 일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아쉽게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8개월여의 시간은 우리를 다시 이전으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지금은 모든 직원이 자연스럽게 테이크아웃 커피를 플라스틱 컵에 담아 마신다. 솔직히 나 역시 점점 텀블러 실천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한걸음 떨어져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슬픈 운명을 가진 터, 우리는 언제나 변화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버리기 마련인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보며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점은 상황이 설정되지 않으면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챙기는 건 환경보호보다 비닐봉지 값을 아끼려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손익을 계산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이 환경보호와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기 쉽도록 우리 사회가 상황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다.

- 개인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제공
- 친환경 소재 빨대와 영수증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세금 감면
-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에 포상과 세금 감면
- 대체재 개발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급

모든 일이 그러하듯 첫 시작은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준과 규칙을 세우며 묵묵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규율 없이도 환경을 생각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거라 믿는다.

서서히 멀어지는 종입니다

김보아

올해 초부터 채식을 시작했다. 먼 미래의 일만 같았던 기후변화가 어느새 내 삶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육식을 끊어보자 다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나의 라이프스타일은 배달의 민족에 길들여져 있었다. 어떤 달은 vip에 오를 정도로 많은 돈을 배달음식에 쓰기도 했다. 기후 위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많은 배달음식으로 쓰레기를 만들어내다니. 언행불일치의 위선자가 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집 앞을 나서다 내 키만 한 대형 봉투 여러 장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찬 것을 보았다. 쓰레기 더미 사이를 지나가며 생각했다. '아, 이제 정말 배달의 민족과 멀어져야겠구나.'

지금은 배달의 민족 어플을 지운 상태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겠는가. 일회용 수저를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어플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는 필요 없다고 체크하는 곳이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주문요청란에 '일회용 수저 X'를 추가했다. 실수로 나무젓가락이 올 경우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 이렇게 하니 작은 부분이지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 그다음은 내가 주문한 음식 외에 다른 반찬이나 소스는 가져오지 말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배달음식에 포함된 소스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집에 간장, 초장을 비롯한 각종 소스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을 담은 플라스틱과 비닐은 여전히 큰 문제였다. 배달음식을 먹으면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의 결론은 수거용 그릇을 사용하는 중국집에 주문하는 거였다. 가끔 중국집인데도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오는 경우가 있어서 '수거용 그릇으로 주세요'라고 주문요청란에 추가해야 했다. 이렇게 나의 주문요청란에는 '일회용 수저 X, 반찬 X, 소스 X, 수거용 그릇에 주세요'가 적혀 있었다. 배달음식은 선택지가 중화요리밖에 없으니(심지어 고기 들어간 요리가 많아 더 한정적이다) 아예

배달음식을 먹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지금은 어플을 지운 상태다. 아주 가끔 너무 요리하기 싫을 때는 배달의 민족을 다시 다운받아서 음식을 배달해 먹고 지우기도 하지만.

올해 초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 점차 배달의 민족과 멀어지고 다양한 비건 요리에 도전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혹자는 '그렇게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배달음식도 포기 못 했 나'며 비난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배달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전혀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다. 자취 생활 5년 동안 배달음식에 의존해왔으니 배달의 민족이 내 식생활과 식습관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겠는가. 그만큼 시간을 들여 단계별로 서서히 멀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만들던 크고 작은 습관들을 점검했다. 그런 습관들을 바꾸는 데 시간이 들겠지만 서서히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겠다.

우아한 공상의 습관

김지안

위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인의 깔끔함이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 국가 1위를 찍어 버렸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위생을 선택한 사람이다. 수돗물을 끓여서 음식을 해왔는데 수돗물 오염 뉴스를 접하고 바로 생수를 배달해 먹기 시작했다. 배달된 생수가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환경 파괴에 일조하는구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하며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지만 페트병을 비워낼 때마다 대체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전 필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필터를 교체하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사실에 착잡했다. 결국 생수를 줄이고 근처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 오긴 했지만, 편의를 위해 정수기 구입을 고민하는 지금 상황에선 언제까지 수고로움을 감당할지 모르겠다.

일상에서는 요리를 하거나 뭔가를 먹을 때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 같다. 포장된 재료를 꺼내면서 크고 작은 자질구레한 쓰레기를 조리대에 쌓는 것이 요리의 시작이 되어버렸다. 온전하지 않은 상품은 고객이 찾지 않으니 모양과 위생을 위해 과대 포장이 일반화되었고, 포장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항의하는 고객도 흔히 볼 수 있다. 그 결과 플라스틱 사용 국가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순위에 오르지 않았을까? 점차 대형 마트 같은 기업에서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우리 생활 깊숙이 길들여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일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쓰레기를 줄이려면 편의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물건을 포장한 비닐이나 폴리백은 쓸 수 있을 때까지 재사용하고, 비닐봉지는 천 장바구니로 대체하고, 음료나 음식을 포장해 올 때는 용기를 가져가고, 일회용품 대신 도시락 수저 세트를 사용하

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되 아껴 써야 한다. 이 모든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편의에 길들여진 이상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제 지구는 기다려줄 여력이 없다는 듯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지구의 경고를 인식하고 일상에서 경계 없이 물건을 재활용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일이 불편하지만 우아한 공상의 습관으로 인식되기 바란다.

배려의 새로운 정의

김희라

꽤 오랫동안 익숙해지려고 노력한 습관이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빨대를 들고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마시며 장바구니로 장을 보는 일이다.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습관 같지만 생각 외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빨대를 꽂아서 내주는 일이 가장 흔했다. 카페에서 마시더라도 더 깨끗하다는 이유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주기도 했다. 마트에서도 계산을 끝낸 직원이 내 가방이 지지분해질까 봐 가격표만 붙여서 가져온 채소를 비닐로 포장해주고 차가운 두부에서 물이 배어나온다며 다시 한번 비닐로 싸서 돌돌 말아주곤 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빨대를 하나라도 쓰는 날엔 꽤 오래 화가 났고,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아무리 달디단 음료를 마셔도 왜 텀블러를 챙겨 오지 않았는지 씁쓸하기만 했다. 거절해도 대수롭지 않게 싸주는 비닐 포장 때문에 지금껏 해온 노력들이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제는 빨대와 컵을 보여주며 여기에 담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나서야 주문한다. 버블티가 먹고 싶을 땐 유리잔에 반아 스푼으로 얼음을 골라내며 버블을 먹는, 남들이 보기엔 유난을 부리는 날도 있었다. 한 번 쓰고 버려질 플라스틱을 쓰느니 이상한 시선을 받는 게 훨씬 마음 편했다. 여전히 장볼 때 곤욕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라도 줄이고 비닐봉지가 생기면 보관해뒀다 다른 용도로 써서 진짜 일회용품이 되지 않게 한다.

빨대 하나 쓴다고 해서, 플라스틱 컵 하나 쓴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싫어진 걸까. 일회용품이 눈에 보이는 순간 잠깐 쓰이고 버려질 운명이 바로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중 빨대와 비닐봉지를 가장 싫어한다. 바다거북의 코에 빨대가 걸리자 그 빨대를 빼느라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보고 다시는 일회용 빨대를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영상을 봤을 때 난 바리스타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일회용품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텀블러를 내밀거나 머그컵 사용이 가능한지 물어보면 그렇게 반

가울 수가 없었다.

비닐봉지는 그보다 한참 전부터 싫어했다. 2013년에 필리핀 톤도에서 장기봉사자로 지낸 적이 있는데, 내가 살던 마을은 쓰레기 하치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버려지고 떠도는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먹고살 방도를 찾아 떠돌던 이들이 모여 살며 쓰레기와 톤도 사람들의 기생 관계가 형성되었다. 큰 용량의 제품을 살 경제력이 없고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일 쓰는 샴푸, 린스, 치약도 비닐에 1회분을 담아 슈퍼에서 팔곤 했다. 판매 가치가 낮은 비닐은 팔리지 못하고 다른 쓰레기와 뒤섞여 바닥에 쌓였다. 우기에는 비가 땅에 스며들지 못해 길을 걸을 때마다 질퍽질퍽 끈 갓발을 걸듯 다리에 힘을 줘야 했다.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의 과정은 알지 못한 채 쓰레기를 만들어내던 난 그 쓰레기들이 수십 년 쌓여 거대한 산을 이룬 곳에서 매일 먼지처럼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광경을 목도하고 나선 그 떠돌던 쓰레기가 누군가를 해치는 용도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전처럼 '어딘가로 가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무심코 쓰레기를 버릴 수 없어졌다. 한번 눈에 보이니 더 예민해지기만 했다. 이 방법 말고 또 없는지 생각해보며 새로운 습관들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를 위한 배려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누군가 나의 수고를 덜어준다면 빨대가 담긴 커피를 줄 때면, 나를 생각했다는 기쁨보다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앞섰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배려를 다시 말할 때가 되었다. 적어도 내겐 커피에 빨대를 꽂아주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다. 내 가방이 지지분해진다면 요구하지도 않은 비닐을 싸주는 배려도 필요하지 않다. 커피는 잔에 입을 대고 천천히 마시면 되고, 가방이 지지분해지면 빨면 된다. 행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먼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빨대 필요하세요?' 혹은 '비닐로 포장해드릴까요?'라고 질문함으로써 내가 일회용품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행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를 위한 마음은 알겠지만, 간절히 거부한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물어본다면, 그럼 그 물음표와 함께 온 배려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다.

놓지 말고 꼭 잡기

노현정

1년 만에 다시 자취를 시작했다. 자취를 시작한다는 것은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의 세계로 들어서는 문을 활짝 여는 일이었다. 오래 두고 쓰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당장 구하기 쉽고 저렴한 것에 자주 손이 갔다. 요즘은 또 왜 이렇게 양 많고 저렴한 생활용품 구하기가 쉬운 건지, 늘어가는 살림에 비례하여 늘어가는 것은 쓰레기였다.

나는 분리수거를 위해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닦고 씻고 말려서 버리고, 음료수병의 뚜껑을 분리하고 라벨 떼는 일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렇게 모아놓은 뚜껑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아예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생각을 흔드는 복병이 있었으니, 바로 물을 사 마시는 일이었다. 정수기가 있는 본가에서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문제였다. 요즘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플라스틱 생수병이 늘어갔다. 투명하고 라벨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생수병이기에 재활용률이 높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대를 하더라도 결국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게 문제였다.

지금까지 단점만 늘어놓은 차에 이런 말은 겸연쩍지만, 그래도 자취의 좋은 점은 이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가족들의 필요로 혹은 소비로 집에 쌓이는 물건이 없다. 나만, 내가 알아서 잘 사고 잘 버리면 많은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다 쓰고 난 후의 일을 고민하고 있다. 어느 정도 살림이 구색을 갖춘 지금은 뭘 사려고 해도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두세 번씩 고민한다. 구매하더라도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단일 소재로 된 물건을 고른다.

플라스틱 생수병은 '브리타 정수기'라는 여과 방식 정수기로 조금이나마 줄여볼까 한다. 물론 이것도 필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플라스틱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효과

가 있을 것 같으니까. 브리타 코리아에서 하루빨리 필터를 수거해주길 바랄 뿐이다.

자취생은 단연 쓰레기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놓을 수도 잡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집 안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모두 홀로 결정하는 사람. 눈을 감고 모르는 척 쉽게 버리면 당장 몸은 편할 것이다. 그 쓰레기들이 모이고 모여 내 몸보다 더 큰 지역을, 생태계를, 지구를 죽이는 것도 모르고, 혹은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또 그러면 안 되기에 꼭 잡아야 한다. 고민하는 만큼, 고민하고 행동하는 만큼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는다.

불편한 편리함 - 난 그저 토마토가 먹고 싶었을 뿐인데

독고예지

처음 직장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퇴근 후에 간단히 장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왕복 네 시간의 통근시간은 희미하게 남아 있던 체력마저 앗아갔고,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마트까지 들르는 건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여느 직장인들처럼 새벽 배송을 애용하게 되었다. 퇴근길에 주문만 해주면 아침 출근 전에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편리했다. 편리함을 맛본 후로는 생활용품부터 도시락, 과일 등 다양하게 주문하곤 했다. 취업을 하고 처음 보내는 여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자 어릴 때 자주 해먹던 설탕 뿌린 토마토가 생각났다.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를 띠며 행복한 마음으로 토마토를 주문하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문을 여는 순간 토마토가 들어 있다기엔 너무 큰 상자에 한번 당황했고, 주먹만 한 토마토에 비해 몇 배나 많은 비닐 충전재에 또 한번 놀랐다. 난 그저 토마토가 먹고 싶었을 뿐인데, 반감지 않은 사은품을 한 무더기 받은 느낌이었다.

그날 출근길에 많은 생각을 했다. 분명 편리한 서비스이고, 주문한 상품이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소비한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출근하는 길에 습관처럼 사이렌 오더로 커피를 주문해버리곤 또 아차 싶었다. 괜히 손가락을 원망하며 생각했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 쓰레기를 만든 것 같아서 내내 불편했으면서 또 쓰레기를 만드는 꼴이랑' 이런 내가 조금 우스웠다. 배달음식을 주문할 땐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를 꼭 체크하면서도 일상의 편리함은 놓기가 결코 쉽지 않다. 동네 단골 가게에 빈 통을 들고 가서 포장해 오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지만, 거리가 멀고 사람이 많은 카페나 식당에서 포장 용기를 들이미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직은 낯설어도 불편한 마음들이 커질수록 보이는 것은 많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는 깨끗하게 유통되는 물건들을 사야 마땅하다

고 생각해왔다. 그것 또한 가격에 포함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샌가 대형 마트의 깔끔한 포장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포장되어 고르게 정렬된 과일들을 보면 신선하고 싱그러움 느낌보다는 이질감이 먼저 들었다. 그 포장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모든 신선식품이 언제부터 포장되어 진열되었는지는 기억을 되새겨 봐도 알 수 없지만, 시장에서 할아버지가 사주신, 뜯을 포장도 없는 자두를 바로 옷에 닦아 베어 물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충전재가 과한 것 같아요' '과대 포장 아닌가요?' 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인지 예코백에 배달하고 수거해 가는 수고스러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배송기사들의 노고 덕분에 나의 불편한 마음도 조금이나마 줄어든 듯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불편한 마음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저 불편한 마음이 편리함을 이기지 못해 편리한 쪽을 선택할 뿐이다. 불편한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들겠지만, 그럴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여 불편함의 근원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머지않아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더욱 편안한 마음을 만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새로운 승자는 일회용 쓰레기

박예진

“내년쯤 코로나19가 괜찮아지면...”

언젠가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길을 가면서 스치는 사람들이, 또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 자신감 없는 말투로 끝을 흐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가슴 한편에 품고 있는 희망이 뉘엿뉘엿 보인다.

반면 올해는 코로나 0년 차라는 말도 있다. 코로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종식되더라도 2025년은 되어야 그나마 잡힐 거라는 비관적인 예측. 사실 나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믿는다.

코로나19로 삶의 많은 부분이 전례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뀌었다. 대기질이 좋아졌다는 것, 일상에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발견했다는 사람들, 복잡한 도시보다 자연 속에서 느긋한 시간을 갖는 문화 등 코로나19가 불러온 긍정적인 변화도 많다.

반면 ‘위생’과 ‘언택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승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누구나 그 심각성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지라며 사회적으로 합구되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2017년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지금껏 어딘가로 보내기만 하던 쓰레기가 눈앞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디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앞다투어 쓰레기 문제를 보도했다. ‘제로웨이스트’ ‘단순하게 살기’라는 키워드를 담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올라섰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휩쓸고 간 자리에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일회용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다회용 컵만 허용되던 매장에서도 일회용 컵이 슬며시 등장했고, 공중보건이라는 이름으로 선거 때는 일회용 장갑이 배포되었으며, 일회용품 쓰레기로 포장된 배달음식이 판을 친다. 그리고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회용 마스크가 하루에도 수없이 버려진다. BBC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 달 동안 버려지는 마스크의 양이 1290억 개라고 한다. 이런 쓰레기

문제는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타협된다.

사회에서 ‘위생’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시할수록 ‘쓰레기’나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는 침묵된다. 반면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쓰레기’에 대해 반성의 입장을 밝히는 작은 운동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배부될 ‘일회용 장갑의 양이 63빌딩 일곱 개 정도 분량의 높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개인용 면장갑 착용을 권장했고, 마스크줄에 두 다리가 고인 갈매기 사진이 보도되며, 천 마스크를 끼는 것이 어렵다면 일회용 마스크를 버릴 때 마스크줄은 끊어서 버려달라는 목소리도 소셜미디어에 여럿 게재되었다. 2020년 2월 이후 새로 생긴 불법 폐기물 코로나 쓰레기산 네 곳(1만 6620톤)에 대한 보도와 더불어 누군가는 며칠 동안 자신이 배출한 ‘코로나 쓰레기(배달음식의 포장 용기 포함)’를 모아 그 쓰레기 더미에 누워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코로나 시대, 위생과 쓰레기 문제가 공존해야 하는 시기. 새로운 형태의 환경보호 실천과 담론이 더욱 필요해지는 때가 아닐까? 위생과 공중보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실천과 최대한 환경에 피해를 덜 남기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동시에 가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 집 앞 분리배출

서회원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쓰레기’란 영어로 ‘domestic waste’라고 하며, 사전의 의미로는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사용되었으나 그 필요성을 잃어 사용치 않고 버리게 된 산업 폐기물 이외의 물질’이라고 한다.

쓰레기는 물질에 따라 정해진 배출 요일과 시간이 있는데, 이때 나오는 각 가정의 쓰레기를 보면 말 그대로 사람들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지하 1층에 사는 젊은 남자는 이번 주도 치킨을 자주 드셨는지 재활용 쓰레기를 담은 커다랗고 투명한 플라스틱 봉지에 4-5개의 치킨 박스와 그 안에 담긴 알루미늄 포일, 양념 소스가 혼재되어 있고,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김에 한 대 피우고 들어갔는지 불이 꺼진 담배꽂초도 담겨 있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재활용품 배출일이면 ‘생활’뿐만 아니라 ‘상식’이나 ‘배려’ 같은 인성 부분까지 버려진 쓰레기봉투가 특히나 두둑이 보인다. 그 쓸모와 필요성을 잃어 애정이 식어버린 ‘나의 물건’이 ‘쓰레기’로 전락해서 내다버린 경우라면 더더욱.

우리 집이 위치한 50미터 남짓의 골목에는 다세대주택이 열 채밖에 안 되지만, 일주일 만에 3일이나 되는 분리배출일 하루에만 노아의 방주를 방불케 하는 쓰레기봉투가 집집마다 쌓여 있다. 큰길로 나오자마자 보이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는 하루 마감 쓰레기만 해도 직원분이 겨우 들고 나올 정도로 버거워 보이는데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서울,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모인 이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는 걸까? 모두 이 지구에서 사라지기는 하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 묵묵히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고마운 환경미화원분들, 모두가 편리한 21세기를 누리는 동안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불편함을 습관화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는 개인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재활용/업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생명과 소중한 기회를 찾는 시민단체, 정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분들의 한걸음 한걸음이 있기에, 안전하고 청결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폐지와 플라스틱, 먹고 그대로 버린 음식물 등이 아비규환 상태로 울부짖는 혼합 쓰레기가 여전히 많은 배출일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린내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걸 느낀다.

내 발자국이 남겨질 곳은

선욱영

아침 7시, 집 앞에 우유 두 팩과 무항생제 달걀 두 판이 배송되어 있었다. 전날 밤 남편이 출근 전에 시리얼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집에 우유가 떨어져 부랴부랴 새벽 배송으로 주문했다. 주문하는 김에 오프라인보다 값이 싼 무항생제 달걀 두 판을 함께 주문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며 만족스럽게 시리얼로 아침을 해결했고, 아이는 일어나서 좋아하는 달걀 반찬을 배부르게 먹었다. 배송 물품을 정리한 후 현관 앞에 쌓인 커다란 종이 상자 한 개와 에어캡 포장, 아이스 팩 네 개를 쳐다보았다. 당장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욕구 충족과 편의 추구를 위해 내가 또 쓰레기 생산에 일조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 작은 한숨이 나왔다. 분리수거를 최대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쓰레기는 발생하고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은 얼마나 충실히 재활용될지 걱정이 앞선다.

예전에는 같은 내용물이면 예쁘게, 이왕이면 개별로 포장된 상품을 구매했다. 선물하기 좋고, 내가 쓰기도 하나씩 꺼내 쓰거나 먹기 편했으니까. 급하면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 되는 서비스를 거리낌 없이 이용했고, 택배 받는 기쁨으로 산다는 농담도 종종 했더랬다. 더 다양하고 싸게 살 수 있는 인터넷이 편했고, 나와 가족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물티슈와 소독 티슈를 결벽증 환자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찌되었든 분리수거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 분리수거는 자신 있었다.

그런데 수거된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돼서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정확히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포장재 자체가 재활용이 어려운 조합으로 된 경우가 많은 탓도 있다고 했다. 외관에 치중한 제품 선택 기준이 불러온 안타까운 쓰레기 폭탄. 나도 일조한 그 폭탄.

대략 다섯 해 전부터 내 한 몸이 지구에 신세 지는 동안 생산해내는 쓰레기에 대해 고민해오

고 있다. 매달 사용하던 일회용 생리대, 음식 정리와 보관을 위해 막 사용하고 버리던 비닐봉지, 목이 마를 때마다 쉽게 사서 마셨던 플라스틱 생수통, 커피를 사 마실 때마다 따라오던 플라스틱 일회용 컵과 빨대, 생선이나 고기 한 덩어리를 사려고 해도 반드시 따라오는 스티로폼 접시, 플라스틱 용기와 밀폐용 비닐 랩. 쉽게 사고 쉽게 버리던 싸고 가벼운 플라스틱 생활용품과 한철 입으려고 사서 진짜 한두 철 입고 처분하던 저렴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고민은 더 깊어졌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를 오래도록 겪으면서,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과 택배가 늘어나면서 아이에게 더욱 미안해졌다. 나를 포함한 아이의 전 세대가 편의와 위생과 안전을 핑계로 생산한 수많은 쓰레기가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고 아이들이 숨 쉴 공기마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해의 노력을 거쳐 나의 고민은 일부는 해결했고, 일부는 조금씩 변화를 주며 시도했고, 일부는 아직도 답을 찾고 있다. 외출할 때 텀블러와 장바구니, 손수건은 필수로 챙기고, 물건 구매 시 최소 포장으로 구매하며, 분리수거는 최대한 집요하게 한다. 아이와 놀 때도 되도록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한 만들기 놀이를 하고, 소비 전에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다시 확인한다. 물건은 가능한 한 미리 필요한 만큼만 사놓고 많이 사서 쌓아두지 않으며, 급하게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부득이하게 택배 주문을 할 때는 친환경 포장을 고민하는 업체를 고른다. 무엇보다도 물건을 사거나 소비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대부분의 총동적 소비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물용 물건의 포장을 신경 쓰고, 아직 냉장고(특히 냉동실)에는 비닐에 담긴 음식이 많으며, 집을 분기별로 정리할 때마다 철 지난, 그래서 중고로 팔거나 기증하거나 물려줄 물건이 가득하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버릴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내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내가 구입하고 소비하는 많은 물건이 내가 살아가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물건을 '왜' 사고 싶은 것인가)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 뒤에 남겨질 흔적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딱 한 발자국만큼만 더 불편하고 간소한.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한다면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답을 찾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나는 나의 발자국들이 버려진 플라스틱과 비닐 뭉치가 아닌 그저 자연스러운 흙 위에 당연하게 남겨지길 바란다.

쓰레기가 보인다

성지는

제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언니를 아이들과 함께 제주 바다에서 다시 만났다. 언니는 바닷속 바위틈 사이를 들여다보더니 손을 뻗어 “새우다!” 말한다. “엄마! 어디 어디? 나도 찾고 싶어!” “그럼 우리 새우를 누가 먼저 찾나 해볼까? 시작!” 바다에서 좀 놀 줄 아는 언니다.

친구들과 물장구만 치며 사진만 찍어대던 나는 바다를 바라만 보다가 아이의 튜브를 밀어주는 정도로만 놀았는데, 이렇듯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노는 방법을 배운다.

바다에서 놀 줄 아는 그 언니는 손이 참 바쁘다. 신나게 놀다가도 모래 사이에서 비닐 조각을 찾아 모은다. 물에 떠다니는 작은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모은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손은 바빠 움직인다. 바닷바람 사이에 날아가는 전단지를 붙잡아 또 모아둔다. 언니의 딸아도 “엄마 여기~”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주워 엄마에게 전해준다. 그럼 언니는 또 모은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주문을 외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생각만 났다. 나는 왜 쓰레기를 주울 생각을 못 했지. 내가 버린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제대로 버리면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듯 생각했다. 남이 버린 쓰레기는 ‘내가 버린 게 아니니까’ 생각하고 스쳤다. 사실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다.

바빠 움직이는 손과 함께 바다에서 신나게 쓰레기도 줍고 새우도 찾던 언니는 그런 모습을 머뭇거리며 보고만 있는 나에게 왜 쓰레기를 줍지 않느냐고 묻지 않는다. 쓰레기를 줍는 이유도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언니에겐 쓰레기를 줍는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니까.

언니가 쓰레기를 줍고 모으는 모습을 보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쓰레기를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줍는 언니의 모습이 자꾸 맴돌았다. 내가 쓰레기를 주운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때 ‘쓰레기 줍는 날’이라고 해서 반 친구들과 과 의무적으로 쓰레기를 주웠던 생각이 난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쓰레기를 주웠을까. 누

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억지로 쓰레기를 주워본 기억과 함께 지금까지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아름다운 제주에 살면서 이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줍고 모으는 언니처럼 그렇게 작은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에게도, 아이에게도, 아름다운 제주에도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가 억지로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느낀 마음들을 남편과 함께 나누었다. “이 아름다운 제주를 공짜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우리도 해볼까? 가까운 우리 동네라도. 어때?” 남편은 너무 좋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작은 실천을 하나 해보기로 했다. 우리가 자주 다니는 동네부터 쓰레기를 주워보기로 한 것이다. 쓰레기를 주우며 마트까지 가기로 했는데, 동네 한 바퀴에 쓰레기 가득. 해 질 녘 산책하는 이 길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제 길을 가다가도, 바다에서 놀다가도, 누구를 만나다가도 쓰레기가 보인다. 참 많다. 주워도 주워도 계속 있다.

제주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많은 사람이 쓰레기가 보이는 일상을 살기 바란다.

푸른 숲을 기다린다

소유진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중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이 아닐까? 또한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린 유일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무실에서 무심코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종이컵, 카페에서 한 번 마시고 버려지는 테이크아웃 잔이 아까워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마구 쓰이는 A4지가 아까워 따로 모아다 이면지로 썼으며, 플라스틱이 나 유리 용기를 재활용하여 물건을 담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고 했다.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몸에 밴 것은 환경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알뜰하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영향인 듯싶다. 좀 더 진지하게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건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다녀와서였다. 나의 행동이, 혹은 한 나라의 이기적인 행동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작은 실천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바디클렌저나 샴푸, 린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비누를 사용하면서 욕실에 플라스틱 용기가 사라졌다. 새로 바꾼 대나무 칫솔은 칫솔머리가 커서 잇몸 안쪽까지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양치하게 된다. 치약은 아직 일반 제품을 사용하지만 친환경 성분이 든 것으로 고른다.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물티슈나 행주 같은 물건을 거절한다. 많은 사람이 몰라서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편하다고 마구 사용하는 물티슈에도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과 방부제가 들어 있어서 분해되는 데 무려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세 번째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설거지용 수세미부터 천연 수세미를 사용한다. 필요한 크기로 잘라서 쓰면 되고 다 쓴 후에도 생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다.

행주도 소창 원단을 사용하는데 오래 쓴 행주는 걸레로 사용하면 된다.

네 번째는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닐 대신 비즈왁스랩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먼 가방 등을 활용한다.

다섯 번째는 미니멀리즘을 지향한다. 소비하기 전에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구입해야 하는 경우 지속가능성 여부를 중심에 두고 제품을 선택한다.

셔랍장 두 개를 딱딱 채운 옷가지도 하나둘 정리했다. 이제 사계절 옷이 다섯 칸짜리 셔랍 하나에 다 들어간다. 물론 겹옷은 빼고!

아직 줄여나가야 할 것도, 더 실천해야 할 부분도 많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쓰레기를 줄여나간다. 내가 오늘 하루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만들어냈는지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떤 쓰레기를 줄여나갈지 내 기준에서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실천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물음표를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주고 싶다. 나 하나의 작은 실천의 씨앗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면 푸른 숲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수, 쓰레기산을 만든다

송혜현

이사한 지 4개월 정도 지났다. 지난 4개월간의 소감을 말하자면 분리수거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다. 새로 이사한 곳은 1000세대가 모여 사는데도 분리수거장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1000세대의 쓰레기가 한곳으로 모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인 밤이나 새벽, 주말의 분리수거장은 말 그대로 '쓰레기산'이었다.

어느 날 공지게시판에 쓰레기산을 이룬 분리수거장 사진과 함께 올바른 분리수거를 당부하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문이 붙었다. 변화를 요구하는 공지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장은 변함없이 처참했고, 분리수거에 관한 공지는 몇 주에 걸쳐 여러 버전으로 게시되었다. 결국은 쓰레기 배출일을 지정해 분리수거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물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들이 원인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무엇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쓰레기의 양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했고, 나 또한 쓰레기산을 쌓아올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왜 쓰레기가 생겼고, 어떤 쓰레기를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갔는지, 그 답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물'이었다. 생수병 쓰레기산이 있다면 내 지분은 얼마일까. 지금까지 내가 배출한 생수 페트병을 쌓으면 열 평이 되지 않는 내 방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 같았다. 내가 만들어낸 이 쓰레기산은 아이러니하게도 생명 유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생명 유지를 위해 마신 물이 되레 환경을 해치고 더 나아가 나를 해친 꼴이라니, 왠지 기분이 이상했다.

물을 줄일 순 없으니 물이 담긴 페트병을 줄여야 했다. 정수기라는 대안도 있었으나 2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무주택자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선택지였다. 그러다 생각난 게 서울시 수도물인 아리수였다. 아리수가 가정에서 음용 가능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쉽

게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묘한 편견 때문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도물의 여정을 믿고 마시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다.

마셔도 괜찮다는 확인을 받아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검색하다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가정의 수질을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적합성을 확인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심지어 무료였다.

몇 달 전 일부 지역의 수도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뉴스 때문에 불안이 커진 건 사실이었다. 그래도 우선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그 후에 이어질 믿음이 불안보다 커지기를 바라니까.

쓰레기 민감성

안미향

[첫 기억]

그날, 조금 친해지고 싶은 친구와 함께 하교하고 있었다. 우리는 동네 문구점에서 산 불량식품을 함께 나눠 먹었다. 즐거웠다. 친구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멋진 친구가 생겼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친구는 맛있게 나눠 먹은 과자 포장지를 아무렇지 않게 길바닥에 버렸다. 이것이 쓰레기에 대한 최초의 기억이다. 그 후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 쓰레기가 생기면 내 가방과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다. 20대가 된 지금도 친구가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한다.

[쓰레기 민감성]

대기, 수질, 토양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있다. 그중에서도 나는 쓰레기에 가장 예민했다. 생각해 보면 시공간과 관계없이 쓰레기는 나의 동반자였다. 오늘도 우유를 마시고 팩을 버렸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문제이기에 쓰레기에 예민한 것 같다. 쓰레기 없는 생활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줄이거나 올바르게 처리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소할 때 물티슈보다 걸레를 사용하고, 스프링 노트는 철사와 종이를 분리하여 버리는 습관을 들었다.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구를 위한 최소한의 마음가짐이 '쓰레기 민감성'이다.

[점점 흐려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필리핀에 머물렀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생활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현지인들에게 물어봤다. 그중 하나가 "분리수거는 안 하세요?"였다. 작은 도시에서 고작 1년만 머물렀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나의 필리핀 생활 반경 안에서는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없었다. 비닐, 스티로폼, 종이, 플라스틱 등 온갖 종류의 쓰레기를 한곳에 버렸다.

필리핀에서 돌아와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직장에서는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비교도 못 할 만큼 많은 쓰레기가 나왔다. 분리수거가 어려운 쓰레기는 무조건 일반 쓰레기통으로 향했고, 점심시간마다 카페에서 주는 일회용 컵은 쌓여만 갔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니 나의 쓰레기 민감성도 함께 무뎠다. 필리핀과 회사에서 겪은 경험을 생각하면 내 일상의 습관들이 거대한 지구 앞에서 한없이 작아 보였다. '이 정도쯤이야'라는 마음이 생겼고, 예전보다 쓰레기 문제에 둔해졌다.

[첫걸음]

그래도 여전히 신경 쓰고 있으며 더 쓰고 싶다. 예전 습관들을 되찾는 것은 물론 텀블러, 손수건, 장바구니를 챙겨 다니고 비닐 포장 음식은 구매하지 않고 싶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처럼 큰 욕심 내지 말고 하나씩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자. 첫 번째로 다시 텀블러를 챙겨 다니자.

땡땡! 쓰레기가 배달됩니다

안지연

아파트 재활용품 버리는 일요일, 한숨이 훅 나와버렸다.
연휴 전부터 계속된 택배 행렬.
택배 상자와 배달음식 용기, 온갖 비닐봉지가 쌓여갔다.
스마트폰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내일 새벽 신선 채소가 도착한다.
그때는 몰랐다. 쓰레기도 함께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별일 없이 넘어갔을 일인데, 요즘 쓰레기 정리로 하루가 바쁘다 못해 정신없어
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내 행동에 책임을 느끼곤 한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찾아올 쓰레기 대란이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찾아왔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마스크와 비닐 방역복, 비닐장갑 또한 어쩔 수 없는 환경오염의 주범
이 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내 행동이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했는데,
우리 집 재활용품 더미를 보고 깨달아버렸다.
일각에선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쓰레기 대란이 온다는 얘기도 나온다는데,
우리 아파트가 시작된 걸까. 어느 순간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되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하루하루가 더욱 불편하고 불안한 결과를 향해 달리고 있는 듯하다.
편의와 안전 그 이상은 더 나은 세상이 아닌 불안하고 불편한 삶의 연속이었을까?
오늘도 쓰레기가 내 삶에 한가득 들어오고 있다.
내일도 땡땡! 쓰레기가 배달됩니다.

수고롭게 사는 마음

엄지혜

고3 때 담임선생님은 조금 특이한 분이셨다. 특이하다는 것은 아직 10대인 나의 눈에도 선생님이 조금 별나 보였다는 의미다. 생활한복만 입고 다니는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쳤는데 수업 내용과는 동떨어진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나는 그게 좋았다. 하루는 옆 반 담임인 법과 사회 선생님이 수업 중에 선생님들끼리 등산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선생님은 우리 담임선생님이 일회용 수저를 안 쓰기 위해 선생님들이 쓸 수저를 모두 챙겨 오셨다며 칭찬했다. 그때 나는 담임선생님의 '수고로움'에 대해 생각했다. '일회용품을 쓰면 편한데, 그 많은 사람의 수저를 챙겨 가셨다고? 역시 별난 선생님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8년이 지난 지금, 그때 느꼈던 선생님의 '수고로움'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때 선생님은 무슨 마음으로 사람들의 젓가락과 숟가락을 챙겨 가셨던 걸까. 다시 생각해보면 어떤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일지도 모르겠다. 조금 수고로울지라도 지구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선한 의지였을 것이다.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린 것은, 요즘 회사에 도시락을 챙겨 가고 텀블러와 옥수수 빨대를 쓴다고 하자 친구가 "너 그때 그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있구나"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환경 이슈가 꽤 심각하게 이야기되지만, 직장에서 나는 어느새 별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행히 나의 행동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은 없지만, 고3 시절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직장 동료들은 나를 수고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은 뒤로 이러한 실천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쯤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친구와 망원동의 제로웨이스트 소품샵 '알맹상점'에 다녀왔다. 알맹상점은 이름 그대로 알맹이만 파는 상점이다. 커피콩, 찻잎, 올리브 오일 같은 식재료나 샴푸, 로션 같은 액체 생

필품을 파는데, 대용량 리필 스테이션이 있고 용기를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만 담아 오는 식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상품이 많은데, 지구에 더 이롭게 쓰이기 위한 공리 끝에 만들어졌을 상품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나는 천연 수세미와 나무 칫솔, 샴푸바를 샀다. 모두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제품이다. 아쉬운 점은 경기도에 사는 내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제품을 사기 위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우리의 일상에 더 많은 선택권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고 텀블러와 도시락을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면 사지 않기'다. 텀블러가 이미 있다면 시즌별로 나오는 새로운 텀블러는 사지 않아도 된다. 에코백이 이미 있는데 새로운 디자인의 에코백을 '에코'라는 이름에 위안받으며 살 이유는 없다. 예전에는 스타벅스의 시즌별 카드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쁜 카드가 나와도 사지 않는다. 카드를 산다고 해서 더 생기는 이득도 없거니와 카드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꼭 필요하다면 최대한 환경에 이로운 방향으로 소비하고, 그에 앞서 꼭 필요한 소비인지 신중히 판단하자. 지구에 너무나 많은 빛을 지고 살아왔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수고롭게 살아보려고 한다.

일상을 되돌아보다

유혜선

매일 지속 가능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과 신념은 환경에 지극히 무관심하고 무지하던 나를 바꿔놓았다. 다양한 책과 다큐멘터리, 영상들을 찾아보며 환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내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찾고자 천천히 내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나의 하루는 그랬다. 반은 카페, 반은 집. 어떤 날은 직원이자 손님으로 온종일 카페에서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나에게 카페와 집, 두 공간에서의 지속 가능한 변화가 절실했다.

카페 직원으로서의 나는, 음료를 직접 제조하는 공간에 있다 보니 손을 자주 씻는데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일회용 화장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을 체감한 후 개인용 손수건을 사용하는 중이다. 매장에서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땐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카페 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어쩌면 당신도 이미 실천하고 있을지 모른다. 흑여 스콘이나 쿠키를 챙겨 갈 땐 포장을 최소화하거나 다회용 용기를 사용한다. 점심은 보통 식당에서 먹지만, 가끔 매장을 비울 수 없어 배달음식을 먹는 날은 일회용 수저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조만간 수저통을 마련하여 들고 다닐 예정이다. 가장 크게 노력하는 부분은 '실수를 최소화하자'이다. 손님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여 그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다. 나의 실수로 인해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일하려고 한다. 간혹 안타깝게도 마음과 달리 몸이 제멋대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땐 그저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

카페 손님으로서의 나는, '그들'을 통해 많이 보고 배웠다. 하지만 막상 내가 손님의 입장이 되어보니 쉽게만 보였던 개인용 텀블러 사용하기, 빨대 사용하지 않기 같은 행동들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한곳에 머무르는 직장의 경우는 수월할 수 있으나 어디 놀러 가거나 잠깐 외출하는 경우는 조금 번거로웠다. 소지품이 적어 작은 가방을 사용하면 텀블러가 가방보다 큰 탓에 텀블러를 소지하기 어려웠고, 매장에 비치된 다회용 컵을 사용하니 자연스럽게 일회용 빨대도 사용

하게 되었다. 이래저래 일회용 컵이든 일회용 빨대든 둘 중 하나를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내가 선택한 해결책은 스테인리스 스틸 빨대였다. 백팩을 가지고 가는 날은 텀블러를 챙겼고, 작은 가방을 메는 날은 스테인리스 스틸 빨대만 챙겨 가서 매장의 다회용 컵과 함께 사용했다.

나라는 존재는, 매일 씻는 공간에 변화가 줄 필요가 있었다. 기존에 쓰던 욕실용품부터 싹 바뀌었다. 샴푸바, 린스바, 세안용 비누, 바디용 비누. 칫솔은 현재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기존에 쓰던 칫솔을 끝까지 사용한 다음 대나무 칫솔로 바꿀 예정이다. 음식은 남기지 않고 먹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육식을 피한다. 과거엔 일주일에 5일 이상 육류를 섭취했다면 현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다. 전단지는 받지 않는다. 대개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중고등학생이거나 중년 이상이 많아 빨리 일을 끝내고 쉬셨으면 하는 마음에 매번 자세히 보지도 않는 전단지들을 받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전단지의 대부분은 코팅 종이라 재활용이 어려워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직접 나눠주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전단지를 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설거지용 비누, 면 생리대 등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변화에 도전하고자 한다. 잔잔하게, 꾸준하게!

이제부터라도 모두 용기 내!

올림

우리는 쓰레기와 환경이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을 하다못해 어린 시절 모두의 경험에 있을 환경 글쓰기, 환경 미술 대회를 통해 배워왔다. 그런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해온 노력은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교육에 비해 너무나 미미했다. 20대 중반 환경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진보 성향의 에코프렌들리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어느 날 돌고래 코에 꽂힌 플라스틱 빨대를 보기 전까지는 부끄럽지만 전혀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도 남자친구를 만난 후에는 테이크아웃 컵보다는 매장 컵을 사용하고 장볼 때는 에코백을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을 하면서 지내왔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졌고, 여름에도 초가을 같은 선선한 날씨, 장마와 태풍이 연이어 이어졌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환경 파괴. 그래서 올해는 남자친구를 따라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자연친화적으로 바꿔보기로 했다. 먼저 자주 바꾸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분해 소재로 바꿨다. 자주 바꾸는 만큼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pelacase'에서 생분해되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구입해 남자친구와 나눠 가졌다. 그리고 바디워시 대신 비누를 사용하기로 했다. 왠지 소싯적 쓰던 파란 빨랫비누가 생각날 것 같지만, 바디워시 슉은 정말 다양하고, 심지어 피부 건강에도 좋다. 왠지 거품이 잘 안 날 것 같다고? 무슨 소리. 비누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적어도 내가 쓰는 오스트레일리아 보태니컬 산양유 비누는 거품이 풍성하고 만질만질한 피부로 가꿔준다.

이 바디솨은 '알맹상점(@almangmarket)'에서 발견했다. 망원동을 구경하다 들른 곳에서 그야말로 최애 바디솨을 만난 것이다. 이곳에서 비누를 구매하면 신문지에 비누를 돌돌 말아서 포장해준다. 알맹상점은 불필요한 포장 없이 알맹이만 팔기 위해 만든 제로웨이스트 샵(zerowaste shop)이기 때문이다. 아직 많은 물건을 사보진 않았지만, 가져온 용기에 알맹이만

담아갈 수 있어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에는 제격이다. 바디솨은 기존의 폼폼형 바디워시와 달리 거품이 날 때까지 샤워볼에 비누를 묻혀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 매우 보람차다. 게다가 바디워시가 바닥을 드러낼 때 애써 폼폼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앞으로 샴푸, 린스가 다 떨어지면 이 또한 비누로 바꿔나갈 생각이다.

계속 마음에 걸리는 문제도 있다. 생수를 사 먹으며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다. 평상시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 매주 생수 플라스틱병이 재활용 바구니에 그득그득 쌓인다. 부피는 또 얼마나 큰지 죄책감은 배가되고 버리는 것도 고단하다. 이번 지구백일장에 참가하며 미뤄왔던 브리타 정수기 구매 버튼을 눌렀다. 브리타 정수기는 독일 정수기로 필터만 체매 갈아 끼우면 계속 사용하는 대견한 녀석이다. 이 밖에도 내가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실천은 '용기 내' 캠페인이다. 그린피스에서 시작한 '용기 내' 캠페인은 류준열이 동참하면서 인지도가 더 상승했다. 알맹상점처럼 용기를 가지고 가서 알맹이만 담아 오는 그야말로 '용기를 내면 되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다. 일례로 정육점에 용기를 들고 가서 원하는 걸 담아 가면 된다. 앞으로 내 삶에서 용기를 내릴 순간이 더 많아지도록 더욱 용기를 내야겠다. '이제부터라도 모두 용기 내!'

그때 그 삶에서 배운 미래

이정요

“할머니, 우리 여행 갈까?” 해가 넘어가면 아흔이 되는 할머니는 걷는 게 자신이 없다며 두어 번 거절하다, 끈질기게 졸라대는 손녀의 청에 “그려, 어디 한번 가봐” 하셨다. 할머니가 집에만 계시느라 조금 침울해진 것 같다는 엄마 말에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인 거다. 할머니랑 둘이 하는 여행은 처음이다. 할머니 무릎이 무사하길, 우리가 함께 기억할 추억이 부디 아름답길.

내가 택한 여행지는 강원도 정선이다. 정선 오일장에 가 보고 싶다 노래한 건 엄마인데, 엄마 미안. 장터에서 무얼 사게 되려나? 일단 장바구니부터 챙기고, 먹을거리가 넘쳐날 테니 남은 음식 담을 통도 챙겨야겠다. 짐이 좀 늘긴 했지만, 물건을 담은 비닐과 음식이 담긴 플라스틱을 받아 오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었다. 세수부터 샤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비누와 얼굴과 몸에 대충 바를 수 있는 로션도 하나만. 짐을 최대한 줄여서 싣다고 썼는데, 싣고 보니 짐가방이 네 개나 됐다. 많소사.

할머니 짐과 할머니를 챙기러 들어온 나에게 할머니는 종이 가방 하나를 쓱 건네주었다. “으잉? 할머니 이게 다야?” 할머니 어깨에 둘러진 자그마한 가방과 외투가 담긴 종이 가방이라고 했다. 할머니 가방에는 잘 때 입을 옷과 칫솔, 치약, 마른 휴지, 물티슈가 들었고, 종이 가방에는 외투와 우산이 있었다. 날이 따뜻하고 좋아 외투와 우산은 꺼내지도 않았으니, 할머니 짐은 내 손바닥 크기쯤 되는 그 가방 하나가 전부인 셈이다. 나는 아직 멀었다.

돈을 내면 쓰레기가 온다. 배달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 내가 내린 결론이다. 떡볶이를 사면 비닐봉지가 오고, 샴푸를 사면 플라스틱이 집으로 온다. 알맹이만 받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택배 상자에 알맹이만 달랑 넣어 보내면 소비자는 위생적이지 않고 성의가 없다며 바로 환불을 요구할 테니까. 그러니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도무지 현실적이지도 않은 이 방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할머니와의 여행에서 답

을 찾았다.

할머니는 잠옷을 비닐에 담아 왔다. 단정하게 담긴 잠옷은 침대에 올려지고 비닐은 다시 단정하게 접혀 가방으로 들어갔다. 칫솔과 치약이 담긴 비닐도 아무렇게나 막 돌돌 말지 않고 칫솔 크기에 맞게 접어 비닐이라기보단 칫솔 담는 주머니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는 바람이 싫다며 수건 한 장으로 감은 머리를 꼼꼼히 말리셨고, 숙소에서 나올 때는 자고 난 자리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휴지통에 넣고 손으로 쓸어 이불을 편 다음 문을 나섰다. 본인 몸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아무렇게나 두지 않고,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할머니의 태도는 환경에 이로운 물품만 이용하겠다며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사들이기 바쁜 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

할머니의 시골살이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다. 모든 걸 직접 만들어 먹고 입어야 했던 그 시절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할머니는 길러보지 않은 채소가 없고 못 만드는 게 없는 재주꾼만 같다. 나도 내가 입고 쓸 물건을 모두 내 손으로 만들고 싶어 재봉틀을 구해 왔다. 아직은 수건, 행주, 샤워 타올 정도만 만드는 실력이지만 나중에는 한복을 지어 입으리라는 거창한 꿈을 품고 있다. 목을 동글려 만든 한복이 예쁘다는 할머니께 한복 한 벌 지어드릴 날이 오기를, 할머니가 그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쉬엄쉬엄 걷는다고 했는데도 그날 할머니와 나는 7000보를 걸었다. 나는 할머니 무릎이 걱정됐는데, 할머니는 내가 집에 잘 돌아갔는지를 전화로 물어오셨다. “할머니, 밖에 나가면 할머니 동안이라고 그러지 않아?” “그게 뭐 소리여?” “할머니를 제 나이로 보냐고, 사람들이.” “아니 이, 한 뭐 칠십 좀 됐나 허지.” “역시 우리 할머니 동안이네. 할머니, 우리 다음에는 어디 갈까?” “어유, 이제는 못 가지, 못 가.” “할머니, 잘 자.”

100원과 100년

이지영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항상 소비한다. 매 시즌 나오는 예쁜 신상을 지나칠 수 없어 옷을 사고, 맛집이 새로 생기면 맛있는 밥을 먹고, 식사가 끝나면 카페에서 여유롭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신다.

하지만 이런 소비에는 항상 불청객인 쓰레기가 따라온다. 대부분의 불청객은 플라스틱이며, 대략 한 시간, 짧으면 5분의 시간을 위해 우리는 쓰레기를 만든다. 인터넷 쇼핑을 하면 물건을 담은 종이 박스, 옷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비닐이 달려온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한 시간을 위해 플라스틱 컵, 빨대 그리고 컵홀더를 사용한다. 빵을 사 먹기 위해 개별 포장용 비닐봉지 다섯 장을 한 번에 소비하고, 빵을 담은 큰 비닐봉지까지 구매하여 집까지 들고 오는 시간 10분을 위해 일회용품들을 만든다.

무심결에 소비를 하다가 혼자 살게 된 순간 금방 쓰레기통을 비웠는데도 이내 가득 차는 쓰레기통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먼저 이 불청객을 없애기 위해 불청객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녀석인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쓰레기의 양을 적어 나의 일상생활 중 어느 부분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측정하기 시작했다. 의식주 중에서 식에 관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용기였다. 아무래도 배달음식이 늘어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나왔으며, 플라스틱 용기를 담기 위한 소포장 비닐봉지, 소스 등 자잘한 비닐을 많이 소비했다. 포장재질도 작성했는데 봉투, 용기 상관 없이 대부분의 플라스틱 포장재질은 폴리에틸렌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재질은 종이였다. 치킨 배달용 종이 용기나 우유팩은 얇은 코팅이 되어 있어 음식물이 새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와 비슷하게 음료캔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조사 과정 중 알게 된 모든 제품에 재활용 가능 마크가 붙어 있었다. 즉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만 이런 제품이 모두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직도 많은 제품이 소각되어 대기 오염, 토지 오염, 수질 오염 등 지구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데, 정말 이 모든 쓰레기가 재활용된다면 왜 쓰레기가 계속해서 문제 되는 걸까? 옛날에 본 다큐에 의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씻지 않고 버려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데도 많은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각 회사마다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재질이 달라 재활용을 하려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쓰레기는 매입한다고 했다. 재활용하기 위해 쓰레기를 수입, 소비한다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의 10분을 위해 내는 환경부담금 100원이 사실은 10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

입정은

떡볶이를 좋아한다. 평상시였다면 밖에서도 자주 사 먹었을 테지만 요즘은 그럴 수 없기에 종종 배달시켜서 먹곤 했다. 소파에 누워 앱으로 재빠르게 결제한 뒤 기다렸던 떡볶이가 도착하면 맛있게 첫 입을 베어문다. 기분이 참 좋다. 문제는 다 먹고 나서다. 식탁엔 소스가 너저분하게 묻은 플라스틱 용기가 굴러다니고 두 손엔 플라스틱 수저와 포크가 들려 있다. 비닐은 아무리 뜯어봐도 용기에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기름 자국은 물로 여러 번 19 행귀도 사라지지 않는다. 편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내 손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말았다. 기분이 짹짹했다. 그 후로는 배달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 대신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택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자 오프라인 매장보단 온라인 쇼핑 물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상자엔 비닐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도톰한 비닐 뽁뽁이 포장 한참 뜯어내야 물건이 나온다. 이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친환경 포장으로 전환하는 업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독립 출판물 페어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책 세 권을 주문했더니 종이 테이프가 붙은 상자와 별집 모양 포장지로 포장된 책이 도착했다. 비닐을 사용하지 않아도 물건은 충분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요즘은 에코백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그토록 좋아하던 카페를 마음 편히 가지 못하자 큰맘 먹고 가정용 커피머신을 구매했다. 커피 원두나 우유를 사러 나갈 땐 에코백을 가볍게 챙긴다. 평상시에도 자주 사용해온 터라 어색하지 않다. 작지만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지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병들었다.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고 미세먼지는 완화되었지만 플라스틱 쓰레기는 산처럼 쌓여만 갔다. 올여름은 푸른 하늘은 온데간데없이 구름 낀 하늘에 비만 하염없이 쏟아졌다. 이대로라면 나중에는 평생 실내에서 살지도 모른다. 소중한 일상을 잃고 싶지 않다. 인간은 너무 많은 걸 망가뜨렸다. 당연하게 누려온 일상이 이제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장철완

친환경 제품 키트를 선물 받은 적이 있다. 대략 구성품을 설명하자면 대나무 칫솔, 친환경 주방 세제, 씨앗 카드, 손 소독제였다. 이 중 가장 실용성 있는 제품은 친환경 주방 세제였다. 일반 세제에 비해 기름기가 잘 닦이지 않을 거란 선입견이 있었지만 의외로 기존 세제와 비슷한 세정력을 보여주었다. 물론 거품을 내는 데 평상시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일단 거품만 내면 설거지는 문제없었다.

가장 실망한 건 대나무 칫솔이었다. 플라스틱이 아닌 나무로 만들었다는 부분은 쓰레기 배출 측면에서 대나무 칫솔의 탁월한 장점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한다. 바로 습기다. 대부분이 습식 화장실인 한국에서 칫솔은 항상 습기가 있는 상태다. 대나무 칫솔을 오래 사용하려면 양치 후 습기를 제거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을 경우 칫솔에 곰팡이 손 모습을 보기 쉽다. 화장실에 따라 곰팡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양치할 때 대나무 맛이 나는 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넘어가겠다.

칫솔에 곰팡이 손 경험을 한 이상 대나무 칫솔을 친구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 힘든 일이다. 훌륭한 메시지를 담은 제품이라도 실용성과 편리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만다. 전기차를 생각해보자. 전기차가 환경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전기차가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건 가격과 충전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친환경과 편의성은 양립될 수 없는 가치인가? 슬프지만 맞다. 편리하면서 환경까지 위할 수 있는 제품은 드물다.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개인 빨대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대나무 칫솔을 곰팡이 없이 사용하려면 양치 후 창가에 두고 일광 건조를 해야 한다. 순간의 편리함을 버리고 영원한 번거로움을 선택하는 바보들이 늘어야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이에 관한 재밌는 설문 조사 결과가 있다. 한국피앤지와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민 4000명 중 82.2퍼센트가 구매 의향이 있으며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쉬운 점은 생각에서 실천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82.2퍼센트의 응답자 중 실제로 지난 3개월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25.5퍼센트에 불과했다.

설문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건 분명하다.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충분하다.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소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란 사실을 안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소비의 구체적 실행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협동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 소비자에게 제공해 친환경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이에 맞춰 편리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끝으로 소비자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꾸준히 구매해 수요를 늘려야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곰팡이 슬지 않는 대나무 칫솔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쓰레기 없이 사는 일

정다정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 풍력발전소의 날개를 땅에 묻는 영상을 보았다.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매립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날개까지도 땅에 묻는다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다. 곳곳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당연히 재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였다.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캔으로 나눈 후 분류함에 차곡차곡 버릴 때면 모범시민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그런 나의 뿌듯함과 다르게 재활용률은 20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충격이었다.

그 후 쓰레기 버리는 일이 불편해졌다. 분리수거를 잘해도 대부분 매립, 소각, 바다 쓰레기가 되어 눈에 안 보일 뿐 곧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쓰레기는 늘 생겼다. 지구와 사람을 위해 친환경 재배를 한다고 여긴 생협의 먹거리는 대부분 포장되어 있었다. 대안으로 지역 시장을 찾아 먹거리를 구매했지만, 쓰레기는 없어도 색깔이 선명하고 상처 없이 튼실한 작물에 농약, 비료를 아낌없이 뿌려 땅을 해쳤을 거라는 사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멈추지 않고 대안을 찾아 일회용 포장재도 없고 지구를 해치지 않는 먹거리를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했다. 그러나 1-2인 가구가 먹기에는 너무 많아 상하기 일쑤였다. 대안이 대안이 되지 않았다. 알면 알수록 불편해지는 마음 사이에서 개인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고민의 답이 될 '없이사장'을 열었다. 고민한 것들을 하나씩 없애보기로 했다. 포장재 없는 친환경 농산물은 마르쉐를 시작으로 곳곳에 생긴 농부시장,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등이 생겨나면서 찾는 일이 쉬웠다. 쉽게 끝나나 싶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고자 지역 간 이동 자제가 요청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안에서의 생활과 소비를 우선시했고, 54일간 끊이지 않은 장마에 지구온난화 문제를 몸소 느꼈고 '탄소 배출' 문제를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쓰레기에 대한 고민은 쓰레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되어 나온 고민을 다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

요해졌다.

그렇게 '없이사장'에서는 모든 고민을 담아 지역에서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부님들의 생산품을 판매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없는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밀랍 랍과 안 입는 셔츠와 천을 업사이클링하여 만든 보자기, 자투리 천으로 만든 스קר런치와 단추 모음, 자투리 비누, 황마 수세미 등을 판매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쓰레기봉투 대신 퇴비함을 두어 행사장에서 나온 먼지와 종이 일부, 간식으로 먹고 남은 사과 씨앗과 부스러기를 담았다. 쓰레기를 시작으로 고민한 것들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없이사장'에서는 (작은 계량기로 무게를 잴 수 없었던) 박스 두 개와 종이 71그램, 캔 15그램, 스티로폼 20그램, 일반 쓰레기 226그램이 나왔다. 없이라는 말처럼 쓰레기를 0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고민을 한다면 대안의 대안이 되어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쓰레기는 늘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생각보다 쉬울지 모르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의 '없이사장'을 만들려고 한다. 쓰레기가 0이 되는 날을 위해, 고민한 것들을 더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말이다.

물티슈는 휴지일까? - 쓰레기 문제의 핵심

정현주

TV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23개월 된 아이가 나왔다. 의사 표현이 명확해진 아이는 짜장면을 먹다 옷에 흘리자 부모에게 물티슈로 닦아달라고 말했다.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물티슈와 함께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 물티슈가 우리의 생필품이 되었을까?

내 기억엔 2010년대 초 육아 템으로 관심을 받던 물티슈가 몇 년 후 전 국민의 필수 템이 되었다. 짧은 기간에 온오프라인 매장을 점령했고, 휴지를 뛰어넘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집집마다 물티슈가 있고 내 가방에도 휴지와 물티슈가 자리한다. 물티슈는 휴지 외에도 많은 물건을 대신한다. 걸레, 행주 등 청소용품부터 급할 때는 비누, 클렌징폼 대신 세정용품이 되기도 한다. 요즘은 번기에 넣어도 되는 비데용 물티슈나 살균 기능이 있는 소독용 물티슈 등 점점 더 다양해진다. 그런데 물티슈를 휴지처럼 써도 될까?

물티슈는 휴지와 다르다. 휴지는 재생 펄프로 만든 종이의 일종이지만 물티슈는 합성섬유로 만든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물티슈는 플라스틱이지만 이를 아무도 모른 채 사용하고 쉽게 버린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물티슈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을까? 어쩌면 플라스틱 빨대나 컵을 아낀 것 이상으로 많은 플라스틱을 물티슈로 배출하는지도 모른다. 분리수거장에 가보지도 못하는 일반 쓰레기를 말이다.

그런데 이토록 해로운 플라스틱을 왜 만들었을까? 최초의 플라스틱은 코끼리 상아를 대체할 당구공 재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일회용의 대명사 비닐봉지는 종이 봉투를 위해 벌목되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들은 가볍고 원하는 모양을 내기 쉬우며 튼튼했다. 그런데 이 장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너무 튼튼해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가벼우니까 바람이나 물에 휩쓸려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다. 플라스틱의 수명은 500년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발명된 지 150년 정도 되었다. 지구상에 태어난 플라스틱이 아직 하나도 분해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귀가 따갑게 듣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해결 방법을 모른다.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 플라스틱부터 플라스틱을 소화하는 곤충 등. 하지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또한 검증해야 할 요소가 많다.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태도다. 어느 누구도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가의 손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상품을 대체하며 우리 삶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시작은 '일회용품 줄이기'여야 한다. 어떤 물건이든 한 번 쓰고 버리는 습관을 바꾸자.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빌려 '유한한 지구에 무한한 편리함은 없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자의로 선택했든, 타의로 익숙해졌든 지금은 멈춰야 할 때다. 우리의 편의가 무엇을 담보로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내게 쉬운 것부터 바꿨다. 물티슈 대신 건티슈에 물을 묻혀 사용하고, 주방에서는 행주를, 청소할 때는 걸레를 사용한다. 커피를 마실 때도 드립백¹⁾은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귀찮아도 원두를 갈아 마시거나 카페에서 텀블러에 포장해 온다. 너무 작은 노력일지 모르지만 매일 실천하며 경계하면 머지않아 더 큰 것도 바꿀 수 있으리라 믿는다. 환경이 파괴되어 조금 일찍 죽는 것이 뭐 대수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통스럽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돌이킬 수 없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보자.

1) 일회용 드립 필터에 분쇄한 원두를 소분한 것으로, 그라인더나 드리퍼가 없어도 핸드드립을 즐길 수 있으나, 필터가 합성섬유여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좋은 방향으로

차지양

일상에서 쓰레기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 항상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제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부터도 나름대로 신경 쓰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모이는 쓰레기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우리 동네 분리수거 배출일은 월요일인데, 이 시점이 되면 두 가지 충격을 받는다. 우리 집에서 나온 쓰레기 양과 다음 날 오전에 곳곳에서 내놓은 산처럼 쌓인 쓰레기다. 특히 휴일이 낀 날이나 명절이 지난 후 스티로폼과 박스 등 각종 포장재가 평상시의 배로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답이 없다고 느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상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요소 중 최근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 테이크아웃 시 몇 퍼센트 할인, 포장 시 얼마 할인. 생각보다 많은 식당과 카페에 걸쳐 있는 그 문구를 보면 의구심이 솟구치고 갈등이 시작된다. '왜? 유지비 지출 줄이려고? 포장재에 들어가는 비용이 차라리 더 저렴해서? 자분이 중요하지만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게 맞는 걸까?'

극자본주의의 폐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돈만 된다면, 수익만 늘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심이다. 1회용 포장재 말고 차라리 개인 텀블러나 용기를 가져오는 경우 할인해준다면 포장재 줄이고 유지비 줄이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하다며 외면할 고객들이 두려운 것일까?

물론 자신만의 신념과 규칙을 가지고 노력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다. 또한 전보다 많은 사람이 그 이유를 '환경'으로 제시하면 훨씬 높은 이해심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무분별한 쓰레기의 긍정적인 대안이라면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생분해'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나도 생분해 제품이라고 하면 괜히 더 안심이 되고 덜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생분

해'라는 라벨을 하나의 안식처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결국은 쓰레기이며, 어찌되었든 그것들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은 저마다 달라 만능 대안으로 볼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단 하나의 핵심 대책은 쓰레기를 배출할 여지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해도 막상 불편한 게 싫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변화를 이끌어나가기에는 한참 부족하게 느껴진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의 심각성이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누군들 생각을 안 해봤을까? 누군들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막상 붙잡고 이야기해보면 다들 나름의 생각과 노력이 있었다. 다만 생각할수록 끊임없이 연결되는 딜레마의 고리에 빠져 좌절감과 높은 피로감을 느낀 나머지 결국 생각을 멈춘 채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로 포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를 부여한다 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개인의 작은 노력만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개인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최근 환경운동권 쪽에서 대기업에 상품 포장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고 아주 천천히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하다못해 아파트 공지에서도 환경에 대한 언급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올바른 목소리들의 힘을 타고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소망한다.

큰 결심이 필요한 작은 노력과 변화

최지희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둔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최근 독립하며 분리수거 방법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재활용품 버리기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아직까지 제대로 버리는 건지도 모르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 틀린 방법으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로웨이스트를 알고 실천하기 전에는 알지만 귀찮아서 그냥 버린 것들도 있었습니다. 환경 소비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고 제로웨이스트를 작게나마 실천하겠다고 하고도 아직 제대로 된 실천은 멀었고 최소한 양심에 찔리지 않는 정도로만 살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와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생기면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는 빨대를 사용하는 경우 버리지 않고 씻어서 다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퍼백이나 일회용 봉투 또한 씻어서 재사용하고 찢어지거나 못 쓰게 되지 않는 이상 잘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도 수돗물로 보리차를 끓여서 마시는 등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켜보니 나는 재생분해 지퍼백이라고 하며 1회만 쓰고 버리거나 빨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게다가 물을 마시고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서 아직도 500ml 페트병에 담긴 물만 마십니다. 그래서 더욱 시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한 번 사용한 지퍼백을 닦아서 말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로 식기건조대에 걸어둔 지퍼백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안에 고구마 하나를 넣고 삶았습니다. 사용 후 저는 죽지도 않았고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물을 버리고 행군 뒤 또 고구마를 삶거나 도시락을 싸 갈 때 밥그릇을 넣거나 하며 몇 번이고 재사용했습니다. 그 지퍼백은 지워지지 않은 빨간색으로 오염이 된 후에야 버려졌고, 그동안 변한 것은 작은 귀찮음이 생긴 것과 지퍼백 사용량이 줄어서 잘 구매하지 않은 품목이 된 정도입니다. 결심에 비해 너무 작은 노력과 변화였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일회용품을 두 번 쓰면 죽는 것도 아닌데 난리 치

던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최근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되어 페트병은 뚜껑과 뚜껑 띠까지 제거해야 재활용이 되고, 프린팅된 일회용 컵도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런 변수들이 하나씩 나타나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세제나 화장품 용기 같은 펌프 형식의 뚜껑이나 칫솔 같은 복합적인 제품도 재활용이 어려워 칫솔은 막대와 머리를 분리해야 하고 펌프 뚜껑은 그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재활용품이 활용되지 의문입니다. 실제로도 유럽의 재활용률이 40퍼센트라면 한국은 22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의 규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규제이기에 조금 더 노력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팸 뚜껑은 제품을 보호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소비자들이 뚜껑을 반납했다는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선물 세트는 뚜껑이 없는 스팸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정책을 바꾼다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스팸 뚜껑 반납처럼 소비자의 힘으로 기업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큰 결심에 비해 아직은 작고 소소한 변화들처럼 보일 테고, 실제로 본인에게도 작고 소소한 변화일 것입니다. 저 또한 모든 걸 한번에 변화시키면 그 부담감 때문에 지속하기 어려울 거 같아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 봉투가 아닌 종이 봉투나 박스를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모으고 배출하며 비닐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딱히 큰 변화들도 아니고 잠시의 귀찮음이지만 시작하기까지는 큰 결심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러한 결심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표승희

패스트 패션 리테일 회사에서 근무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에 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 타의적인 회사의 지침이었다. 입사 교육 때부터 퇴사하는 그 순간까지 회사의 사업가치관을 달달 외우며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정신을 무장해왔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도록 순환하는 제품 사이클을 그리는 회사의 비전을 보았다. 하지만 정작 지구는 옷 쓰레기 더미로 고통받는다라는 사실을 사장님은 진정 모르고 있었을까?

In a Sustainable Way. 모든 사업의 목표 끝에 붙는 기세등등한 캐치프레이즈 같은 이 문구는 전 세계에서 이 회사의 의류를 구매하고 착용하는 고객들에게 쓰레기 부담을 덜어주고 당신은 환경을 망치고 있지 않으니 얼마든지 이 회사의 옷을 구매하라 종용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생산 현장을 지켜보는 생산자들(잠재적 고객이 라고 할 수도 있겠다)은 모두 알고 있다.

의류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는 엄청나다. 굳이 원자재 공장이나 농장까지 흘러들어가지 않더라도 원단을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쓰레기, 봉제 후 남아서 버려지는 실(현장에서 '봉사'라고 부른다), 각종 라벨 자투리(무슨 라벨의 종류가 그리도 많은지), 남아도는 부속품(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단추, 불량 지퍼, 액세서리 등) 그리고 엄청난 양의 패킹 자재(소비자의 손에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각종 플라스틱, 에어캡, 종이, 박스, 스티커 등)가 산더미처럼 쌓인다.

한 회 생산량이 수십 장에서 수백만 장에 달하는 티셔츠의 경우 상상 이상의 쓰레기가 쌓이는 걸 소비자는 모를 것이다. 그들은 In a Sustainable Way의 가치를 가진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며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주문에 걸려 사고 또 사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그 옷들은 한 계절이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되어 종량제 봉투에 던져지거나 해당 회사의 매장에 '재활용'용 제품으로 반환된다. 하지만 얼마나 재활용이 잘되는지 고객은 모를 일이다.

옷장을 열어보자. 옷어름 내가 실제로 입은 옷은 전체 분량의 몇 퍼센트나 될까? 그리고 가을과 겨울 내가 입을 옷은 실제로 소유한 옷 중 몇 퍼센트나 될까?

아마도 나와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옷장을 열고 수북한 옷더미를 탐색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아, 정말 입을 게 없네." 그리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손가락으로 쉽게 가을 머스트 해브 아이템을 구매했을 수도 있다.

오늘 또 내 옷장에 머무는 옷들은 잠재적 쓰레기가 되었다. 그렇다고 벗고 살 수도 없는 노릇. 나 역시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 TPO에 맞는 의상은 갖추고 다녀야 하는 21세기 인류로서 울겨울에 입을 패딩과 코트를 고민하며 이 글을 쓰고 있다.

어쩌면 요즘 늘어나는 재택근무 시스템은 쓰레기 생산을 줄이는 데 역시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재택근무에 적합한 의상을 새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나 자신의 옷장을 알라! 쓰레기는 줄고 통장 잔고는 늘어날 것이니.

나의 쓰레기 이야기

함영현

나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편이고, 현재 청소년플라스틱줄이기 단체에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원래부터 환경에 관심을 보인 건 아니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자연과 동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이후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물티슈를 낭비하고 분리수거도 철저히 하지 않았다. 샴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모든 생필품을 아껴 쓰는 법을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다. 나는 차근차근 바뀌어나가기로 했다. 샴푸는 고체형 친환경 샴푸, 칫솔은 대나무 칫솔, 종이컵 대신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습관화했으며, 물건을 고를 때 로션 하나도 친환경 제품을 지지하는 비전을 가진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등 생활습관을 바꾸어갔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다. 물병은 너무 무거웠고, 친환경 제품을 하나하나 찾아서 구매하는 것도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믿음 덕분에 이런 행동들을 지속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환경에 관심도 없고 당장의 편이만 중요시 여겼다면 이 글을 읽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으면 한다. 당장 생필품을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분리수거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샴푸는 적당량 사용하고, 코로나19지만 배달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물건을 살 때 과대 포장 제품은 아닌지 살펴보는 사소한 습관의 변화들이 큰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용기 내’ 캠페인이었다. 과대 포장 식품이 많은 마트에서 장볼 때 소비자가 직접 용기를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를 포장지 없이 구매하는 운동이었다. 이 캠페인이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소비자의 요구로,

또 필요성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소통하여 환경을 위한 한걸음을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로 나 또한 나만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사소한 것이 아닐뿐더러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먼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지금 당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간도 지구도 번아웃이군요

현요아

“디자이너가 번아웃되어 버렸음.”

메일이 한 통 왔다. 세상의 뉴스를 간추려 전하는 기업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클릭 수를 높이려고 지어낸 걸까, 아니면 진짜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클릭했더니 진실인 걸로 판명났다. 본문에는 뻔뻔한 고슴도치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번아웃이 온 디자이너를 대신해 에디터가 그린 모양이었다. 문득 지난여름과 올여름이 떠올랐다. 심각한 번아웃을 겪은 작년과 그에 못지 않은 지구의 번아웃을 목격한 올여름.

애써 쓴 이력서가 무색하게 번번이 탈락하는 날이었다. ‘저는’이라는 말조차 쓰기 어려울 때가 되자,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번아웃이 왔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친구와 연락하는 일도 감정 소모로 느껴졌다. 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니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끝도 없이 나를 잡아대는 최악의 시기였다. 재료를 사다가 요리할 힘도 없어서 없는 돈을 쪼개 배달음식을 주문했다. 덮밥 하나만 주문했는데 반찬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와 국물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가 함께 왔다. 리뷰 이벤트까지 참여하다간 플라스틱 용기만 네 개가 울 터였다. 쓰레기를 줄이려고 그나마 덮밥을 주문한 거였는데도 말이다.

점심과 저녁만 배달음식으로 때웠을 뿐인데 방 안이 쓰레기장을 연상케 했다. 무기력한 나는 분리수거할 힘도 부족했고, 일주일 만에 방은 발 디딜 틈 없이 플라스틱과 비닐로 가득 차는 꼴이 됐다.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오는 법은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거라던데, 배달음식만 먹다간 영영 나오지 못할 것 같아 배달 앱을 지웠다. 손가락만 움직여도 문 앞에 음식이 도착했지만 앱이 없으니 스스로 재료를 사야 했다. 그릇을 씻고 아끼는 머그잔을 꺼냈다. 설거지만 하면 되니까 방이 더러워질 일도 없었다. 억지로 몸을 움직이며 청소한 덕에 다시 머리를 굴릴 힘이 생겼다.

“매장에서 먹을 경우 유리컵을 쓰라”고 모든 카페가 권고받은 날, 아주 기뻐했다. 하루에 커피 석 잔만 마셔도 엄청난 일회용품이 나온다는 걸 알아서였다. 여름만 되면 강남역 근처 쓰레기통에는 먹다 남은 일회용 컵이 가득하므로.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을 쓴다. 자연스레 배달과 포장에 애용하는 사람도 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비닐과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1.1퍼센트, 15.16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배달 음식은 1년 만에 무려 66.3퍼센트 폭등했다고. 다음으로 번아웃을 겪을 친구는 지구다. 번아웃 선배로서 예측하건대 분명하다.

올여름 미국 덴버는 하루 만에 폭염에서 폭설로 바뀌는 이상 기후가 나타났고, 남부에는 160년 만에 가장 커다란 허리케인이 왔으며 한국은 최장기간의 장마를 기록했다.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실천법을 하나하나 열거하려다 그만뒀다. 그대와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번아웃에 빠진 지구 역시 인간처럼 속으로만 외치겠지. 살려달라고. 몸 곳곳에 이상 증상을 내뿜으면서, 나는 갑자기 잠적할 지구가 걱정되어 오늘도 전전긍긍한다.



애묘, 동물권에 대해

3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지구상에 존재하며 같이 공간을 나누어 쓰는 존재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물권을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채식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동물권

동물권의 사전적 정의는 동물에게 주어지는 기본 권리입니다. 한국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이 넘었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동물의 권리를 중요시 생각하는 나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비율이 높은 만큼 매년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좁은 케이지에 많은 수의 닭과 돼지, 소를 밀어넣어 축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염병이 도지면 산 채로 땅에 묻어버립니다. 식용이 아니면 살처분이라는 공식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축산 피해 동물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캠페인도 여러 곳에서 펼치고 있

습니다. 동물권을 위해 행동하는 '동물권행동카라'의 비전은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입니다. 동물이 인간과 '상호공존'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간다면 인간 중심의 종우월주의를 벗어나 더 건강하고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종차별 철폐의 날

인권재단사람에 따르면 한 해에 닭 10억 483만 마리, 돼지 1737만 마리, 개 100만 마리, 소 87만 마리 이상이 식용 목적으로 도살당한다고 합니다. 한국 동물권 단체가 '종차별 철폐의 날'을 지정해 활동하는 바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종차별 철폐 주간에 '지금 우리의 관계는 틀렸다'라는 메시지를 모토로 연속 세미나와 온라인 동물권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성찰하고, 지금 바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 채식

인간의 지나친 육류 소비로 인해 비윤리적인 사육 환경이 유지되고, 동물 사이에 전염병이 돌면 한곳에 몰아서 살처분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물을 식용 목적 그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잔인한 시각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채식은 건강한 식생활과 다이어트 혹은 취향에 관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도 이전보다 더 간편하게 채식 식단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완벽한 채식을 유지하는 것보다 다수가 하루에 한 끼라도 채식을 하는 것이 더 빠른 속도로 동물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채식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제시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축산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전체 배출량의 14.5퍼센트에 이른다고 보고했습니다. 육류가 올라온 식단이 익숙하고 간편하다고 해서 잠시만 뒤로 미뤄두겠다는 말은 이제 안으로 접어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료 참고: 인권재단사람 공식 블로그, 동물권행동카라 홈페이지

동물을 존중하는 표현의 방식

고서영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남겼다. 인간에게 사회관계와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자꾸만 인간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최첨단 시대가 펼쳐지면서 때로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닥쳐올 때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 역시 인간인 듯하다. 그렇게 작아진 인간 앞에는 언제나 거대한 자연이 존재한다. 자연 속에는 물과 바람이 있고 식물과 동물도 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종과 달리 발달에 특화되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 내가 동물이라는 걸 망각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동물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닌 개별 영역으로 보곤 한다.

인간이 동물이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이 별것 아닌 듯한 시각의 차이는 행동으로 발현되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특히 환경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동물이 멸종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삼켰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호주에 큰 산불이 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코알라와 빨대가 코에 박힌 바다거북은 지켜보기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동물도 그들만의 터전과 생존 방식이 있을 텐데, 인간이 그것을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바람에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우리 모두 지구라는 곳에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생명일 뿐이라면 인간으로 인해 동물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물 역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느낀다. 귀엽고 앙증맞은 펭귄과 수달이 더 이상 실존하지 않고 책 속에만 남는다고 상상하면 너무 섬뜩하지 않은가.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한다면 일상에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동물이 인간이 만든 쓰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당장 지금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동물을 존중하는 표현 방식이다.

개와 돼지의 차이

김보아

처음 동물권이라는 말을 들은 건 2016년 가을 대학원 세미나였다. 현대정치철학 수업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철학 논쟁을 다뤘는데 그중 하나가 동물권이었다. 어려운 논의가 다양하게 펼쳐졌는데,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인간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든 존재와 생명은 귀중하다'라는 규범 가치를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개의 권리? 돼지의 권리? 소의 권리?'라고 생각했을 때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2년 뒤 고양이를 입양하고 다시 동물권에 대해 생각했다.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주사 맞을 때 아파하기도 하는 고양이를 보며 살아 있는 생명인 동물을 처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 개고기 논쟁을 보았다. 한쪽에서는 다른 동물은 먹으면서 왜 개만 먹지 말라고 하느냐며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러자 반대쪽에서 가족으로 키우는 개와 가축으로 키우는 동물이 같으냐고 맞서며 논쟁은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처음 비판한 사람들은 개고기를 얻기 위한 잔인한 과정을 모르거나 모른 척했을 것이다. 사실 돼지의 권리에 큰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닐 터였다. 그런데 나는 그 비판을 되받아칠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개와 돼지의 차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태어났고, 살아 있고, 고통을 느끼는 자기 삶의 주체다. 또한 개만 고통스럽게 죽어 식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돼지도 처참한 환경에서 길러지다 잔인하게 죽어 불판에 오른다. 나는 그 둘의 차이를 찾을 수 없었고 둘 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동물권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현대정치사상 수업 중에 읽은 캐나다 철학자 마이클 폭스의 글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책 「동물실험 옹호」에서 도덕적 공동체 내의 자율적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수단으로 여겨도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자율적 인간이란 비

판적 자의식이 있고, 복잡한 개념들을 조작할 수 있고, 정교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계획하고 선택하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인간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어 자율적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들과 돼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국 폭스는 실수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동물에게도 확장해야 하며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얻은 이익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¹⁾

폭스의 일화를 떠올리며 내 의견은 더욱 확고해졌다. 개와 돼지의 차이는 없다. 태어나보니 집에서 기르는 개였건 축사의 돼지였건 길 위의 고양이였건 어떤 생명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고통을 받으며 죽어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들의 이유 없는 고통과 죽음에 일조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1) 로리 그루언, 「동물」, 피터 싱어(편), 「응용윤리」, 철학과현실사

생태계 공유

김지안

이제는 기록된 자료를 통해서만 한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동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과 생산, 서식지 침범, 과도한 자원 채취 때문에 죄 없는 동물들이 고통 속에서 멸종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다. 이미 완전히 멸종된 동물도 상당하고 멸종이 진행되는 동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멸종의 끝은 마지막 먹이사슬인 인류가 된다는 것을 아직 인간들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증가하는 육류 소비를 채우기 위해 가축의 개체 수가 늘어나고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토지와 산림, 축사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지구를 더 뜨겁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후로 3개월 내내 폭우가 계속되고 사계절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진다. 우리는 이제 부터라도 윤리적 식습관을 길러야 한다. 완전 채식인 비건 생활을 하기 힘들다면 육류 섭취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편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 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소비를 멈춰야 한다.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동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윤리적 소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모피를 위해 사육된 밍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집단 폐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식용을 위해 길러진 가축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각기 다른 이유로 사육되는 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려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로 살처분되고 있었다. 환경 파괴의 주범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애꿎은 동물들이 산 채로 땅에 묻혀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다.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지만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그렇게 묻힌 동물들의 사체를 덮은 흙에서는 썩은 물과 유해 물질이 발생하여 토양이 오염된다. 이런 곳에 작물을 심거나 유해 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인간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으로 인한 동물의 희생은 가축뿐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도 일어난다. 바다로 버려진 전 세

계 쓰레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세 개나 생겼는데 그 면적이 한국의 몇 배나 된다니, 바다가 플라스틱 쓰레기 창고가 되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켜서 산호초가 죽어가고 그로 인해 물고기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한 플랑크톤부터 그것을 먹은 물고기를 비롯한 모든 바다생물의 내장에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들어 있다고 한다. 바다거북과 고래의 사체를 해부한 결과 뱃속에 쌓인 플라스틱과 비닐로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지금도 플라스틱을 삼키는 동물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인간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환경 파괴를 멈추고 동물들과 지구의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김희라

코에서 뺨대를 빼자 피가 철철 흐르는 바다거북의 영상과 함께 횡집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생선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다. 횡집 수족관에 있는 생선이 처음으로 횡감이 아닌 생명체로 보이기 시작했다. 유리 벽에 갇힌 동물이 생명체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알레르기가 있거나 체질상 고기를 먹을 수 없거나 특별한 계기가 있어 채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큰 계기가 있지 않더라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유, 각자의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 되어 우연히 채식을 시작했다. 채식을 하겠다고 주변에 알린 뒤 두 달 정도 육류를 먹지 않았는데, 지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메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자주 만나는 친구와 매번 똑같은 메뉴를 먹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즐겁게 만날 수 없었다. '무엇을 먹는가'는 '무엇을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이었고, '무엇을 생각하는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식습관을 바꾼다는 건 내 삶에서 여러 선택지를 바꾸는 일이었다.

채식을 공부하면서 종류가 꽤 많다는 걸 알았다. 어떤 종류의 채식을 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실천하기 어려운 규칙은 빨리 포기하는 지름길이란 걸 깨닫고 내가 사는 삶의 모양에 맞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채식'을 검색해가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는지 살펴봤다. 가장 엄격한 단계의 채식주의 비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기덩어리'만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있었다. 유제품과 달걀이나 어류만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안도 있고, 집에서 채식을 하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플렉시테리언도 있었다.

1년 동안 덴마크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내게 익숙한 공간에서 빠져나와 낯선 곳에서 살아가며 내게 맞는 삶의 방식을 실험해보기로 한 것이다. 마당에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가정 농장과

대규모로 맥주 공장을 운영하는 농장에서 지낼 때는 호스트들의 식습관을 따라서 덴마크 일상식을 먹었다. 반찬처럼 재료를 앞에 펼쳐두고 각자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고기와 감자를 먹었다. 한국에서도 고기를 이렇게 자주 먹지 않았는데, 내가 지향하는 삶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돼지를 직접 키워 소시지를 만들어 파는 호스트는 초원에서 자유롭게 돼지를 풀어놓고 키웠는데, 그 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가고 싶은 대로 걸어다니더라도 결국 울타리는 존재한다. 가장 행복할 거라 여기던 돼지도 인간에게 먹힐 목적으로 초원에서 살아갈 뿐이었다.

코펜하겐에서 혼자 살 때는 거의 매일 요리를 했다. 메뉴도 한정적인 데다 인건비가 비싼 만큼 외식비도 덩달아 비싸지기에 직접 해먹는 편이 어려모로 좋았다. 가장 먼저 실천한 일은 장볼 때 고기를 사지 않고, 집에서 육류 요리를 해먹지 않는 거였다. 한국에서는 외식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가 비슷해서 자주 외식을 했는데, 덴마크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집에서 요리해 먹는 일도 익숙해졌다.

공항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했는데, 매일 먹는 샌드위치가 지겨워질 땐 주변 가게 직원들과 교환해서 먹었다. 비트와 콩을 갈아 만든 비건버거를 먹기도 하고 베트남 음식점의 두부카레도 즐겨 먹었다. 덴마크는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많은 데다 채식주의자도 점점 늘어나서 어느 음식점에 가든 채식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은 친구가 한국의 드라마에서 본 치킨이 궁금하다며 함께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그때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치킨을 만들어 맛있게 먹기도 했다.

나는 완전한 채식주의도 아니고, 채식주의가 아닌 것도 아니고, 채식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지향한다고 하기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좇대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확실한 건 채식을 지향하고 나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졌다는 사실이다. 불완전한 선택 앞에서 여전히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다. 오늘 못 했으면 내일 하면 되니까. 내일 하면 내일모레도 하면 되니까. 채식주의라고 말하기까지 다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려고 한다. 채식을 우연히 시작한 것처럼 또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내게 찾아올지도 모른다.

잘 먹고 잘 먹기

노현정

지구엔 인간만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 실감하는 일은 드물었다. 반려동물과 반려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의 집이 아닌 자연에서 동물을 본 적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오던 2018년 겨울, 집 근처에 웬 길고양이가 나타났다. 아주 작은, 햇살과 꼭 닮은 털빛을 뽐내는 치즈색 고양이. 이 고양이는 훗날 내 인스타그램을 도배했고, 그 눈길 한번 받고 싶어 안달이 난 우리 가족들을 모두 무릎 꿇렸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다른 길고양이들은’ ‘길 위의 다른 생명은’ ‘다른 동물들은’으로 생각이 옮겨갔다. 내가 알지 못했던, 혹은 어렵פות이 알지만 외면했던 다른 존재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더 정확히는 어디서 어떻게 키워져 어떤 죽임을 당하는지.

이 생각의 끝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었더라’를 곱씹은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친한 친구가 한 달에 일주일씩 채식하는 ‘비건위크(vegan week)’를 시작하면서 더더욱 ‘먹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회사 다니면서도 한 달에 일주일 비건 식단을 잘 유지하는 그 친구가 너무나 잘 먹고 다녀서 놀랐고, 왜 비건을 하는 걸까 궁금했고, 이유를 들으면서 공감했기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먹었는지, 또 무엇을 먹을 것인지 생각하게 된 것이다.

작은 고양이와 친구의 비건위크가 내게 잔잔한 파동을 주었다면, 독서 모임에서 읽은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명확한 언어를 주었다. 이 책에는 타일러가 고등학생 때 학교 농장에서 닭을 키운 이야기가 나온다. 선생님이 직접 닭을 도축하는 걸 잔인하다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직접 잡지도 못하면서 무슨 고기를 먹겠다는 거냐?” 그때의 타일러처럼 지금의 나도 당황했다. 활동성을 가졌던 생명을 잡아 죽이는 것은 잔인하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일러는 이를 두고 “물라서 편한 게 있지만 사실은 몰라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나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다. 집에서 해먹는 음식만큼은 덩어리 고기를 올리지 말자고. 털과 가죽이 벗겨진 채 먹기 좋게 절단된 덩어리로만 동물을 보지는 말자고. 나는 이미 점심의 사내 식당과 주말의 가족 식사에서 충분히 고기를 먹고 있다. 그러니 일주일에 많아봐야 다섯 번, 내가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 뜻대로 식단을 꾸려보기로 했다. 오늘 저녁은 양파를 많이 넣은 숙주나물볶음과 팽이버섯전이 좋겠다.

그 어느 한쪽도 너무 불행하지는 않았으면 - 지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에

독고예지

어릴 때부터 동물과 함께 하지 않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시골에서 가족처럼 키우던 소와 닭. 언제나 함께였던 강아지, 물고기들까지 내 일상에서 동물이 없었던 적이 떠올려보기란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유년 시절을 보낸 나는 동물들을 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수의사의 꿈을 오래도록 간직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어린 날에는 시골 외양간에 있던 소와 밥상에 놓인 불고기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지 못했다. 유년 시절 나와 함께 한 동물들은 시골집 마당에도, 잠든 내 옆뿐만 아니라 밥상에도 항상 있었던 것이다.

몸이 한참 자란 지금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 초원에 있는 소와 불고기의 연관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지금이지만, 관심을 갖고 공부할수록 나에게서 발견되는 모순들에 대한 부끄러움은 계속해서 자라난다. 동물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만큼 갇혀 있는 동물들을 불쌍하고 안쓰럽게 생각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선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부족함과 모순이 드러날 때마다 관심을 놓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 동물에 귀를 기울일수록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동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주거지를 파괴하고, 가족과 떨어뜨리고, 죽이고, 입고, 실험하며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맞춰진 시스템으로 사육하고 유전자를 조작한다. 우리는 닭의 부산물인 달걀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닭의 월경을 스무 배나 늘린다. 그렇게 살아온 닭은 알을 만드는 데 칼슘을 너무 많이 써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닭은 오래 살면 20년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먹기 위해 좁은 케이지에 갇힌 채 길러진 닭은 최대한 살을 찌워 7주 만에 도살된다고 한다. 부화장에서는 갓 태어난 병아리의 성별을 감별하여 수평아리는 그대로 갈아버린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이 이야기에서 ‘닭’을 ‘인간’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더 끔찍해진다.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이 단순히 필요에 의해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우리의 월경을 스무 배나 늘리고 그들의 시스템으로 사육하여 그로 인해 수명의 반의반도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정말 생각만으로도 잔인한 이야기다. 물론 인간과 닭은 분명히 다른 종이다. 인간은 저러한 일을 당했을 때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의사 전달이 가능한 인간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위에서 말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는 다른 생명의 삶에 깊이 침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채식과도 연결된다. 1년 전 다이어트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비건을 접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SNS에서 도살되기 직전의 돼지들을 보고 충격에 육지기를 느끼고는 한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던 것과 달리 비건 식단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건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과일식, 즉 푸르테리언 식단을 했는데, 우려와 달리 양을 급격하게 줄인 식단에서 오는 어지러움과 맛을 아는 음식 메뉴들이 떠오르는 것 말고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었다. 비건 자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별게 아니라는 걸 몸소 확인한 경험이었다.

취직을 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완전한 채식을 하는 데 점차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어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무작정 고기를 빼달라고 요청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왜 고기를 먹냐며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늘어놓기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저 내가 느낀 채식의 장점과 생각들을 던지지 전달할 뿐이다. 나 또한 예전처럼 완벽한 채식을 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세 번 정도라도 의식적으로 비건 식단을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사람이 내딛는 열 걸음보다 열 명이 내딛는 한 걸음이 더욱 큰 물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잘 알기에, 완전한 비건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핑계로 작은 실천들의 가치를 폄하하긴 싫다. 고통이 그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적당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가 동물에게 짧은 제의를 올릴 수 있을 때

박예진

2019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아토피 때문에 체질 개선을 하려고 8체질을 처음 시도해봤다. 그 1년간은 의도치 않게 페스코 채식(육류를 제외한 생선, 달걀 등은 먹는 채식) 비슷한 식단을 지켰다. 이러한 식습관을 시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분히 건강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시기에 동물권이나 채식에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아쉽지만 지금은 페스코 채식을 하지 않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식습관이 내 건강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고, '한 사람의 식성이 까탈스러울 때' 오는 수고로움(메뉴 고를 때 눈치보기 등)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채식을 시작하고, 또 채식을 끝냈다. 구입한 지 1년이 넘는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은 아직 절반도 읽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택적 채식(육식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을 지향하고,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앞으로'라고 적힌 정육점 포스터 문구에 웃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때 시골로 이사 간 우리 집은 뒷마당에 닭 몇 마리를 키웠다. 귀한 손님이 오거나 저마다의 이유로 닭이 갑자기 죽었을 때 아버지는 직접 닭을 손질하고 백숙을 끓여내곤 하셨다. 닭을 잡고, 털을 뽑고, 내장을 빼고, 끓여내는 그 모든 공정이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식구의 눈 앞에서 생략된 채 닭은 어느새 새하얀 백숙이 되어 식탁에 올라오곤 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 닭을 잡은 적이 있는데, 나는 집 밖으로 들려오는 비명 소리가 너무도 사람 같아서 심장이 쿵광댄 적이 있다. 그때의 경험 외에는 닭의 죽음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 아무튼 닭이 백숙이 되어 올라온 날은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식구가 모여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똑딱 끝냈다. 평상시에 시판된 닭으로 만든 요리를 잘도 드시는 아버지는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다. 그때마다 옆에 놓인 반찬들만 끼적거리며 소주를 훌쩍이셨고, 우리는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대충 얼버무리며 식사를 이어나갔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만연된 육식 문화(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거나, 치킨 혹은 굽창을 한가득 쌓아놓고 먹는 먹방에 열광하거나,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앞으로가 명언으로 간주되는)는 이러한 '공정' 과정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장식 축산으로 대량 생산된 동물들은 누군가 대신 사육해주고, 죽여주고, 절단해주고, 포장되어 우리에게 배달된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미 '생명'보다는 '고기'로 간주되는 '동물'을 더 친숙하게 만나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손으로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동물은 우리 '미각'을 위해서라면 '고통을 느껴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동물권을 논할 때 가끔 3초 정도 짧은 '제'를 올리거나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식'에 대해 생각한다. 잡식인과 잡식인을 혐오하는 채식주의의 대결 구도에서 오는 헛헛함,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음식과 영양분이 되어 돌아온 어떤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떠올려보는 문화를 수용하는 데서 먼저 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 몇 구절을 가져오며 글을 마무리한다.

파종의 다음 단계는 땅과 물의 영혼들을 달래는 일이다. 라다크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다크'와 '루'라고 부른다. 흙 속의 벌레들, 개천의 물고기 그리고 땅의 영혼은 쉽게 노여움을 타는 존재들이며 삽질을 하거나 돌을 깨거나, 혹은 그냥 땅을 걷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라다크 사람들은 파종을 하기 전 제사를 지낸다.

겨울이 되면 라다크 사람들은 염소나 야크, 쪼 같은 동물의 고기를 특히 더 먹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 고기를 먹지 않고는 혹독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힘들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생선을 먹는 일은 없다. 라다크 사람들은 살생을 해야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큰 짐승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생선을 먹는다면 더 많은 살생을 해야 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그런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동물을 죽이는 것을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리며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야 동물을 죽이는 이들이 이곳 사람들이다.

나를 등에 태워주고 내 짐을 실어주던 짐승이
이제 나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니,
내게 먹을 고기를 주는 이 짐승이
어서 빨리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소서.

채식, 식물권

서회원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오빠, 샤샤 그리고 나 해서 다섯이다. 나는 전북 전주에서 5년 전 서울로 올라왔고 가끔씩 집에 내려갈 때만 샤샤랑 인사하고, 쓰다듬고, 뛰어놀고, 대화할 수 있다. 샤샤는 가족 단독방에 자주 참여하지만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발이 묶여서 그런지 2020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새로 뜯은 네모난 비누 4분의 3을 칼로 송-덩 잘라 그대로 가져가버린 기분이다. 쓰던 고체 비누가 작고 작아져 손에 잡기도 어려워질 때쯤 다음에 쓸 새로운 비누를 고심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실제로 사용하면 어떨지 상상해보는 설렘이 순식간에 끊겨버린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입에 딱 넣으려는 순간, 누군가 ‘한입만’ 하며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행복을 빼앗긴 알뜰하고 허탈한 기분이라랄까.

나에게도 1년은 그렇게나 크고 소중한 시간인데 샤샤에게는 어떨까. 샤샤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을까? 나와 함께 숨바꼭질하다 들키면 소파 아래로 슬라이딩해서 들어가는 예전만큼의 에너지가 요즘은 안 보이던데, ‘나도 아기 고양이였을 땐 팔팔했지’라며 과거를 회상하고 그럴까? 요즘 들어 부쩍 ‘정적이다’라는 말을 샤샤에게 자주 쓰고 있다. 호기심에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사냥도 해 오던 10년 전 샤샤와 달리 이제는 그에게 주어진 하루 치 체력 안에서 꼭 필요할 때만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쓰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에게 1년이 고양이에게는 4년이라고 했던가.

한때 ‘치킨공화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닭은 어떨까. 한국일보 2015년 기사에 따르면, 닭은 평균 7-13년을 사는데 치킨으로 튀겨지기 위해 생후 30일 안팎이면 도축된다고 한다. 닭보다 조금 큰 샤샤에게 1년이 4년이면 6개월은 2년, 1개월은 4개월로 세월이 흐른다고 가정해본다. 그럼 닭은 체감상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생을 마감하는 것인가. 아기는 태

어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작별 인사를 위한 손 흔들기, ‘아니오’를 표현하기 위한 도리도리 등을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닭이라고 자신이 세상과 작별하는 걸 모를까.

그렇기에 채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멋지다로 끝날 일이 아니다. 채식을 한다는 것은 작은 생명의 소중함까지 헤아리는 기나긴 ‘수행길’이다. 그래서 ‘채식을 해야지’ 하고 단번에 나를 바꿀 수 없다. 채식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다. 그렇게 쉬었다면 우리 모두 석가모니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단순히 육류가 아닌 식물만 먹는 걸로 방법을 찾기에는 지구에 너무나 많은 소중한 생명이 모여 살고 있다. ‘Black Lives Matter’ 같은 사회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청운스님은 살생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한 생명, 해로운 생명을 나누고서 소중함의 정도를 따지는 것보다 해로운 생명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욕심을 내지 마라. 먹을 만큼만 만들되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살생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베풀어서 공덕을 쌓아라.” 결국 우리는 환경과 동물권을 위해 채식을 말하지만 ‘식물권’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식물이라고 해서 환경오염을 아예 안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기에 채식을 곧바로 실천하기 전에 생각해 보자. 소중한 우리 주변의 동물, 식물, 크고 작고 모든 당연한 생명을. 과연 나는 만족의 행복을 넘어서 무리한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채식이라면 왜 채식인지 천천히 일생 동안 이유를 다듬어가자. 수행은 그런 것이다. 계획, 임무, 가르침, 행실 등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훈련하는 것.

동물에 관한 기억

선옥영

기억 하나, 그/그녀도 원한 잔치일까

집 마당에 마을 어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아주머니들은 쟁가에 앉아 그릇을 씻고, 아저씨들은 마당에 화로를 만들고 불을 피워 커다란 가마솥을 엮었다. 어떤 어른은 물을 뿌리며 쇠돌에 칼을 갈고, 일부는 마당 한구석에 커다란 포장을 깔 후 그 위에 투명한 새 비닐을 깔았다. 한참 분주하게 준비를 하더니 갑자기 아저씨 한 명이 들어오면서 소리쳤다.

“들어온다!”

어른들이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라고 몰아대면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해서 겁을 먹고 방에 들어갔다. 감히 문을 열 용기는 없었지만, 온 신경은 마당 쪽에 가 있었고, 곧 이어 귀익- 귀익- 하는 소리와 여기로, 여기로, 하는 다급한 외침, 다시 귀익- 귀익- 소리와 어허이, 그럼 안 되지 하는 지청구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꾸에에에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해졌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듯 소름이 돋았다. 고생하셨네, 그놈 참 질기다, 그래도 고마운 놈이지 하는 소리가 작게 들리더니 금세 웅성거리며 바쁜 소리가 났다. 살며시 문을 열어 마당을 내다보는데 핏물이 낭자한 마당과 그 사이를 바삐 움직이는 고무 슬리퍼들, 쟁가에 모여서 내장을 씻는 사람들, 고기를 물 끓는 가마솥에 넣어 수육을 만드는 사람들, 소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

마을잔치라고 했다. 좋은 일이 있어 마을에서 돼지를 잡는 것이라 했다. 마을에서 돼지를 잡는 게 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그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났고, 어른들은 몸에 좋은 것이라며 수육과 내장탕, 생간, 천엽 등을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했다. 마당에는 여기저기 아직 핏기가 남아 있었고 그 냄새는 집요하게 내 코끝을 따라다녔다. 그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선명해졌고, 고기 냄새에 예민해졌으며, 곰팡은 내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진(칼을 대고 죽이려 한다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못 먹게 되었다. ‘남의 살’이라는 인식이 죄책감을 부르고, 죄책감을 이겨가

면서까지 먹어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벽한 채식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직 육류를 구입한다. 다만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구입할 뿐이다. 어떤 과정과 이유를 들더라도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 사육되고 생산되는 그들에 대한 소비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돼지는 사람이 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일’을 위하여 살해당하고 싶었을까. 아니, 사람이 자신을 키우는 걸 원했을까? 아직도 그 돼지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돈다.

기억 둘, 모욕적인, 행복한 얼굴

몇 년 전 친구를 만나느라 먹자골목을 지나간 적 있다. 약속 장소를 찾으려고 계속 간판을 보며 지나가는데 이상한 간판들이 보였다. 돼지고기 전문점 간판에는 하얀 요리사 모자를 쓴 자신만만한 돼지 얼굴이, 치킨집 간판에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닭이, 소고기 전문점 간판에는 함박 웃음을 짓고 있는 소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횡집 간판엔 팔딱거리는 물고기가 웃으며 가슴지느러미를 흔들고 있었다. 모두 자기가 최고라고, 나를 먹으러 오란 듯이.

기억 셋, 똑같은 생명

딸이 지나가다 개미를 발견하고 밟았다. 내가 말리면서 개미가 널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왜 죽이냐고 했더니 일부러 죽인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보니 쫓아가면서 또 밟았다. 개미도 사람도 똑같은 동물이니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딸이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고, 개랑 고양이, 말, 타조는 동물이고 사람은 포유류라고 했다. 아는 단어를 총동원해서 자기는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인 사람’임을 어필하고 싶어 한 것일까. 아이가 사람은 말도 하고 여행도 하고 차도 운전한다고 말했다.

아이에게 목숨을 가진 것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중에 동물이 있고, 사람도 동물의 한 종류라고. 그 동물들도 사람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자기들 말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동 방법도 다 있다고 알려주었다. 사람이 못 알아듣고, 사람이 못 알아볼 뿐이라고. 동물들도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충격을 받은 듯 다섯 살은 그런데, 그런데 하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며칠 후부터는 집에 들어온 모기도 못 잡게 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것 아니겠냐고, 추워서 들어왔을 수 있으니 조금 있다가 살려서 밖에 내보내란다. 그 후로 무당벌레도 들어오고, 노린재도 들어오고, 파리도 들어왔지만 생명의 가치를 깨우친(?) 다섯 살 아이 덕에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야생으로 돌아갔다. 아이가 자라면서 언제나 다른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마음을 항상 마음 한쪽에 가지고 살아갔으면 한다. 내가, 우리가, 이 지구의, 이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분임을, 더 나을 것도 더 부족할 것도 없는 보통의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자연에서 만나자

성지은

서둘러 퇴근하고 근처 김밥집에서 김밥을 포장하고 어린이집으로 향한다. 아이와 함께 20분을 더 달려 바닷가에 도착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함께 김밥을 먹고 먼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린다. 김밥 한 줄을 다 먹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 낚시하는 사람,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사람 등 바다 곳곳에 사람들이 나와 있다. 노을이 지고 김밥을 다 먹었는데도 오늘은 만나지 못했다. 그래도 좋다. 다음에 다시 오면 되니까.

오늘은 다른 시간에 가보기로 했다. 휴일 낮, 김밥을 포장하고 물을 챙겨서 오늘 점심은 바다를 보며 먹기로 했다.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면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아주 쿨한 네 살이다.

김밥을 다 먹고도 조용한 바다는 오늘도 못 만나는구나 싶었다. 우리는 쓰레기를 주우며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쉬운 마음에 한 발 한 발 뛰며 더 놀다 가자는 아이는 그렇게 10분을 더 놀았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바다를 향해 망원경을 들고 뛰는 사람도 있었다. 스마트폰 카메라 소리가 들린다. 찰칵찰칵! 그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니, 드디어 왔다.

바다 저 멀리에서 작은 검은색 무리가 신나게 헤엄을 치고 있었다. 돌고래다.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어머, 정말 돌고래야!” 아이도 소리쳤다. “돌고래다, 야호!” 감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놀라웠다. 믿어지지 않았다. 진짜 나타나다니. 이렇게 바다에서 돌고래를 볼 수 있구나. 넓은 바다와 하늘, 자유롭게 바다를 누비는 헤엄 실력. 너무 멋진 광경이다.

돌고래는 계속 헤엄을 치며 달렸고, 우리 눈에서 그렇게 멀리 사라졌다. 돌고래가 헤엄치는

주변에 배 한 척이 보였고, 배 안에서도 환호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해안도로를 따라 차를 달리며 다시 돌고래를 따라 순식간에 사라졌다. 돌고래를 따라 사람들이 바빠 움직인다.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쳤다.

제주에 와서 알게 된 ‘햇핑크돌핀스’라는 해양 환경 단체. 이 단체에서는 멸종 위기 돌고래를 지키는 일을 하고, 돌고래를 바다로 보내기 위한 많은 일을 한다. 이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지켜보며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저지르는 동물 학대는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돌고래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바다인데,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고 있을까. 아이가 보고 싶어 하는 돌고래를 보기 위해 우리는 쉽게 어디를 찾을까. 입장료를 내고 돌고래 쇼를 본다. 편히 앉아 잠깐 신기해하는 우리를 위해 돌고래는 평생을 답답한 수족관에서 헤엄 한 번 제대로 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우리는 돈을 내고 동물 학대를 한 것이다.

얼마 전 제주테마파크 수족관에서 돌고래 ‘안덕이’가 죽었다고 한다. 같은 제주에 사는 돌고래가 이렇게 다른 운명을 맞이한다. 아이들은 동물을 보고 싶어 하고 좋아한다. 그런 아이를 위해 아이와 함께 동물들이 갇혀 사는 감옥으로 간다.

동물이 살아야 하는 곳은 자연이다. 아이에게 동물은 동물원, 테마파크 수족관이 아닌 자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다.

동물권 그리고 채식에 관하여

손유진

문명의 발전에서 가축이 없는 인류의 삶을 상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농경 생활, 교통 수단, 물류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가축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지금은 가축이 하던 일들을 기계나 자동차가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가축이 식량과 고기, 가죽을 제공한다.

얼마 전 우연찮게 가축의 사육 환경에 대해 알았는데 대부분의 닭이 A4지만 한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한다. 그래도 시간이 되면 잠시 산책이라도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순수한 생각이었다. 꿈쩍도 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오로지 인간의 먹이가 되기 위해 날개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 닭장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생명이 다한 뒤 인간의 식탁에 오르기 위한 날이라고 한다.

닭들은 모래목욕을 통해 몸에 있는 진드기를 자연스럽게 씻어내는데 그 박멸률이 99퍼센트에 가깝다고 한다. 하지만 A4지 공간에 사는 닭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살충제로 진드기를 제거한다고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이 닭들을 먹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육류를 섭취한 인간들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먹는 달걀에 적혀 있는 글씨를 통해 닭이 자라는 환경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1101_M3FDS 2 같은 문자가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 네 글자는 산란 일자에 해당하고 다음은 생산자 고유 번호라고 한다. 마지막 숫자가 사육 환경 번호인데 숫자가 작을수록 동물 복지가 잘 이루어진 환경에서 자란 것이다.

달걀 1번이 적혀 있는 달걀로 바꾸고 모든 육식을 금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실천과 동참을 통해 조금씩 개선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내가 4번 사육 환경의 달걀을 먹고 있었다면 3번 달걀을 먹거나, 완벽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면 다기보다는 육식의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평상시 페스코 식단으로 먹지만 모임이 있거나 채식하지 않는 친구들과 외식할 경우 부담 갖지 않고 어울린다. 먹고는 싶은데 죄책감을 느끼거나 무조건적인 양날의 검을 휘두르며 스트레스받기보다는 적절한 균형 속에서 나만의 실천을 하는 것이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악의 룸메이트, 인간

송혜현

다세대 원룸 5층, 내 친구네 집 맞은편 집에는 강아지가 있다. 친구네 집에 가려고 계단을 오르는 내 걸음이 5층에 멈춰서자 강아지는 숨이 넘어가도록 짖었다. 친구 말로는 주인이 집에 없으면 사람 소리만 나도 짖는다고 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어쩐지 그 짖는 소리가 정말 슬프게 들렸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나 자신을 그렇게 평한다. 다만 강아지가 오랜 시간 홀로 있는 게 신경 쓰이고 길고양이가 죽지 않기를 바란다.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토로피 헌팅에 희생되지 않았으면 싶고 돌고래 쇼 때문에 돌고래들이 포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이 바람들을 어딘가에서 말하면 “동물을 참 좋아하나 봐요”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 말이 왠지 이상했다. 좋아해서 드는 생각이 아니었다.

대학 때 교내 길고양이 동아리 회장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학교에서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생존을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였다. 당시 나는 길에서 만난 고양이를 귀여워하지도 않을뿐더러 한마디로 관심 자체가 없었는데, 어쩌다 그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동아리 회장은 고양이가 영역동물임을 말하면서, 어쩌면 몇 백 년 전부터 그들이 살아온 터전에 인간이 학교를 세워서 같이 살게끔 된 것인데,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으니 그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그날의 그 말이 절대 맞지 않아서 오히려 좋아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터전을 빼앗은 책임과 공생에 대한 노력은 ‘좋아함’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인간은 지구라는 공간에서 동물하고 일종의 ‘하우스 셰어’를 하는 셈인데, 누군가 평화롭게 사는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같이 사는 상황이라고 상상해보면 잔인하기 짝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와서는 룸메이트는 쓰지도 못하는데 자기만을 위한 가구를 들여오고 거실을 차지하고 남은 방을 빼앗고 베란다 확장해서 자기가 쓰고 뭐 그러는 거다. 그럴 제재할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다면 당하는 쪽은 어떤 심정일까. 인간의 지능이 조금 더 뛰어나서, 도구를 쓰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동물은 제압을 당한다. 동물은 인간에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지구라는 집은 인간의 논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 인간은 동물에게 최악의 룸메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만화 「기생수」가 떠오른다. 인간과 어떤 면에서든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생명체인 기생수를 등장시킴으로써 이야기가 전개된다. 기생수는 숙주인 인간의 뇌와 몸을 점령하고 조종하여 먹잇감인 인간을 사냥한다. 인간을 ‘포식’하고 제압할 수 있는 존재가 등장했을 때, 속수무책의 인간은 두려움에 떨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체로 전락한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우월함은 기생수의 말처럼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선택들을 밀어내고 룸메이트라는 위치에서 동물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룸메이트를 향한 존중은 언제나 공존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기 마련이다.

동물 그리고 먹기에 대해

안미향

사람들은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고기 사주세요.” “다 좋는데 고기가 없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알겠다. 일단 고기는 맛있다. 샌드위치부터 사골 육수까지 고기가 안 들어가는 음식을 찾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맛을 잘 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기는 영양가도 높다. 단백질 함량이 많고 먹으면 기력이 생긴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과유불급. 뭐든 정도가 있는 법이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몸에도 좋지 않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이다.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고 있다. 소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사료를 생산하려면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고 분뇨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토지와 수질이 오염된다. 고기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축산업계는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가축 수를 늘릴 테고 결국 환경도 오염될 것이다. 오염된 환경은 인간에게 마이너스 영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고기의 대량생산이 일으키는 환경문제는 밀집 사육 문제와도 연결된다. 많은 양의 고기를 생산해내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 동물을 키우는 밀집 사육은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물건을 찍어내리는 듯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을뿐더러 한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금방 퍼져서 많은 동물이 살처분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는 있지만, 숯불에 구워지는 한우나 갓 튀겨진 치킨이 눈앞에 있다면 환경문제는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채식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식물도 눈에 보기에는 움직이지 않지만 동물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기, 음식의 과다 섭취다.

특히 요새 유행하는 미디어 콘텐츠들을 확인해보면 꼭 들어가는 요소가 먹방(먹는 방송)이다. 먹방을 보면 소식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치킨 한 마리는 기본으로 먹어줘야 먹방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한 끼에 닭 한 마리는 과하다. 과식이다. ‘과식 이라고?’ 의아한 사람들은 과식이 습관이 된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음식의 소비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많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 희생의 대가로 환경도 오염되고 있다.

‘먹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행위다. 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음식을 통해 얻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먹기’를 통해 즐거움,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과식보다 미식을 추천한다. 무한 리필 고기보다 호텔 코스 요리를 먹어보면 어떨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고기를 많이 먹는 건 선택이 아니다.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의 희생과 환경의 문제들을 되돌아보자. 과식 문화가 사라진다면 지금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본다.

비건은 아니지만 채식선호자로 살아갈래요

안지연

건강한 식생활, 다이어트 식단에서 가장 친숙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닭가슴살을 포함하여 단백질 가득한 육류, 유제품이란 생각이 컸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계획하고는 냉동실 한가득 닭가슴살을, 냉장실에는 달걀을 필수품처럼 저장해갔다.

근데 이제 그 루틴이 꼭 정답은 아니란 생각에 조금씩 식생활과 식생각을 바꾸기로 해본다. 작은 불씨들이 모여 결국 내 몸까지 확 태워버린 결과다. 나는 비건은 아니지만 비건을 향해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있다.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 트랙에 다닥다닥 갇혀버린 닭들을 보고는 시간이 지나도 그 잔상이 계속 남아 몇 달은 닭고기도 달걀도 멀리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익숙한 듯 육류와 유제품을 즐겨 먹었다.

조류독감 때문에 닭들이 흉구덩이로 매몰되는 뉴스를 접하면 아차 하고 식습관에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때뿐이고 편한 일상 패턴으로 돌아가 치킨을 주문했다

인간의 지나친 육류 소비로 인해 공장에서 찍어내듯 밀려나오는 동물들! 전염병이 돌면 한곳에 몰아넣고 덮어버리기를 반복한다.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 나도 모르게 괜찮다며 동참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근데 나를 변화시킨 건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란 걸 지금 확실하게 느껴가고 있다

비건이 자신 없으면 채식주의자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결심한 가장 큰 계기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 회사생활이나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고기다. 불판 가득 고기를 구워 먹고도 육회나 뼈를 가득 우려낸 국물을 잔뜩 먹고 나면 다음 날 내 몸이 어김없이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나는 과식에 피로라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넘겨버렸다.

서른 중반을 지나고부터는 육류를 두 끼 이상, 아니 한 끼만 집중적으로 먹어도 다음 날 아침

이면 배가 더부룩하고 계속 가스가 차면서 낮은 체취들이 내 몸에 가득해지는 걸 경험한다. 배꼽 주위가 단단해지고 위와 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 횡수가 잦아지자 좋아하는 커피부터 줄여야지, 라고 생각했지 육류부터 줄여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즐기는 육류 문화에서 소외당하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유별스럽다는 시선을 받는 비건이나 비건지향자로서 당당하기가 아직은 두려웠는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유명 샌드위치,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채식 제품을 출시한 광고를 보고 조금은 용기가 생겼다. 이제 비건도 개인의 독특한 취향 또는 과한 취향이 아닌 존중받고 지지할 수 있는 문화로 받아들일 것 같다는 사회적 신호가 느껴졌다.

나 하나 달라진다고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잠시만 뒤로 미룬 적도 많았다. 당장 완벽하게 육류와 유제품을 제한하고 확 달라지겠다.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건강한 나, 우리, 사회를 위해 적어도 채식주의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완벽한 채식을 하진 않지만 채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채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로 살아갈 앞날이 더 뜻깊어질 듯하다. 행복한 채식주의자가 많아지는 사회를 기대해본다.

어떤 죽음들

엄지혜

할머니가 내게 붙여준 별명은 ‘고기박사’였다. 할머니는 보신탕집을 운영했고 나는 개고기를 포함한 모든 고기를 좋아했으며 잘 먹었다. 그러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개고기는 먹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기를 즐겨 먹는 어른이 되었다. ‘저기압일 댄 고기앞으로’ 가야 하고, ‘불금엔 치맥을 먹어줘야 한다는 농담을 즐겨 하는 고기찬양자였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가 ‘남의 살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 잔혹한 말이 참 재치 있고 재밌다고 생각했다. 그 뒤로 나도 몇 번 ‘남의 살’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 생각하면 섬뜩한 표현이다. 그런 시절을 지나 지금의 나는 비건지향인으로 살아간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비건위크를 치른다.

지난 글에서도 썼다시피 나는 강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비건지향인이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동물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강아지 콩이가 떠난 지 고작 1년이니, 비거니즘과 연결감에 대해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긴 기간도 그 정도다. 그 전의 나는 동물들의 죽음에 이상하리만치 무감한 사람이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죽음들’에 말이다. 주말이면 SBS의 <동물농장>을 보며 위기 상황에 처한 동물들, 어딘가 아프거나 고통받는 동물들의 사연에 눈물을 흘렸다. 영화 ‘블라인드’에서 시각장애인인 주인공을 지키려다 살인범의 손에 죽는 안내견을 보며 분노와 슬픔, 안타까움을 느꼈다. 미디어에서 늘 동물의 가공된 죽음과 고통을 접하면서도 나의 일상은 그대로 굴러갔다.

나의 안전한 일상을 이루는 것들이 동물의 죽음, 고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가 즐겨 먹는 고기가 들어간 음식들은 당연하고, 동물성 재료가 쓰이지 않는다는 것에 안심하여 구매했지만 알고 보니 팜유가 함유된 과자, 내 옷장을 차지한 동물의 털이 들어간 패딩, 동물실험을 거쳐 만들어졌을 화장품... 내가 먹고 입고 쓰는 많은 것이 동물의 죽음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죽음들’을 떠올려보고 나니 잠시 아

득해지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다. 나아가 그 죽음을 집행한 자들의 안부도 궁금해졌다.

구제역 때문에 돼지들을 살처분했다는 기사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살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단어의 의미가 짐작은 갔지만 설마 싶었던 것이다. ‘설마, 정말 산 채로 물어버린다고?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하지만 곧바로 기사 사진을 보곤 내가 정확히 이해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땅에 묻히는 돼지들도, 돼지를 묻는 사람들도 너무나 괴로워 보였다(검색창에 ‘구제역 공무원’이라고만 검색해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살처분 집행 공무원들의 인터뷰 기사가 나온다. 심지어 이 고통의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놓친 죽음이 얼마나 많을까. 그동안 동물의 죽음을 사용했지만, 나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누군가는 나 대신 그 죽음을 집행했을 것이다. 과연 이 모든 굴레가 어느 한쪽만 고통받는 일일까. 어떤 죽음들을 계속 곱씹다 이제 그만 하고 싶어졌다. 다른 존재의 죽음을 쓰는 일 말이다. 당장 매일 비건 식단을 실천하고 모든 동물성 제품의 소비를 끊을 자신은 없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런 선택지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선택을 할 것이다. 채식을 하며 얻는 가장 큰 기쁨은 무해한 재료로 요리해서 나 자신에게 대접할 때 피어나는 충족감이다. 무해한 식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둘러앉아 ‘어떤 죽음들’을 떠올리지 않는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아지기를.

고통을 마주하는 세상

유혜선

나는 늘 그랬다.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이 무탈하니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2019년 겨울, 나는 오랜 꿈을 포기했다. 경찰 공무원을 꿈꾸며 공부했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체력 시험을 준비할 수 없어진 것이다. 병원 다니는 것 외에 내가 몸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 삼계탕? 사골국?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다.

우연히 지인의 추천으로 다큐멘터리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을 보았는데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서 담배, 석면, 플루토늄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했고, 또한 붉은 고기는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동물성 식단은 당뇨, 암, 심장마비 등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등 나의 식습관이나 사고와는 180도 다른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의학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어느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 물음 속에 가려진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육식이 건강에 좋은 안 좋은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이유가 어찌됐든 이로 인해 수많은 동물이 죽어간다는 것이다.

몸도 마음도 불안정했을 시기에 나는 줄곧 '세상에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의 크기에 상관없이 고통받는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동물권과 환경에 대해 공부해보니, 세상에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던 내가 되레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다. 알 수 없는 회의감과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환경, 동물권, 건강. 세 가지 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육식'이라는 한 단어가 이들의 고통을 유발했다. 한 번의 육식이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한 번의 채식이 세 가지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채식을 지향해야겠다는 의식이 더욱 강렬하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26년간 한결같았던 식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보통 채식을 지향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불편한 시선과 말들 속에 상처받고 무너지기 쉽다고 하던데 나의 난관은 '나' 자신이었다.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고 하필 돈가스를 가장 좋아했다. 다른 대책을 찾기 위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한참 떠올렸고, 번뜩 생각난 음식이 안타깝게도 치킨마요였다. 갈수록 태산이었다. 처음엔 불타는 의욕에 매일매일 채식을 지향하자 다짐했지만, 현실은 짧으면 하루, 길면 2-3일 동안 지속되고 무너지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오히려 자괴감과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채식을 지향했다가는 내 몸과 마음이 먼저 망가지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편히 갖자고 결심했다. 육류 섭취를 완벽히 끊어내기보다 우선 천천히 줄여가자고 생각하니 한 달, 두 달, 넉 달 시간이 흐를수록 느리지만 확실히 육류를 섭취하는 횟수가 줄어갔다.

나는 완벽한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동물권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그저 사람이든 동물이든 감정을 느끼는 존재들이 '고통'이란 감정만큼은 최소한으로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완벽한 채식주의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마주하며 동물과 인간이 무탈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날까지 채식을 지향할 것이다.

제육볶음 러버의 반성 일기

올림

나는 어린 시절부터 고기 없이는 밥을 잘 먹지 않는, 지금도 매 끼니 고기 반찬이 있어야 든든하게 밥을 잘 먹었다고 배를 두드릴 수 있는 지독한 육식주의자다. 그러니 회사 근처마다 흔히 있는 백반집에 가면 내가 고르는 메뉴는 당연히 제육볶음이었다. 너무 제육볶음만 주문하나 싶어 주위 동료들에게 머쓱해질 때는 괜히 '제육볶음 러버'를 자칭하기도 했다. 그런 식습관을 가지다 보니 어느새 채소만 들어 있는 음식은 꺼려졌다. 특히 회사에서 채소만 있는 점심을 먹으면 무지막지하게 배가 고프다. 채소를 먹어도 포만감은 유지되는데, 괜히 채소를 먹으면 배가 고프는 심리적 허기를 느껴왔다. 그러니 내게 채식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 많은 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했다. 누군가 돼지와 소, 닭을 기르는 데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했다. 즉 자연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비판 의식 없이 많은 양의 고기를 먹어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물론 그 이후로 극단적 채식주의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번 제육볶음을 주문하는 선택의 10분의 1 정도는 줄이려고 노력한다. 또 무분별하게 고기를 먹어온 내가 육식 섭취에 문제 의식을 가졌다는 것에 크게 안도하고 있다.

최근 친구랑 약속 시간과 만날 장소를 고르면서 고기를 먹기로 했다. 고기 얘기가 나오자 친구는 정말 맛있는 양고기를 먹었다며 식당을 추천했다. 어린 양만 취급하는 식당이었다. 어린 시절 영계로 튀겨서 맛있다고 자랑하던 돌돌치킨이 생각났다. 애석하게도 어린 시절의 나는 돌돌치킨을 참 좋아했다. 나도 모르게 '어린 데다 살이 여리니 맛있을 수밖에'라고 생각했지만, 내게는 이미 문제 의식이 자리한 터, 내가 보낸 답장은 "잔인하

다, 너"였다. 그러면서 고기 메뉴는 좋다고 하는 나. 내가 보기에든 모순 덩어리다.

고기를 워낙 좋아하는 데다 매 끼니 먹어온 터라 고기를 줄이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하루 한 끼라도 고기를 먹지 않도록 연습하고 있다. 이왕이면 채소를 구워 먹거나 대신 달걀이나 두부를 먹는 것으로 천천히 채소와 친해지는 중이다. 이 연습을 계기로 고기를 적게 먹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싶다. 요즘은 서브웨이만 가도 콩으로 만든 고기가 있으니, 나에게 맞는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며 제육볶음 러버에서 미트 프리데이를 지키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실천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월요일 저녁의 소화행인 교촌치킨 레드콤보부터 끊어야 하는데... 잘할 수 있겠지?

보이지 않는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

이정요

내가 비건이 된 이유는 단순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비건인 이유는 세상살이만큼이나 복잡하다. 고기가 싫어서도 아니고, 채식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동물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해서도 아니다. 내가 지내온 세월에서 받은 영향들이 얽히고설켜 날 여기까지 이끈 것인데, 사람들은 참 쉽게도 묻는다. “왜 채식을 하세요?”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바람이 차갑던 날 친구는 손바닥만 한 책 한 권을 소개했다. 자기는 이 책을 읽고 비건이 되었다고 했다. ‘비건? 그게 뭐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 같았다. 매일 아침 사과 한 개와 달걀 세 개를 먹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낙지볶음인, 기운이 없을 때는 혼자서라도 고기를 구워 먹는 내게 친구의 이야기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책 내용이 궁금했지만 다 읽고 나면 나도 비건인가 뭔가를 하게 될까 봐 책 읽기를 1년이나 미뤘었다. 책¹⁾은 우연한 기회에 내 손에 들어왔고, 그렇게 난 비건이 되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언제나 짝궁처럼 내 옆에 붙어 있고 싶어 해 ‘접착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나 비건이 되었어”라고 고백했다. 상의도 없이 갑자기 통보를 받은 느낌이라 당황스럽다는 그에게 “그냥 내가 비건이 된 거고, 넌 그냥 먹던 대로 먹으면 돼. 너랑은 상관없는 일 이야” 했더니, 그게 어떻게 상관없이 있을 수 있느냐며 펄쩍 뛰었다. 나는 주로 ‘접착이’와 밥을 먹는다. 먹지 못하는 게 생겼으니 자연스럽게 메뉴 선택권은 나에게 넘어왔다. 내 식생활이 바뀌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접착이’다. ‘접착아, 네 말이 맞았다.’

술 생각이 나는 날이면 맥주를 사 들고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 모든 결정을 타인의 취향에 맞추는 배려 깊은 친구인데, 가치를 싫어한다. 그런 친구에게 ‘가치를 먹어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라며 술안주로 가지부침을 내놓았다. 친구는 생각보다 맛이 좋라며, 자기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다고 했다. 이 친구는 결혼을 앞둔 친구의 브라이덜 샤워²⁾ 파티에 초대받았

고, 초대받은 사람 중에는 비건도 있다고 했다. 내 친구는 비건인 친구를 위해 가지부침을 해보겠다며 “가지부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하고 나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스럽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 내가 채식 시작한 것은 친구의 책 소개 덕분이고, 나와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짝궁은 함께 채식 시작했다. 비건 친구를 위해 장을 본 내 친구의 행동은 채식하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쳤으리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머무는 공간이 다르다고 해서, 시간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여겼던 관계들이 비건이 되면서부터 다르게 인식되었다. 동물이 무섭지만 그가 지닌 생명이 나에게도 소중한 건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선생님, 선생님이 채식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하고 묻는 학생이 있었다. 그 질문에 그냥 웃고 말았지만, 난 세상을 바꾸려고 채식하는 게 아니다. 내 행동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고, 그 보이지 않는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걸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뿐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너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담겨 있을 뿐이다.

1) 많은 사람이 비건을 시도하게 만든 책이지만 강한 책.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이다.

2) 결혼을 앞둔 신부를 위해 친한 사람들이 모여 축복해주는 서양식 잔치.

채식도 음식 취향이다

이지영

채식은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도 드물고 채식 레스토랑도 드물다 보니 채식을 접할 기회 자체가 적었다. 채식을 시도할 만한 기회를 찾기도 어려웠다.

그러다 영국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많은 친구가 채식을 하는 게 신기했다. 자기가 원해서 채식을 시작한 친구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하는 친구, 가족들이 채식을 하여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채식을 접한 경우도 있었다. 채식하는 친구가 많아 학교 카페テリア에도 채식 메뉴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채식을 매우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나에게서 신세계였다.

학교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에 가도 어렵지 않게 채식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다. 채식은 맛있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고기가 들어 있는 음식보다 맛있는 메뉴도 많고 종류도 엄청 다양했다. 샐러드부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레시피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새로운 음식 문화를 접한 것 같았다. 특히 프렌차이즈 음식점인 서브웨이, KFC, 버거킹은 채식 메뉴를 따로 개발했는데, 다양한 음식 문화를 존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레트로 식품이 발달하여 마트에도 채식 코너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나도 자연스럽게 채식 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고기를 먹는 나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었으며 콩고기도 특유의 비린 맛 없이 음식과의 조화가 매우 좋았다. 이러한 환경 덕분인지 영국에서 지내는 동안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고기를 잘 찾기 않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고기를 찾았는데 어느 순간 2주에 한 번씩만 고기를 먹었고, 나중에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러다 중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집에서는 나의 의지대로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었지만 친구들과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채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적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었다. 한번은 채식을 하는 친구와 채식당을 찾아갔지만 버섯으로 만든 요리가 주 메뉴이고 다른 메뉴는 없어서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

그 친구와 한국에서 채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일단 채식 메뉴가 적어서 외식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실제로 겪어보니 음식의 폭이 너무 적어 메뉴를 선택할 때 고르기가 매우 어려웠다. 채식도 음식에 대한 선호도다. 맛있는 음식이 많고 빠르게 개발되는 대한민국에서 채식 메뉴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게 아쉽다. 채식도 하나의 음식 문화로서 빠르게 주류 문화가 되길 바란다.

선택의 무게

입정은

초등학교 때 동네를 걷다 마주치던 반려동물 분양 가게를 떠올린다. 비좁은 플라스틱 통에 갇힌 강아지가 불쌍한 줄도 모르고 귀엽다며 한참을 서성이며 구경하던 때도 있었다. 그 조그만 생명들이 인간에 의해 강제로 교배되어 태어났다는 건 머리가 크고 나서야 알게 된 일이다.

인간에겐 모든 일이 손쉽다.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생명을 쉽게 사고팔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버리는 일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내 가구 중 4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늘어났다. 울여름 휴가철에 버려진 반려동물이 자그마치 1만여 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이 비단 반려동물에만 적용되는 문제일까. 평상시 우리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동물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가 사랑해 마지않는 치킨부터 삼겹살과 소고기까지. 우리는 종종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지 자주 잊는다. 저녁 식탁에 놓이기 위해 동물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알게 된다면 결코 전과 같이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많은 이가 채식에 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한국은 아직 채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비건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독일 등 이미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거리에서 손쉽게 비건 식당을 찾아볼 수 있고 마트에서도 쉽게 비건 제품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대신 유기견을 입양하고, 완벽한 채식주의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동물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다. 삶은 생명을 죽이지 않고도 충분히 풍성해질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순간의 선택이 지닌 무게를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

하나에서 시작하여 전부로

장철완

2018년 3월, 스위스는 동물보호법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다소 유별나 보이는 항목이 있다. 의식이 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항목이 그렇다. 2018년 6월에는 이탈리아 대법원이 '산 바닷가재를 요리 전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선뜻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이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

과거에는 무척추동물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징어나 바닷가재, 문어 등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만약 낙지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산낙지는 얼마나 끔찍한 음식이 되는가. 잘린 다리 한 점을 입 속에 넣었을 때 혀에서 느껴지는 빨판은 사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절규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혹자는 말할 수 있다. 그게 뭐가 잘못인데? 소나 돼지는 죄의식 없이 먹으면서 바닷가재는 고통을 느낀다고 안 돼? 다른 동물들은 거리낌 없이 죽이면서 왜 안 돼? 맞는 말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봐오지 않았다.

개 패듯이 하다는 말은 실제로 개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던 시절에 나온 말이다. 살아 있는 개를 나무에 묶어놓고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때렸다. 오로지 개고기의 육질이 연해지기를 바라면서 한 행동이었다. 지금은 어떨까? 누군가 개를 나무에 묶고 패기 시작한다면 특출난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경찰에 신고할 테고 경찰은 당연히 제지할 것이다. 동물 구타는 이제 사회에서 용납되는 행동이 아니다. 한 사회의 인권을 보려면 동물의 처우에 주목하란 말은 실로 적절하다.

세계의 흐름에 맞춰 한국 역시 동물권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8년에는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가 헌법에 포함되는 개헌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시민들과 많은 동물권 단체의 지지

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야당의 의결 불참으로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2020년 대선 기간에는 동물권 총선 대응 연대가 각 정당에 동물권 관련 개헌을 공약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 표를 행사할 때 동물권에 대한 정당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것도 동물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 그리고 동물권에 대해 모든 국민이 같은 의견은 아니라는 걸 안다. 동물을 싫어하고 존중하지 않아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색하고 유별나 보이는 의견이기에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 한국에서도 개를 패지 말자, 조금 더 동물을 존중해주자란 말이 유별나고 가식적으로 보인 시기가 있었다. 어차피 먹을 개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선 떨지 마라! 하지만 의식의 발전은 그 위선을 생명 존중 사상으로 바꿔놓았다. '전부가 아니면 전혀'라는 인식은 동물권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곧 하나에서 시작해 전부가 되는 순간이 오길 바란다.

왜 채식을 안 하세요?

정다정

유년 시절 주말마다 외숙모네 놀러 가는 일은 너무 좋았다. 우리 집에 없는 스팸이 반찬으로 늘 올라왔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친척들과 옹기종기 밥상에 모여 있으면 외숙모는 아낌없이 스팸과 달걀프라이를 주었고, 나는 우와, 감탄하며 빠르게 많이 먹었다. 지금은 그런 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되었다. 나는 육류라 불리는 모든 것을 먹지 않는 4년 차 페스코이며 최근에는 비건지향인이 되고자 한다.

채식의 시작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을 못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다. 유튜브에서 ‘공장식 축산’을 검색하고 영상을 본다면 지금 당장 고기가 없는 메뉴를 찾고 싶어질 것이다. 고기뿐만 아니라 생선, 유제품 등 모든 것이 식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먹는 일에 지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채식을 시작했다.

얼마 전 호프 자련의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를 읽기 시작했다. 모든 인류가 먹을 만큼 고기를 생산하고, 고기 생산을 위해 쓰이는 곡식과 약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설명하는 부분을 읽는데 속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반려인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명절 선물로 받은 스팸을 구웠다. 냄새를 맡자 속이 울렁었다. 어릴 땐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제는 냄새를 맡는 것도 역겨웠다. 냄새를 피해 급히 방으로 자리를 옮기며 “지금 공장식 축산 부분을 읽는데 도저히 이 냄새를 못 맡겠어”라고 말하자, 반려인은 더 자세히 말하지 말라며 허겁지겁 먹고 나서 “미안해”라고 사과했다.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방에서 책을 읽으며 반려인의 말을 되뇌었다. 자세히 말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알면서도 먹는다는 이야기였다. 아이러니한 말이었다.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 먹는다는 이상한 말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내게 채식하는 이유를 묻는 일이 많

다. 그 질문에 공장식 축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미간을 찌푸렸고, 간혹 “뭔지 알아”라고도 말하지만 육류가 들어간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또는 너무 맛있어서 다시 먹고 싶지 않냐며 평온한 인상으로 내게 먹으라고 끊임없이 권유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신기하며 묻고 싶어진다. ‘왜 채식을 안 하세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모습을 보면 질문을 하는데, 환경의 역습으로 코로나19와 미세먼지, 기후 위기가 넘치는 세상에서 여전히 채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 ‘그냥’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답하기엔 마스크를 낀 세상에 대해 당신은 몇 번이나 지쳐서 고개를 흔들었는지 모른다.

주꾸미와 수평아리와 젓소 -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정현주

2020년 초 부산 여행을 했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기 전, 정체 모를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소식에 하루 여행으로 변경했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다. 당분간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다. 문득 겨울 바다가 떠올랐다.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러 평일에 부산으로 향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목적지 입구에 도착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중국음식점으로 갔다. 나는 짜장밥을 주문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하얀 밥과 해산물이 가득한 짜장 소스, 매콤한 짬뽕 국물이 나왔다. 소스를 조금씩 덜어 밥에 비벼 먹었는데, 한 숟갈 때마다 새우, 오징어 등 해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주꾸미도 나왔다. 동그란 머리에 탄력 있게 말려올라간 다리들. 온전한 모습의 주꾸미를 보고 순간 욕지기를 느꼈다.

언젠가 스위스에서 살아 있는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하면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갑각류(랍스터, 게 등)와 두족류(오징어, 문어 등)의 취급에 대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랍스터도 고등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그때 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애초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이상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TV 속에서 펄펄 끓는 물에 입수되는 낙지, 뜨거운 소금 위에 올려지는 새우,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찢기는 게 등 인간이 맛있게 먹기 위해 산 채로 조리되는 동물들이 눈에 띄었다. 그 옆에서 맛있겠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대조되었다. 짜장 소스 속 온전한 모양의 주꾸미가 어떤 방식으로 요리되었을까. 상상되기 시작했다. 맨밥에 진갈색 짜장 국물만 비벼 배를 채우고 나왔다.

나는 달걀과 두부 등 몇 가지 식품은 꼭 유기농 매장에서 구매한다. 그곳의 달걀은 모두 유정란인데, 이게 항상 찝찝했다. 동물복지 인증 달걀이라 사긴 하는데, 생명이 될 수도 있었던 유정

란을 먹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그러다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의 수평아리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실마리를 얻었다. 성별 감별을 통해 걸러진 수컷은 알을 낳을 수도 없고 성장 속도도 더디기에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버린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40~60억 마리로 추정된단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수평아리는 태어나자마자 산 채로 죽음을 당하고 있었다. 그나마 유정란은 수탉이 살아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씁쓸하게 짐작했다.

궁금증은 젓소로 이어졌다. 같은 포유류인 소는 365일 젓이 나온다는 것이 이상했다. 이번 글을 쓰며 찾아봤다. 젓소의 우유 생산량이 아닌 산업 속 젓소의 생애는 알기 힘들었다. 지난 2월 관련 시위를 취재한 『한겨레』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젓소는 철저히 우유를 위해 태어난다. 바로 어미와 분리되어 성별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수송아지는 거세되어 고기를 위한 육우로 자라고, 암송아지는 엄마처럼 젓소가 된다. 젓소도 인간처럼 임신과 출산을 해야 젓이 생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다. 암송아지는 약품을 통해 일찍 발정기를 맞고 이른 첫 임신을 한다. 이내 출산을 하고 바로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젓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권장하는 적정 착유일 수는 305일이다. 60일 동안 젓을 말리는 건유 기간을 갖는데, 이는 우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젓소는 365일 중 305일 젓을 짜고, 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다시 착유를 당한다. 젓소의 평균 수명은 30년이지만, 우유 생산에 동원되는 젓소는 7~10년을 산다.

육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정도를 지나쳤다. 우리는 고기와 동물을 연관 짓지 못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견고해진 산업을 부수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소비가 줄면 산업의 규모가 작아진다. 더 이상 빨리 생산할 필요가 없으면 동물들이 덜 힘들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완벽한 비건(동물성 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자)보다 다수의 비건식 한 끼가 효과적이라고 한다. 철저한 비건은 어렵지만 한 달에 하루, 일주일에 한 끼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동물권과 채식이 이어지는 이유는 인간의 육식에 너무 많은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러 해보자. 고기나 해산물, 우유, 달걀 중 자신이 불매하기 쉬운 것부터 줄여보자. 그리고 계속 얘기하자.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자신의 한 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눈앞에 온 것인지 알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변하리라 믿는다.

더 이상 망각하지 않도록

차지양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난 베지테리언과 비건 친구들의 영향으로 나 또한 비건이 된 지 막 1년이 되어간다. 처음에는 몇 개월간 락토오보 정도의 채식으로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베지테리언, 비건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외치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그저 고기와 유제품 소화를 잘 못 시키고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입맛의 이유가 컸다.

그러던 중 베지테리언 친구의 추천으로 다큐멘터리 『What you eat matters』를 보았는데,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전반적으로 보여주었다. 행복한 가면 뒤에 가려져 목살되는 현 시대 축산업의 끔찍한 현실을 목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눈물을 흘리며 꽤 오랜 시간 말을 잃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입맛과 음식 자체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 나의 비건 생활 원동력을 조금 더 진지하고 복잡한 주제들(동물권, 생명 존중, 환경 등)로 연결해주었다.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동물은 숨을 쉬고 고통을 느끼며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었다. 그저 자본을 위해 유통되는 '물건'에 불과했다. 멀쩡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던지고 때리고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한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를 너무 당연하게 일삼고 있었다. 그렇지만 과연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그들만 가해자로 몰아세울 수 있을까? 어떠한 행위들이 이뤄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피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 그러한 행위에 동조하며 소중한 생명체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공범이다.

나 또한 한때 매우 무지했고, 관심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생명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당하다고 여겼던 나의 태도가 너무나도 거만하고 위선적으로 느껴져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무지함에서 오는 거만함과 오만함이, 나와 같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생명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경우 반려동물이자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며 격하게 반대하곤 한다. 그리고 소, 돼지, 닭, 오리 등 다른 동물의 삶은 아무런 불쾌감 없이 섭취한다. 무엇이 달라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따져보면 사실상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감정'에 기반한다. 그저 우리가 강아지, 고양이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에게 인간과 같은 애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소, 돼지, 닭, 오리 등은 일상 생활 속에서 가까운 관계를 가진 일이 없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지를 방해할 감정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달려가서 소, 돼지, 닭과 유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조금만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그들도 반려동물, 조금 더 나아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선택적 종차별로 불필요하게 고통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억하자는 것이다.

동물권과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로만 들려주면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보통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동의하는 데 그치고 그새 망각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곤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내용이 어렵지 않은 다큐멘터리가 여러 가지 있으니, 단 하나라도 찾아서 보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추천한다.

이중적 마음

최지희

이번 주제는 유독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소통하는 존재가 옆에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채식에 대한 의견은 많을 듯하여 짧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육식을 너무 좋아하고, 매 끼니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맛도 모르면서 초록색 음식은 일단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이어트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단을 실행하면서 채소마다 개성 있는 맛을 느끼고, 불호에서 약간 호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반려동물과 식용가축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확신이 들면서 점점 더 채소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트나 장을 보면 최대한 채소 위주로 구매하지만 그래도 고기를 먹을 때 참 행복해하는 모습에 이중적인 마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고 존중해야 하지만 무조건 채소는 싫다면서 육식을 당연시해온 걸 조금 후회하긴 합니다.

그리고 채식보다는 동물권에 대한 사람들의 이중적인 마음과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한 지 5년째지만 가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함께 있어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반려견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생명체라고 소개하면서도 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존재조차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데 다른 유기동물을 돌보거나 후원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들이 더욱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웹툰 「개를 낳았다」는 반려견 한 마리로 인해 변화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보호자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다룬 많은 웹툰이 임시 보호의 현실 등 현실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항상 웹툰을 보며 반성하면서도 스

마트폰을 붙잡고 반려견을 바라보지 않는 나의 모습 또한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친구와 함께 있을 땐 눈을 더 마주치고 한 번 더 안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위 이야기들이 저의 이중적인 마음과 죄책감이었다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이중성도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여미지보호소는 작년 7월 초 운영을 맡은 소장이 후원금을 가로채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봉사자의 의해 발견되었는데 당시 100마리의 강아지와 20마리의 고양이가 폭염으로 탈진한 상태였으며 별이 된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권리를 양도받은 또 다른 관리자(민주맘)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후원금을 받았지만 이 관리자도 12월에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봉사자들이 후원금과 봉사, 물품, 입양 등 모든 시설 운영을 맡으며 유튜브 광고수익금으로 아이들 후원금을 채우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지켜 주기보다 약한 자의 것을 탐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유독 동물권에 대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협업 형태로 보여주는 듯한 동물 학대인 돌고래 쇼, 원숭이 쇼, 서커스의 동물 쇼 등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더 이상 박수가 아닌 질타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동물은 구경거리가 아닌 보호 대상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배려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인간은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마음을 갖더라도 도덕적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지구

표승희

어느 날 외국에 사는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다. 한 명은 인도 사람, 한 명은 터키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은 프랑스 사람이었고, 그들은 자기 문화에 따른 식습관을 갖고 있었다. 힌두교도인 인도 사람은 소고기를 먹지 않았고, 이슬람교도인 터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리고 종교는 없지만 프랑스 사람은 각종 알레르기 때문에 차라리 채식주의자가 됐을 만큼 식습관이 까다로웠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음식은 대부분 고기가 들어 있다.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혹은 멸치 육수든 동물을 바탕으로 한 식자재를 이용한 음식이 가득한 이 나라에 모인 다양한 친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한국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집에 가서 고기와 달걀을 뺀(그리고 고추장을 많이 뺀) 비빔밥을 먹었다. 함께 곁들여 나온 음식에 어떤 식자재가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느라 한국인 친구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하다못해 사이드로 나오는 시금치된장국의 육수를 뒤편 끓였는지 알아내느라 진을 뺐다고 한다.

이토록 우리가 먹는 식자재는 다양하다.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고기라는 것을 다양하게 또 많이, 자주 먹기 시작한 걸까? 저들을 보면 인간은 소고기가 없어도, 돼지고기가 없어도, 어쩌면 고기를 먹지 않아도 모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수렵생활을 하던 아주아주 먼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매일 들판으로 숲으로 나가 사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이 잘되지 않아 동굴 식구들에게 타박받는 것이 지겨워진 누군가가 평상시 즐겨 먹던 동물을 집으로 데려와 번식시켜서 사냥의 번거로움을 덜었을 것이다. 인간의 게으름이 어떤 혁신을 가지고 온 셈일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흐른 뒤 농장은 또 하나의 직장이 되었고, 영악한 인간은 또다시 어떻게 하면 쉽게 많은 양의 고기를 생산해낼지 고민한 끝에 동물을 제품처럼 찍어내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낸다. 동물들을 들판에 풀어놓지 않아도 되게끔 가뒀

놓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사료와 배식 기계를 개발해내고, 최소의 부지에서 최대한의 동물을 찍어내기 위한 공장식 우리를 고안해낸다. 이제 동물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산업화와 함께 등장한 대량생산 제품과 같은 ‘고기’ 제품이 되었다.

이제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기 전 우리의 ‘고기’ 제품이 어떤 취급을 받으며 생산되었는지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대표 고기인 돼지고기 삼겹살을 예로 들어보자. 유난히 삼겹살을 좋아하는 국민성 덕에 돼지 농가에서는 돼지의 삼겹살이 되는 뺏살을 더 많이 찌우기 위해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이용한 사료를 먹인다. 그리고 머리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돼지 ‘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다가 어떤 돼지가 어디서 옮겨 왔는지 구제역이라는 병에 걸려버렸다. 비상이다. 엄청난 양의 돼지가 생매장된다. 매장된 돼지들이 안타깝지만 이기적인 인간은 자신부터 살고자 한다. 그들을 파묻은 인간은 우리의 땅이 오염되는 걸 안타까워하며, 한 마리의 돼지라도 남아 있을까 봐 걱정한다. 그리고 구제역으로 물들지 않은 청정의 땅을 찾아 다시 돼지 사육을 시도하지만, 이미 관광 상품으로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그 지역 주민들은 돼지고기 ‘제품’의 배설물이 인근 청정수를 오염시키고 메탄가스 때문에 악취가 퍼지는 걸 걱정하며 금지막한 결사 반대 플래카드를 걸고 반대한다.

사머니즘, 토테미즘 등으로 자연과 동물을 경외해오던 인간은 이제 없다. 하지만 동물복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켜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게 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희망적이다. 당장 고기 ‘제품’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의식이 생겨나고 퍼져나간다면 지구는 점점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 한 꼬마아이가 엄마와 하는 대화를 들었다.

“엄마, 지금 코로나가 퍼지는데, 왜 병 걸린 사람은 땅에 안 파묻어? 돼지들은 파묻는데?”
이 아이는 훗날 이 나라의 일꾼이 될 예정이다.

동물권에 대해서

함영현

공생하는 사회라는 말이 부끄럽게 우리는 공생하지 않는다. 지구 안에서 우리와 공생해야 할 존재는 자연과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공장에서 매연을 내뿜고 식용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않다. 단순히 즐거움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서커스의 용도로 포획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훈련하는 장면은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이런 문제를 보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사람들은 삶의 수준이 개선될수록 동물을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제러미 벤담은 문제는 '그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가', '그들이 말할 줄 아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가'에 있다고 말한다. 한국의 법에서 동물은,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동물의 생명을 괘시하도록 만드는 법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진정으로 고등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다른 동물 종의 존엄성 또한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 유네스코 선언문 서문에 따르면 인간이 다른 동물 종이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종이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한다.

공생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보니 단기간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노력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다. 모두가 한 걸음씩만 내디딘다면 비윤리적인 동물 학대를 비롯하여 동물에 관련된 사회 문제 또한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당장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채식해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 사회가 공생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들은 언제나 소리쳤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닌 말로

현요아

동물권. 생소한 단어가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느껴진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의 주체로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왜 육식을 그만뒀야 하는지를 다룬 글과 영상이 늘어나는 요즘이라 당장 주변만 보더라도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친구가 늘었다. 물론 여태껏 먹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 터. 친구들은 완전한 채식 식탁을 꿈꾸며 단계별로 고기를 내려놓는다. 몇몇은 일주일에 3일만 고기를 먹겠다고 선언한 덕분에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고도 비건 카페나 식당을 당당히 권한다.

부끄럽게도 채식주의자, 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인식이 들었다. 그들은 왠지 간간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며 고기를 먹는 이를 아니꼽게 여기는 사람일 거라고. 당연하게도 아니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끼만 고기를 줄여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라고 엄지를 올렸고, 자신만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이었다. 나는 이슬아 작가의 말에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여러 사람이 한 끼만 채식하더라도, 한 명이 완벽한 채식 식단을 고수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주었다. 돼지부터 닭, 해산물까지 모든 고기를 끊지 않으면 애초에 채식을 시작하지 않는 게 덜 창피할 거라고 생각한 나를 응원하는 말이었다.

나는 꽤 많은 생각을 해야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라. 왜 동물권을 주장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한 뒤에야 비로소 동물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세상에는 인권을 박탈당하는 사람도 넘쳐나는데 왜 동물까지 신경 써야 할까. 예전에는 부끄럽게도 이런 마음을 지녔다. 국내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가 많은데, 굳이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까지 돕자며 팔을 걷어붙이는 건 과한 오지랖이라는 식이었다. 눈앞의 온정에만 몰두한 이기적인 마음이었다.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부모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사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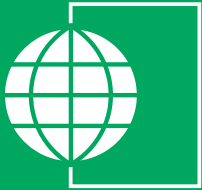
고,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그러나 동물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힘을 다해 소리 지르더라도 인간의 언어가 아닌 관계로 튕겨나간다. 나는 숨을 쉬고 싶다고, 도축장이 아닌 넓은 잔디에서 뛰어놀고 싶다고 말해도 굴삭기에 들러 무참히 땅속으로 파묻힐 뿐이다.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지구에서 숨 쉴 가치도 없다고 여겨진다. 오로지 인간의 욕구에 의해 태어나 인간의 판단으로 삶을 매듭짓는다. 심지어는 전염병의 가해자로 지목받는다. 우리는 강아지에게 반려견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돼지에게는 반려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부위를 갈기갈기 찢개어 굽고 데치고 삶아 식탁에 올릴 뿐이다.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은 늘 역지사지를 입에 달고 사셨다. 나는 제육볶음과 인간의 입장을 바꿔본다. 슬퍼하면서도 입맛을 다시는 나를 타자화하며 바라본다.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거짓말을 너무도 오래 믿었다. 이제 와서 채식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며 체념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며 콩고기를 씹는다. 아주 오래오래.



실천,
환경보호
일지

4





4주 동안 환경보호에 대해 의식하고 직접 실천한 사례를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4주 동안의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일지를 적어주세요. 끊임없이 인지하면 결국 우리는 좋은 쪽으로, 또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 환경보호 일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딱 열 발자국이면 집의 끝과 끝에 도달하는 좁은 원룸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공간 구석구석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나는 참 많은 물건을 끌어안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건이 넘쳐나서 집이라는 공간이 내가 쉬는 곳이 아니라 물건들을 놓아두기 위해 마련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쓰레기봉투를 따로 둘 공간이 마땅치 않아 신발장 옆에 두는데, 하루만 지나도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와서 신발장이 금세 비좁아집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뒤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일회용품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 자

연스럽게 밖에서 만나는 약속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받아 식탁에 죽 늘어놓으면 넓은 식탁을 다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뿐인데 이렇게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고 말려서 버리는 것으로는 더 이상 위안을 얻을 수 없어서 환경보호 실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블로그와 기사를 읽다가 서울환경연합에서 시행하는 플라스틱 방앗간 프로젝트를 발견했습니다. 페트병 뚜껑을 모아서 플라스틱 방앗간 측에 보내면, 그것을 분쇄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준다기에 바로 신청하고 그 뒤로 뚜껑을 모으는 중입니다. 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너무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 공정에서 분리하기 어려워 재활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았다면 계속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여 잘못 분류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물건을 적게 쓰고 조금만 사들이자는 다짐을 자주 합니다. 휴지를 두 장씩 뽑아 쓰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고치는 중이고, 설거지가 귀찮아 나무젓가락에 손이 갈 때도 한 번 더 생각한 뒤 쇠수저를 뽑아 듭니다. 귀엽고 아기자기하다는 이유로 사 모으던 인형과 열쇠고리도 지금 나에게 당장 이 물건이 없다고 해서 내 생활이 불편해질까라는 생각을 하며 소비를 막습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어 의식 없이 살아온 날들을 수습하는 느낌만 들지만, 계속 환경보호에 대해 생각하고 진지한 태도로 다가가다 보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폭죽 터지듯 경쾌하게 나의 일상을 바꿔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기다려지기에 더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요즘입니다.

다음 주말에는 포장지를 쓰지 않는 가게에 들러 장을 보려고 합니다. 신문지에 싸인 과일이 조금 낫선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익숙해지고, 또 친해지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생각하며 사는 삶

고서영

어느 날 별생각 없이 회사 복도를 걷다가 분리수거함에 엉망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보며 생각했다. 저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때마침 환경미화 선생님이 지나가서 여쭙보니 시설팀 직원들이 뒷마당에 펼쳐놓고 재분류를 한다고 했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 버릴 때 제대로 버리는 게 가장 좋겠다. 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어서 직원들이 분리수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림 이미지를 활용한 분류안내문을 만들어 분리수거함 앞에 붙여 놓았다.

그 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완벽하게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뿌듯하다.

분류안내문을 붙인 뒤로 왠지 모르게 나부터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상을 돌아보았다. 하루에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는지,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했다.

내가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쓰레기는 점심 먹고 카페에 들러서 생기는 음료컵, 컵홀더 등이라는 걸 깨달았다. 물론 텀블러를 쓰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챙기기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잘 생각해보니 매일 마시는 음료 값을 두 달만 모아도 커피머신을 집에 둘 수 있을 것 같았다. 커피머신을 이용할 경우 커피캡슐이라는 또 다른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캡슐을 모아두면 수거해 가는 브랜드가 있었다.

수거한 캡슐의 알루미늄 부분은 자동차 엔진, 자전거, 컴퓨터, 음료캔 또는 새로운 커피

피캡슐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커피 찌꺼기는 영양분이 풍부한 비료 또는 녹색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말에 커피머신을 사볼 용기가 생겼다.

이제 매일 아침 커피머신으로 내린 에스프레소를 작은 유리병에 담아서 출근한다. 회사에 도착하면 텀블러에 옮겨 담는다. 생각해보면 작은 변화일 뿐이지만 이런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불러올 변화의 바람은 클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터, 환경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좋겠다고 생각해보는 하루다.

작은 실천

김보아

말과 글에는 힘이 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말과 글은 나의 다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 같다. 올해 초 처음 채식할 때는 몇몇 친구한테만 이야기하고 속으로 다짐하는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채식한다는 말을 못(안) 해서 그냥 어울려 고기 먹는 나를 발견했다. 약간의 자괴감에 빠져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인스타그램에 '저 올해부터 채식을 시작했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때부터 내가 한 말에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열심히 채식을 했다.

이번에 참가한 지구백일장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 지구백일장을 신청할 즈음 배달음식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배달음식을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자꾸 다짐에서 끝날 뿐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리고 첫째 주 글을 쓰면서 내가 내뱉은 말과 글에 책임감을 느꼈다. 첫째 주 글에서 코로나19는 환경을 파괴해온 인간의 자업자득이며 나 역시 기후 위기에 일조해왔다고 고백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글에 반성과 다짐을 쓰고 나니 말뿐 아니라 정말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달라지는지 지켜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가장 먼저 배달의 민족 어플을 지웠다. 내가 만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이 배달음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배달 어플을 지우는 것은 가장 큰 실천이었다.

가장 어려웠지만 단순한 실천을 한 뒤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만들던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일단 멈추는 순간이 생겼다. 바닥에 묻은 얼룩을 지울 때 항상 물티슈를 이용했다. 걸레를 사용하기엔 좀 귀찮고 물티슈로 한두 번 쓱쓱 닦으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당연하게 물티슈로 향하던 손에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몸을 돌려 걸레를 빨아 왔다. 한번은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갔다. 카페는 여전히 텀블러를 받아주지 않았다. 텀블러는 안 된다

는 말에 그냥 일회용 컵을 쓸까 잠깐 고민했지만 머그컵에 받아서 텀블러에 옮기기로 했다. 사소한 실천이지만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 그동안 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했다라면 줄일 수 있었던 쓰레기를 생각하게 되었다. 바로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는 게 아니라 용기를 들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시장에 갔더라면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별로 필요 없는 소위 '예쁜 쓰레기'를 모으는 일이나 오랫동안 좋아했던 필름카메라 찍기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았다.

마지막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다짐한다. 나와 연결된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지구 자체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겠다.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만들어냈던 작은 습관과 취미생활을 돌아보고 다방면으로 쓰레기를 줄여가는 생활을 해야겠다. 곧 싱글라이프가 끝나는데 함께 살 사람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천천히, 꾸준히

김지안

플라스틱에 의존하는 생활을 접으려면 소비 습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딱히 필요하지 않아도 산다거나 할인쿠폰과 1+1에 홀려 습관이자 취미처럼 쇼핑하는 생활을 청산하고자 물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언제부터가 물건에 집착이 생겨 정리하는 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 꼭 필요한 물건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보니, 필요 없는 물건을 생각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은품이나 할인쿠폰에 혹해서 굳이 소비할 제품을 찾았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에겐 필요 없지만 쓸 만한 물건들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나눔 글을 올려놓으니 예상보다 많은 연락이 왔다. 쓰레기로 취급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물건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니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경각심을 주었다. 마케팅에 현혹되어 유행하는 신상품을 찾기보다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중고로 구입해야겠다는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다음은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인스턴트식품을 최대한 줄이고 배달 앱도 삭제했다. 육식보다는 채소나 해산물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고 되도록이면 포장하지 않은 식재료를 구입했다.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에코백을 휴대하고 빈 화장품 용기를 모아 공병을 수거하는 업체에 갖다줄 예정이다. 플라스틱 대체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 리스트에 올리고, 이 습관들이 익숙해진다면 고체 세제 사용에 도전해봐야겠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도 차근차근 알아가는 중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다양한 방

법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걸 보며 미리 실천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작은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모두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어렵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편의에 익숙해지다 보니 당연한 것들도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 물건을 구입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고, 성분을 고려하는 등 지구를 위한 소비 습관을 기르도록 꾸준히 노력해야겠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말자! 이 거창한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다. 잘 못하면 강박에 시달려 나를 괴롭힐지도 모르지만 유연성을 갖고 천천히, 꾸준히 실행할 계획이다.

나와 너로 우리가 되는 방법

김희라

편리함이 우선순위에 있던 삶에서 누군가의 희생 대신 함께 사는 기쁨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서서히 바뀌어나갔던 삶의 변화구를 추적하기 위해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10여 년 전 자취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마셨다. 가장 먼저 택한 방식은 어릴 때부터 익숙한 '끓여 마시기'였다. 방을 구하고 살림살이를 채워나갈 때 큰 주전자를 사서 녹차, 보리차, 옥수수수염차 등 다양한 차를 팔팔 끓여 마셨다. 그런데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자 여름엔 물이 상해서 버리는 일이 생겼다. 가스 낭비에도 괜한 노력을 들인다 싶어 다른 방법을 고민한 끝에 혼자 사는 자취생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여기며 2리터짜리 생수를 사 마시기 시작했다. 물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긴 했으나, 가장 오랜 기간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기도 했다.

분리배출하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리다 쓰레기에 파묻히지 않을까 생각하여 간이 정수기인 '브리타 정수기'를 대안으로 사용했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물만 채우면 정수가 되어 환경에 큰 해를 끼치지 않으니 쉽게 지속할 수 있다고 느껴졌다. 플라스틱 생수병 대신 분해되지 않는 필터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했지만, 한 달간 사용하니 부피가 작다는 합리화를 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미국, 유럽 등의 국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법으로 규제되어 기업에서 브리타 필터를 수거하고 재활용한다는 걸 알았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지 않고 기업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수동적인 태도를 자각하자 충격이 밀려왔다.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그건 기업이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소비자가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기업은 생산의 책임만 있고 사용하고 버리는 책임은 소비자 개인에게 있다. 한국은 단기간 대비 유례없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과

동시에 세계적인 탄소배출국이 되었다.

브리타 해킹 워크숍에서 정수 필터의 원리와 구조를 배웠다. 필터를 바짝 말린 후 흔들면 악기 마라카스처럼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데, 그건 필터 안의 숯과 이온수지 가루가 섞이는 소리다. 알고 보니 필터의 수명을 체크하는 계기판이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소비자가 스스로 물맛의 변화를 구분해가며 필터를 교체했다고 한다. 정수기를 살 때부터 계기판이 있었으니 보이는 대로 믿었다. 눈금만 보고 한 달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필터의 수명은 실제로 두세 배 정도는 더 사용해도 충분하며 염소 냄새와 물맛의 변화로 교체 주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필터에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고 시험관 뚜껑을 삽입해 이미 사용한 필터의 숯과 이온수지는 흠에 섞어서 거름으로 쓰고 플라스틱 필터 통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숯과 이온수지 가루로 채웠다.

집에 돌아와 수돗물과 필터에서 정수된 물의 냄새를 비교해보니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였다. 꽤 오랜 시간 필터로 정수된 물을 마시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던 무관심한 태도를 반성했다. 언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줄지 알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기업에서 필터를 수거해 재활용할 때까지 워크숍에서 만든 필터로 물맛을 구분해가며 나만의 감각을 찾기로 했다.

길고 길었던 식수 정착기를 추적하며 느낀 점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데서 그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에게 요구하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게 편집된 마케팅과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역할까지만 하는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근거 없는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굳이 내보이지 않을 수는 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 현재 대한민국 법률 환경의 아픔을 대변해주기에는 인간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우선순위가 아닐 때 문이다. 나조차도 한 달 동안 쓰고 버리라는 말만 믿을 뿐 필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현명한 소비자로 살아가려면 자신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한다. 나만 생각하는 편리한 소비보다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 나와 함께 존재하는 나무와 공기도 함께 포용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노현정

첫 번째 글에서 나는 기록의 힘을 믿는다고 했고,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굳은 심지와 굳건한 의지라는 재능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과욕을 부리다간 아무것도 못하고 다 포기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그래서 조금씩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스며드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번거로운,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을 하자'라고 결심했다. 지난 3주간 결심한 것은 소비 줄이기, 플라스틱 줄이기, 내가 준비하는 식사에서는 덩어리 고기 먹지 않기였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세모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슬퍼해야 할지 가위표가 아니라 다행이라 해야 할지.

소비 자체는 많이 줄었다. 쉽게 사들인 물건들을 볼 때의 허무함을 크게 느꼈기 때문이다. 제대로 쓰지도 않은 채 쌓여가는 물건과 더불어 잔뜩 부피를 키우는 쓰레기를 보며 지갑은 얇아지고 집은 두꺼워지는구나 하며 오래 허탈해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차라리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도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2주 차 글쓰기를 끝내고 브리타 정수기를 바로 구매했기 때문이다. 브리타 정수기 역시 분해되지 않는 필터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 탓하며 행동하지 않기에는 너무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 찾아보니 필터 해킹을 해서 재사용하거나 필터를 모아 브리타 코리아에 보내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브리타 어택'도 있다고 한다. 나는 최대한 재사용을 하고 싶지만 그게 어렵다면 브리타 어택에 도움이 되도록 수거하는 곳에 방문하려고 한다.

식사에 덩어리 고기 올리지 않기가 복병이었다. 고기 자체를 사는 일은 없었지만, 선물로 받은 수제 햄 세트가 촉박한 유통기한으로 나를 다그쳤기 때문이다. 이것을 거부할 만큼의 굳은

심지와 굳건한 의지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 미완성의 나를 토닥이며 소소한 다짐을 하나 더 추가했다. 육식을 찍거나 SNS에 공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내가 총동적으로 육식을 하거나 폭식을 할 때는 대부분 미디어의 영향이 컸다. 정말 먹고 싶다고 보단 누군가 하니 나도 하고 싶다는 정도의 생각이었다. 나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그런 작용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SNS에 육식을 전시하지 않기로 했다.

나의 결심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별것 아닐 수도 있다. 나 역시 턱없이 부족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부끄러움에도 계속 쓰는 것은 나는 여전히 기록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멈추지 않고 계속 덧붙여나갈 기록을, 그 기록이 바꾸는 나를, 내가 바꾸는 나의 지구를 믿는다. 나같이 어수룩한 사람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이 정도는 나도?'라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 그런 사람이 열 명이 되고, 백 명이 되고, 그렇게 늘어가다 보면 어제보다 나은 지구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작지만 분명한 변화 - 나비도, 펭귄도, 우리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독고예지

지난 4주의 일상은 언뜻 보기엔 어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했다. 다를 것 없이 하루를 시작하여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나와 테이크아웃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 피치 못할 외식에 고기를 먹으면서 사진 찍고 자랑하지 않는 것. 몸에 좋다는 크릴 오일이 펭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대신 다른 건강한 음식을 소비하는 것. 한 달 전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애써 외면한 일들이 어째서인지 하나도 성가시지 않았다. 평상시와 다른 점을 꼽자면 '지구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다'라는 생각 하나뿐인데, 그 생각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었다.

요즘 환경친화적 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음을 체감한다. 훗날 사회에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꿈이자 목표인 나에게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이상이지만, 내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앞장서서 고군분투해나가는 여러 기업을 보고 있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름을 느낀다. 그중 내가 동경하는 브랜드의 대표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의 철학이 담긴 브랜드를 만든 계기를 설명했다.

"7년 전 구제역 사태가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무심코 지나가는 뉴스 화면을 봤는데 살처분 구덩이에 살아 있는 돼지를 파묻는 장면이 나왔죠. 그런데 돼지 한 마리가 살겠다고 올라오려니까 굴착기가 돼지를 쳐냈어요. 그 모습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시다."

오가닉 브랜드를 운영해온 그 대표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동물에 1도 관심이 없었던 누군가가 동물과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기까진 단 5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인터뷰 속 글에 깊이 공감했다.

깜깜한 밤처럼 막막했던 어느 하루의 끝, 다큐멘터리에서 넘어져도 몇 번이고 덩덤하게 다시 일어나는 펭귄을 보았다. 그때 받은 큰 울림으로 펭귄이 행복할 수 있는 지구가 오기를 꿈꾸게

된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지구백일장에 참가한 계기 또한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쓴 글을 통해 누군가 한 번쯤 자연을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오늘도 그 브랜드는 누군가에게 닿아 자연을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소비로써 그들을 묵묵히 응원할 뿐이지만, 나 또한 멀지 않은 날에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 자신과 가치관을 올곧게 다듬어나가려고 한다.

지구백일장을 진행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주 동안 어렵게 고민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온 나에게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세상에 완벽한 동그라미는 몇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완벽한 동그라미는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다. 이제는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리기 위해 애쓰며 그려온 수많은 동그라미를 외면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느 날 집에 나비가 날아들었다. 어느 주말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가족들은 비명과 괴성을 지르며 나비처럼 푸드덕거리기 바빴고, 곤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우리 가족은 동시에 에프킬라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서로 눈이 마주쳤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둘러앉아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나비는 우리 가족의 의도를 알아챘는지 암전히 빨래 건조대에 앉아 숨을 고르는 듯했다. 잠시 후 우리는 모든 창문을 열고 큰 박스로 바람을 일으켜 나비가 창문으로 향하게 했다. 나비는 갈피를 못 잡고 휘청이다 이내 창밖으로 훨훨 날았다. 그 날 그 나비는 어디서 날아왔고 어디로 날아가려나. 이제는 그저 나비도, 펭귄도, 사람도 모두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내가 지칠 때마다 먼 곳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펭귄에게, 늦은 여름 저녁 선선함을 선물하는 바람에게, 매일 같은 듯 보여도 분명히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하늘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지구에게.

그들이 내게 준 따뜻함을 품어 온기가 필요한 곳곳에 전해주고, 내 안에 온기가 사라진 그 순간 다시 지구의 품으로 돌아가겠노라 약속하고 싶다. 오늘도 이렇게 작고 분명한 감사를 온 마음 다해 전한다.

희망을 새기며

서희원

주말에 이사를 했다. 그동안 살던 집에서 나오며 열 가지가 넘는 가전과 가구를 중고 거러로 팔거나 무료 나눔을 했다. ‘참으로 많이도 비웠구나’ 생각하니 나 자신이 뿌듯했는데, 이삿짐센터 트럭에 짐을 나르는 동안 몇 번을 울며 다짐했는지 모르겠다. ‘다음엔 꼭 미니멀리스트가 되자!’(후후)

오빠와 함께 살던 투룸에서 나와 이제는 원룸에서 홀로 시작하게 되었고, 넉넉한 빌트인 수납장에 바닥에 널브러진 잡동사니를 차곡차곡 정리해 넣자 ‘아, 이제 정말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여유 공간이 생기는 수납장을 보니 무언가 더 채워넣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다. ‘빈’ 것보다 ‘채워진’ 게 더 익숙해진 수납장을 보니 미니멀리스트가 되려면 나의 낡고 오랜 관점부터 바뀌어야겠구나 싶다.

사실 이사를 오랜 시간 준비했다. 파란색 이사 박스는 지인에게 빌렸고, 완충제는 택배가 오면 깔끔하게 접어 한곳에 모아두었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과일이 담긴 사과 박스들은 혹시 몰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래서인지 이사를 마친 후 나온 쓰레기는 박스를 닫기 위해 사용한 테이프와 힘을 잃어버린 완충제 정도여서 종량제 봉투 10리터 하나에 담아 쓰레기장에 가지고 내려갔다. 그런데 입주를 막 시작하는 아파트라 그런지 가득 차고도 넘쳐서 잘 보이지도 않는 분리수거함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10리터 쓰레기봉투 하나를 들고 어디에 버려야 하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테이핑된 우체국 택배 박스 4, 5호를 툭툭 노크 패스하듯 내던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참으로 무력하게 느껴진다. 전 세계 상위 1퍼센트 부자 재산이 나머지 99퍼센트의 재산보다 많다는 말처럼 환경영향력도 ‘전 세계 1퍼센트의 움직임이 지구 건강 99퍼센트를 지킨다’면 좋겠다. 종종 환경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

껴진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말이 와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이 책을 담은 후부터 환경을 위해 작더라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나 좌절하기에는 내가 받고 있는 소중한 자연스러운 자원이 너무나도 많다. 숨쉴 수 있는 공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아름다운 한강을 끼고 달릴 수 있는 서울시 자전거와 공원 등 정말 무수히 많다. 텀블러와 손수건, 장바구니를 매일 가지고 다니다 보니 더 이상 가죽 핸드백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대신 빈티지 가게에서 구매한 책가방에 담아서 다닌다. 사람들은 물어본다. “왜 맨날 가방이 무거워요?” 그러면 나는 “유비무환 스타일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언제부터인가 밖에서 필요에 의해 급하게 구매한 물건들이 집 안을 차지해버리고,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불편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쓰고 꼭 필요한 물건들은 무겁더라도 배낭에 넣고 다닌다. 그리고 1년도 채 안 됐을까, 친구들은 나의 평상시 모습과 SNS를 보며 본인도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 ‘분리수거 기준을 보고 실천 중이다’라며 메시지를 보내온다. 나는 오늘도 나의 이름 ‘희망 희(希), 으뜸 원(沅)’을 새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한다. 나의 노력 1퍼센트가 99퍼센트의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기

선옥영

지구백일장에 참여하면서 내가 실천하던 환경보호 행동들을 돌이켜보았다. 전부터 지켜온 원칙과 애매한 기준, 다시 고민하고 수정해가는 방향.

전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손수건,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니 당연히 가방이 작아질 수가 없었다. 작은 가방을 들고 나가는 날은 어김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니까. 외출 시 항상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휴대하고, 가능한 한 외식과 배달을 자제했다. 아무리 번거워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정리해서 중고 거래나 기증센터를 통해 물건의 사용 수명을 최대한 늘리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며, 아이와 환경에 관한 책을 읽고 새 재료가 아닌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를 한다.

들고 다니는 짐이 많으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쓰기 쉽다. 나도 전에는 가방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벼운 플라스틱 텀블러를 들고 다녔다. 그런데 플라스틱 텀블러는 소재 자체의 특징 때문에 위생상 교체 주기가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빠르게 돌아온다. 쓰레기도 발생한다. 가벼움을 포기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텀블러를 사용한 후로는 한 번도 텀블러를 교체한 적이 없다.

외출 시 늘 챙기던 쓰레기봉투는 일회용 위생 비닐봉지였다. 물기가 있는 쓰레기도 발생하니 종이 봉투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되겨져온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다가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도 다시 쓰레기가 되는 걸 발견했다. 정말 '발견'이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봉투로 사용한 비닐봉지를 다시 씻어서 사용하는 것도 고민해보다가 아이 어릴 때 쓰던 기저귀 파우치가 생각났다. 비닐 소재이며 방수가 되는! 이 파우치가 찢어져서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고서야 앞으로 쓰레기봉투용 비닐 쓰레기는 안 나올 것이다.

아이와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놀이를 할 때도 가능한 한 놀이 후에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전에는 마음껏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굳이 재활용이 안 되게 만들어서 일반 쓰레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걸 알았다. 개선된 재활용 놀이를 아이도 좋아하니 다행이다.

장을 볼 때도 최대한 일회용품을 적게 사용해서 포장한 물건을 고르고, 식성과 식단에 대한 고민도 온 가족이 함께 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물티슈와 소독 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알코올 스프레이나 소독 겔, 여분의 손수건을 더 챙기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 아이의 놀이와 학습을 위해 다양하게 구입하여 사용하던 교구나 완구도 그 처분까지 생각하며 구매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개인 위생과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전에도 일회용품 사용이 심각했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많이 줄일 수 있다. 의료 기관이나 요양 기관 등 고위험군 시설에 그 '어쩔 수 없는 경우'의 우선권을 양보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다 같이 조금씩 더 불편해질지 감수한다면 말이다. 중요한 건 '다 같이'와 '불편을 감수하기'이다. '나 하나라도'와 '나부터라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염을 멈추거나 늦추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건 한 걸음이라도 '다 같이'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내딛는 한 걸음이 개인의 여러 걸음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자명하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표현은 사실 인간 중심적이다. 인간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시혜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환경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기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면 파괴된 자연이 인간을 그대로 돌리 없다. 파괴할 수밖에 없다.

즐겁게 달리기

성지은

날씨를 살피고, 하루를 보낸 내 몸의 상태를 살피고, '그래, 오늘 뛰자!' 마음속 결심을 마치면, 남편이 차린 따뜻한 저녁 밥상을 뒤로하고 달리기를 선택한다. 천천히 달리기 시작한다. 많이 알려진 달리기 호흡 방법이 있지만 내가 숨쉬기 편한 방법으로 호흡한다. 그리고 계속 달린다. 달리다 보면 송골송골 땀이 나기 시작한다. 바람이 시원하게 분다. 달리는 동안 몸과 마음이 비워짐을 느낀다. 복잡했던 생각도 내려놓고 무거웠던 몸도 가벼워진다. 상쾌하다. 내가 더 건강해진 것 같다. '오늘 뛰기 참 잘했다.'

나의 환경보호 실천도 달리기 같다. 나의 상황을 살피고,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살피고, '불편함을 선택하자!' 마음속 결심을 마치면, 쉽고 편한 것들을 뒤로하고 환경을 선택한다. 결심한 건 꼭 지켜야 한다는 강박 대신 즐겁게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한다.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한다. 그리고 남김없이 다 먹으려고 한다. 아이를 낳고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몸의 체지방을 '초과' 수준으로 올려버렸다. 생각해보니 포만감에 익숙해져 먹을 양보다 많이 담은 음식 그리고 남겨진 음식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다. 음식을 적게 먹고 남김없이 먹어서 건강해진 내 모습을 상상해본다.

그리고 물건을 최대한 사지 않기. 물건을 사면 살수록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물건을 안 사는 것도 환경보호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사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고른다. 얼마 전 남편이 우유를 사 왔는데, 우유팩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우유를 사 왔다. 남편에게 이 우유의 회사는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을 할 계획이 없대, 라고 환경단체에서 알 아본 결과를 알려주었다. 남편은 "아, 그래? 이 회사가 정말?"이라고 되물었고, 나는 그런 것도 안다는 듯 어깨가 으쓱했다.

아이가 크면서 작은 책상이 필요했다. 새 책상을 알아보니 가격도 만만치 않고, 샀는데 얼마

사용하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되었다. 그러던 중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유아 책상을 발견했다. 원목 유아 책상이 만 5000원. 저렴한 책상을 얻어 깨끗이 닦아 방에 놓아주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필요한 것은 중고 거래를 이용하는 것도 환경보호에 좋은 방법 같다.

그리고 아이와도 환경보호 실천을 할 수 있다. 휴지심을 모아 집에 멋진 기차길을 만들기로 했다. 아이는 휴지심을 버리지 않고 모을 때마다 기뻐한다. 아이에게 휴지심 기차길은 '놀이 하듯 하는' 환경보호 실천이다.

아직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호 실천은 못 하더라도 내 속도에 맞춰 즐겁게, 오래 하고 싶다. 앞으로 한 가지 꼭 해보고 싶은 환경보호 실천이 있다면, 요즘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그림책 모임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하여 환경에 관한 그림책을 만드는 것이다. 내 작품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읽어주며 환경보호 실천 조기 교육을 하면 정말 좋겠다.

외면하지 않는 방법

손유진

어느덧 환경에 대한 글을 쓴 지 4주 차가 되었다. 지난 4주간 어김없이 텀블러를 들고 다녔다. 다른 곳과 달리 스타벅스는 손님과의 접촉이 아직도 불가능하여 머그컵에 주문한 메뉴를 담아주면 내 텀블러에 옮겨 담곤 했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 유용한 일이 참 많다. 감사하게도 한국은 공공 장소에도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를 사지 않아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때로는 용기에 다 담기지 않는 내용물을 텀블러에 탈탈 다 넣어주곤 해서 기분이 좋다.

점심으로 김밥이나 간단한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는 경우 비닐봉지나 나무젓가락은 일절 받지 않는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을 받는데 앞으로는 개인용 수저와 그릇도 챙겨보려고 한다.

이제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바로바로 OFF 모드로 전환한다.

배달음식이나 포장해 온 음식을 먹고 나서 빈 플라스틱 용기를 보면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집밥을 선호하는 편이라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소소하더라도 집밥을 먹는 것이 나의 건강에도 지구의 건강에도 이로운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이미 비닐봉지나 용기에 담긴 과일이나 채소를 살 수밖에 없는데, 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여전히 아쉽기는 하다.

재활용품을 버릴 때도 박스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모조리 제거하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병에 붙어 있는 비닐 포장과 뚜껑도 분류하고 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버린다.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재활용 업체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감당해낼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분류해서 버리지 않은 쓰레기는 재활용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성한 후 뒤늦은 실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쉽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세탁소 옷걸이를 활용해 리스를 만들어봤는데 올겨울엔 옷걸이 리스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내보야겠다. 아직도 더 알고 더 실천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이미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나 하나 편하겠다는 마음으로 외면하지 않고 꼭 실천 목록에 넣어서 행동할 생각이다. 그렇게 하나둘씩 실천의 범위를 넓혀가려고 한다.

당연한 것은 귀찮을 수 없다

송혜현

혼자 살면 참 많은 것이 귀찮다. 가족들이나 대신 해준 집안일이 온전히 내 것이 되었음을 알아챘을 때 귀찮음의 감각이 움뻐다. 집안일이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이 나의 시간과 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그만큼 귀찮았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기 위한 모든 것이 시간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밥을 차려먹는 일,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 니트를 세탁소에 맡기는 일,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하자 유지 보수... 깜빡하고 잊거나 미루면 누구도 '호의'로 대신해 주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신경 써서 처리하는 게 가끔은 정말 귀찮아서 일회용품을 썼다. 머그컵 대신 종이컵을 쓰고, 일회용 수저로 요구르트를 먹고, 티슈형 베이킹소다로 싱크대를 닦거나 물티슈로 먼지를 닦았다. 그러니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순 없을 것 같다.

몇 주간 지구백일장에 참여하면서 정작 내가 귀찮아한 것은 집안일이 아니라 '환경' 아닐까 반성했다. 설거지하는 시간을 줄여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 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제는 친환경 세제를 고르기 위해 애쓰며 그릇을 쓰고 설거지를 한다. 외식을 못 하는 상황이면 배달음식 대신 한 끼라도 차려먹는다. 다행히 채식은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지 않는 편이라 채식으로 식사를 하면 일석이조의 실천이 가능했다. 세탁기 돌리면 안 되는 옷은 나 하나 때문에 사용되는 세탁소 포장 비닐을 생각해서 직접 손빨래를 했다. 바닥의 머리카락은 빗자루로 쓸어 담고 다 쓴 칫솔은 싱크대 청소하는 데 사용한다.

그나마 쉽게 뭔가를 사는 성격은 아니라 쓰레기는 웬만하면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웬만하면'에 다양한 경우가 포함되는 건 반성할 만하지만, 엄마가 장보면서 사두었을 종량제 봉투를 이제는 내가 내 돈으로 직접 사야 한다는, 이른바 '독립의 교훈'을 얻은 후부터 쓰레기가 나올

법한 일은 '안 하고 말지'를 실천한다. 비슷한 이유로 휴지 같은 여타 생활용품도 아끼게 된다.

사실 좀 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전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자 호프 자른은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에서 인류가 현재 누리는 식량과 연료로 인해 지구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말한다. 연어 1킬로그램을 양식하기 위해 먹이로 분쇄되는 15킬로그램의 작은 물고기들, 화석 연료 사용으로 매년 대기 중에 방출되는 1조 톤의 이산화탄소, 그 화석 연료 중 10퍼센트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가 달라졌다. 책 말미에 우리가 입을 옷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언급이 있어 찾아보다가 의류 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임을 알았다. 특히 패스트 패션은 대량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다. 게다가 그런 옷은 몇 번 입지 않고 버려진다. 2016년 기준 국내 의류 폐기물은 하루 평균 259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 나의 환경인 '의식주'에 관한 결정을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호프 자른은 말한다. "우리가 먹는 모든 끼니, 우리가 여행하는 모든 여정, 우리가 쓰는 한 푼에 지난번보다 에너지가 더 사용되는지, 덜 사용되는지를 고민하며 선택해야 한다." 삶이라는 환경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는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당연한 것을 위해 소비하고 선택하기 전에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 보는 것, 그 역시 당연한 일일 거다.

환경보호 일지

안미향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2020년의 봄날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날씨가 서늘해졌다. 해가 갈수록 1년이 짧게 느껴진다. 오늘은 즐거운 할로윈데이기도 하다. 젊은이들은 파티를 하고 아이들은 과자를 받는, 어쩌면 1년 중 가장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날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오늘 출근을 한다.

1. 대중교통 이용하기

여느 날처럼 대중교통으로 출근했다.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이 부러울 때도 많다. 자가용을 몰면 자유롭게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고,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대중교통만 잘 이용해도 못 갈 곳이 없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가성비는 대중교통이 더 좋다. 자가용을 몰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에도 더 좋다.

2. 나만의 물통 사용하기

출근하고 손을 씻은 후 처음으로 하는 일은 오늘 하루 마실 물을 따르는 것이다. 탕비실에 있는 나만의 물통에 물을 담는다. 항상 마시는 물인 만큼 회사에도 나만의 물통(다회용품)을 챙겨 놓아야 한다.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챙겨 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집과 회사에서만 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회사에서 머그컵, 유리컵 등 나만의 잔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 일 같지만, 어떤 이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3. 중고 거래하기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스마트폰 알림이 왔다. 중고 거래 어플에서 온 알림이었다. 어제 올린 판매글에 반응이 온 것이다. 몇 달 전 가방이나 모자를 문에 걸어서 정리할 수 있는 도어후크를 총동적으로 구매했다. 총동 구매를 하면 대부분 실패하듯 도어후크도 우리 집 문 크기와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지 어언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버릴까, 생각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을 버리는 건 환경오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 파괴되는 자연, 물건을 버리면서 파괴되는 자연. 그래서 불편하지만 중고 거래 어플에 판매글을 올렸다. 정확히 말하면 무료 나눔 글을 올렸다. 판매할 만큼 경제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하루 만에 반응이 왔다. 퇴근 후 직거래 장소로 나가 도어후크를 전달했다. 나에게 있으면 쓰레기가 될 뻔한 물건이 필요한 이에게 전달되면서 가치가 부여되는 경험을 했다.

4. 슬로 패션으로 갈아타기

나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1년에 두 번 옷 정리를 한다. 오늘이 딱 그날이었다. 중고 거래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쌀쌀해진 날씨에 맞춰 겨울옷을 꺼내고 여름옷을 수납하는 옷 정리를 했다. 작년에 옷 정리를 하면서 내가 패스트 패션을 많이 소비한다는 걸 깨달았다. 저렴한 옷을 구매하여 몇 번 입지 못한 채 버리고, 또다시 저렴한 옷을 구매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가격대가 높더라도 질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정리할 때마다 열 벌 이상 버렸는데 올해는 두 벌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것도 3-4년 전에 구매한 옷 두 벌이었다. 남들이 말하는 슬로 패션 정도는 아니지만 나의 템포에 맞춘 슬로 패션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꼈다. 다시 옷 정리를 하는 내년 봄에는 '더 느린' 슬로 패션을 하고 있길 바라본다.

사실 무심코 보낸 하루였다. 일지를 쓰려고 의도하지 않은 하루였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 정리해보니 숨어 있던 환경보호 실천 행동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환경보호에 신경을 많이 못 쓴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들이 있었다.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누구나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을 0에서 1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1에서 2로 확장해나가는 연습만 하면 되는 것이다. 환경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연습만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습관이 될 수 있다. 나와 네가 2020년 10월 30일 외출 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처럼 말이다.

그린라이프, 초록불을 켜다

안지연

운동, 움직임을 코칭하는 강사로 일하면서도 아차, 하고 나를 슬쩍 놓을 때가 있다. 불안정한 자세, 내 몸에 좋지 못한 움직임이 어느새 익숙해지면 몸에 혼란이 와서 움직임 불균형이 생겨버린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이어지고 만성적으로 원래부터 그랬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더 큰 자극을 받지 않는 한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생활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무언가를 바꾸려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기 위한 출발의 한 걸음,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

어느 날 그린라이프를 위한 반짝 신호가 왔다. 코로나19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에코라이프 등의 단어가 내 삶에 바로 와닿지는 않는다. 비움, 나눔, 절제, 정화, 기부, 보호 같은 단어는 내 삶에서 가장 낯설고 관심 밖의 분야이기에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며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 아직은 어렵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환경 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거나 환경 이벤트 행사에 참가해서 뜻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지자체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내건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스 팩? 나이스 팩!’

예전이라면 별 관심 안 두고 지나쳤을 문구인데, 왠지 관심이 생겨 지역 블로그에서 한 번 더 검색해보기도 했다. 새벽 배송으로 식품을 주문할 때마다 함께 오는 아이스 팩. 무심코 훑어본 아이스 팩 내용물이 싱크대를 막아서 당황한 기억 때문에 재빨리 냉동실에 넣어버렸는데, 어느새 너무 쌓여서 고민거리로 다가왔을 때 만난 문구였다.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이었다. 내 맘속에 초록불이 켜지는 순간은 늘 빨간불과 함께 하는 것 같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가 갑자기 삶에 찾아온 불청객이라면 코로나 그린은 스스로 만들

어가는 행복한 삶인 듯하다. 일회용 비닐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에 음료 담기 등 일상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그린라이프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환경을 위한 비움과 나눔의 행복이다. 우리 집 냉장고는 넉넉해지고 내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는 그린라이프! 건강한 행복을 위한 초록불이 환하게 켜지고 있다.

먹는 것에 진심인 비건

엄지혜

내 마음에 비거니즘의 새싹이 자라난 것은 2019년 여름 강아지 콩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너며 내게 심어준 씨앗 덕분이었다. 콩이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하곤 다른 존재들의 고통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얼마 후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약간의 무력감과 우울함이 나를 덮쳐 오려는 찰나, 일과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밀레니얼 여성들의 커뮤니티 빌라선샤인에서 비건워크를 시작했다.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한국에서 비건식을 챙겨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할 수 있으며 가장 확실한 실천이 비건워크였다.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기후 위기로 인해 내내 비가 내리는 여름답지 않은 여름은 여름을 사랑하는 내게 너무나 두려운 풍경이었는데, 더더욱 굳은 마음으로 비건워크를 이어나가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비건워크를 시작한 계기는 다소 무겁고 비장할지 몰라도(한국에서 비건 지향으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비장함을 지니지 않을 수 없지만), 비건워크를 지속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내내 즐겁고 산뜻했다. 함께 비건워크를 하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건워크는 최소 네 명이 한 팀이 되어 한 달(4주) 중 일주일씩 비건워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각자의 식단을 공유하고 서로 독려하며 든든한 동료가 되어준다. 멤버 개개인이 보낸 일주일들이 모여 n개월, n년의 비건식을 지속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성취감과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캠페인이다. 당장 완벽한 비건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시도를 망설이던 내게 불안전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

비건워크를 하는 동안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그럼 뭐 먹어?'였는데, 내 식단들을 읊어주면 다들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다. 채식을 한다고 하면 흔히들 '푸릇푸릇'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떠올릴 테지만 내 식단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나 또한 비건워크를 시작

하기 전엔 마찬가지로, 미디어나 거리의 식당들을 보면 아직은 채식에 대한 상상력이 알팍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다. 맛있는 걸 먹는 게 인생의 낙이며, 친구들을 만날 약속이 잡히면 가장 먼저 그 근처의 맛집을 찾는 사람이 나였다.

지금까지 나는 일곱 번의 비건워크를 치렀다. 그동안 해먹은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이렇다. 달래가 나는 봄에는 달래를 사다가 새콤달콤한 유자청에 무쳐 먹고, 유부와 버섯, 제로미트 너겟과 각종 채소를 준비해 월남쌈을 해먹기도 했다. 비건 땅콩버터를 구매해 숙주를 가득 넣고 팟타이를 해먹기도 하고, 물기를 뺀 두부를 튀기고 양념에 데굴데굴 굴려 두부강정도 해먹었다. 옥수수감자전, 배추전, 팽이버섯전 등 각종 전은 그때그때 마트에서 끌리는 재료를 사다 반죽을 묻혀 부쳐내기만 하면 되는 요리라 자주 해먹었다. 각종 양념과 알코올을 사랑하는 터라 이따금 비건마라탕도 해먹고 맥주도 실컷 마셨다. 여름에는 콩국수를 해먹고, 여름 제철 채소인 토마토 한 박스를 선물 받아 토마토파스타, 토마토카레, 토마토덮밥 등을 해먹으며 여름의 맛을 물씬 느꼈다. 싫어하는 가지는 무침이 아닌 구이로 해먹으면서 친해지기도 했다. '템페'라는 새로운 식재료를 발견해 김밥을 해먹거나 카레 토핑으로 곁들여 먹곤 했다. 모두가 아주 훌륭한 맛이였다.

이런 나를 보고 친구는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 비건이 되면 먹는 것에 진심인 비건이 되는 거구나"라고 했는데, 친구가 선물해준 그 말이 꽤 맘에 들었다. 먹는 것에 진심인 비건. 비건워크를 보내는 나의 마음가짐을 설명해주는 명료한 언어였다. 동물권 그리고 환경문제는 내가 비건 지향을 하게 된 이유이자 중요한 해결 과제지만, 비거니즘이 일상으로 깊이 스며들고 더 오래 지속되려면 조금 더 산뜻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제철 식재료를 챙겨 먹으며 계절의 맛을 흠뻑 느끼는 행복, 부추 한 단을 사서 볶아 먹고 부쳐 먹으며 식재료를 남김없이 썼을 때의 흥분분함, 무해한 재료를 손질할 때의 즐거움, 동물성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레시피를 고민할 때 피어오르는 상상력... 이 모든 즐거움 때문에 나는 또 비건워크를 계속한다. 이따금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심란한 얼굴이 되지만, 그래도 맛있게 즐겁게 경쾌하게 요리해 먹는다.

이사

유혜선

2년 만에 이사를 했다. 새로 이사한 집은 공간의 크기도 생활 환경도 모든 것이 달랐다. 역세권 안에 드는 대신 열 평 남짓한 공간을 줄여야 했고, 아담해진 분위기에 걸맞게 꼭 필요한 물건만 가져가야 했다. 나 정도면 검소한 편이니 하루 이틀 안에 정리가 끝날 거라는 거만한 생각과 달리 고작 방 하나를 정리하는 데 5일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제는 유행이 지났다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가지와 각양각색의 텀블러가 넘쳐났다. 말 그대로 내 방은 실용성보다는 멋에 초점을 맞춘 물건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했다. 어떤 물건을 버리고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 할지 천천히 물건의 쓰임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며칠간 공들여 정리한 후 방 한구석에는 두 봉지 분량의 쓰레기가 나왔다. 공들여 정리한 시간도 그동안 쓴 비용도 너무 아까웠다.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가자고 굳건히 다짐했다.

하지만 수면 아래 가려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이사를 마치고 동시에 또 하나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직전에 살았던 아파트에서는 365일 분리수거를 시행했는데 이제 막 정착한 아파트에서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 분리수거를 시행했고, 이 간단한 제도 덕분에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전에는 매일 분리수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의 일회용품 사용하든지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 설령 체감했다 하더라도 소량의 하루 치 일회용품 가지고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는 목요일에 딱 하루만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 나머지 6일은 베란다 한구석에 쌓여가는 일회용품을 물끄러미 바라봐야만 했다. 소량의 일회용품은 금세 거대한 일회용품 더미를 만들었고, 그제야 내가 얼마만큼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찾아온 목요일, 집에 쌓인 일회용품을 빨리 정리하고자 양손 가득 바구니를 든 채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한 내 눈앞에는 이색적인 풍

경이 펼쳐졌다. 총출동한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파트별로 곳곳에 위치해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수거를 도왔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 주민들은 박스에 붙은 테이프도 플라스틱에 붙은 상표도 깨끗하게 분리하고 있었다.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을 몰랐던 나는 무척 당황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배우려는 찰나, 경비원 한 분이 나에게 다가와 “페트병은 비닐과 뚜껑을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니 뚜껑은 여기, 비닐은 여기다 넣어주세요”라며 버리는 위치와 분리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서서히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익혀가던 어느 날 다음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냄새와 쓰레기였다. 간혹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기름기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오염된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허다했고, 이 모든 게 쓰레기로 간다니 너무 허무했다. 일회용품의 재활용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어쩔 수 없이 나온 일회용품은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게 낫겠다고 느꼈다. 요즘 나는 항상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두유를 살 땐 190ml 개별 팩으로 여러 개 사기보다는 950ml 대용량 한 팩을 구입해 마시고 싶을 때만 조금씩 따라 마신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나의 일상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한다.

Thanks, Earth Writing!

을림

4주 동안 지구백일장에 참여하며 한 주에 한 편씩 환경 글쓰기를 했다. 마감이 있는 4주간의 글쓰기는 쉽지 않았지만, 내 글이 환경을 생각하는 다른 이들의 글과 묶여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다는 생각에 매주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아마 실물 책을 받아본다면 그 성취감은 배가될 것이다. 무엇보다 4주간의 지구백일장에 참여하면서 환경 파괴가 인간에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속 생각했다. 또한 하지만 환경을 지키려는 나만의 노력을 나눌 수 있게 됐다. 특히 2주 차에 추천한 바디숍은 정말 강력 추천이니, 같이 글을 쓴 지구백일장러들이 꼭 써봤으면 좋겠다.

백일장 2주 차 '쓰레기'에 관해 쓰면서 내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다. 브리타 정수기를 구입하고 4주 차가 된 지금까지 아주 잘 쓰고 있다. 물론 짹 짹하고 생소하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는 외면받기도 하지만, 자칭 물 먹는 하마인 내가 집에서 마시는 물을 브리타 정수기로 소화하니, 분리수거 바구니를 가득 메웠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확실히 많이 줄었다. 브리타에 가득 채운 물을 다 마시면 또 물이 정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나름의 노하우도 터득해가고 있다. 자기 전에 정수할 물을 채워 베란다에 내다 놓는다. 그럼 자는 동안 브리타가 물을 깨끗이 정수해준다. 그 한 통을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된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은 물을 베란다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시원해지는 꿀팁은 덤이다.

동료들과 점심 먹고 나서 카페에 갈 때는 어렵지만, 아침에 커피를 테이크아웃할 때는 꼭 회사에 들러 텀블러를 들고 간다. 텀블러를 손에 쥐고 카페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귀찮지만 텀블러에 담으면 환경 사랑은 둘째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든 뜨거운 아메리카노든 온도가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왠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앤 해서웨이가 생각나 내가 시크하게 느껴진다. 내가 도시에 사는 바쁜 현대 여성 같다고 나 자신에게 작은 유머를 선사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게 귀찮아서 커피를 자주 사 마시지 않으니까 지갑이 얇아질 기회

도 적어졌다.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은 꽤 번거롭다. 타인과 다른 불편한 선택을 할 때 오는 유난스럽다는 눈총도 있을 수 있겠고,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 올 때 내가 연상하는 앤 해서웨이처럼 자신만의 정신 승리 방법을 고안해내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에코 등산 클럽도 만들었다. 이 클럽의 규칙은 두 가지다. 500미터 이하의 산만 오른다. 등산하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첫 번째는 등산 클럽의 여자 회원인 나와 친구가 저질 체력이기 때문이다. 평상시 감투 쓰는 걸 좋아하는 나지만, 유일한 남성 회원인 친구에게 초대 회장 직을 추천했다. 하지만 그도 이미 귀찮은 감투라는 걸 직감한 모양이다. 나는 그 친구에게 우리 등산 클럽의 지향은 '에코프렌들리'라고 단단히 뜻을 박았다. 정상에서 도시락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회용 수저, 생수 페트병도 사용하지 못한다. 두 친구는 야유했지만, 환경을 지키는 일에 다른 핑계가 있을 수 없으니 잠자코 순응한 것 같다. 우리의 첫 산행이 벌써 기대된다.

자신을 돌보는 일

이정요

미간 사이가 오므라들면서 그 주위가 빨개지면 곧 울음이 터져나온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주저앉아 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하겠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 철렁해지는 이 말에 인생은 금방 서글퍼졌다. 코로나 블루 때문인지, 그저 삶이 고단해서인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이 늘었다.

다희는 그저 딱 한 시간만 자고 싶다고 말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면 자기만 바라보는 딸이 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내 몸이 지치고 아플 때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딱 한 시간만, 그렇게 맘 놓고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눈만 마주치면 눈물을 글썽이는 다희에게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분홍 가방을 선물했다. 무엇이든 분홍이면 얼굴에 환한 꽃이 피었던 다희. 삶에 짓눌린 그녀의 세상에 이제 분홍색은 없는 걸까?

복자 씨는 아프다고 했다. 남편을 따라 타국으로 떠난 우리 엄마 복자 씨. 머리가 굳어 영어도 어렵고, 겁이 많아 운전도 어려운 복자 씨는 몸이 아파도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 없었다. 그 신세가 처량하다며 계단 구석에 앉아 우는 목소리가 영상 통화 너머에서 전해져 왔다. “엄마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해. 한국에 오면 내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복자 씨에게 내가 가꾸는 텃밭을 내어주고 싶었다. 그들이 뿜어내는 생명력을 들이마시며 부지런히 움직이면 건강해질 것만 같아서.

헤림 선배는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아위었다. 세상에 있는 좋은 말들로 언제나 내게 위로 해주던 그녀 입에서 욕이 나오고, 또 욕이 나왔다. 누군가 사정없이 할퀴어버린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눈가가 벌게졌다 파래지기를 반복하는 그녀에게 채소가 가득 든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다. 어쩌다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전해듣기만 하는데도 나는 밥이 잘 넘어가질 않았다. 밥알 한 톨까지 비워낸 선배가 흑시 체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동네 한 바퀴를 돌자면서, 나는 처

음으로 휘청거리는 선배를 보았다.

오늘은 이별후유증을 앓고 있는 유리를 만나러 간다. 유리와 나는 강렬했던 한 번의 만남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우울함이 바닥을 치는 순간 유리가 날 떠올려준 건 그날의 시간이 꽤 인상적이었기 때문일까? 유리를 위해 재봉틀 덮개를 걷고 삼베로 샤워수건을 만들었다. 몸에 붙은 우울함, 슬픔, 미움을 조금씩 조금씩 걷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유리, 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야. 그래선지 울고 있는 네 모습이 내 눈엔 예쁘게만 보여.” 엉뚱한 내 말에 유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는데. 후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치열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나를 돌봤다. 내가 먹을 음식 재료를 정성으로 길러냈고, 몸에 좋다는 조리법으로 음식을 해먹으면서 배달음식을 끊어냈다. 내 몸과 닿는 수건과 행주와 수세미도 자연에서 얻은 원단으로 만들어 썼으며 소비가 필요한 순간에는 나와 지구를 떠올렸다. ‘타급타족(他給他足)의 삶’에서 ‘자급자족(自給自足)의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 부단히도 움직였다. 이런 나의 삶을 나누려 간 자리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녹록지 않은 우리네 삶이다.

내 삶엔 아직 생기가 있다. 나를 돌보는 삶이 생기를 만든 건지, 남아 있는 생기로 내 삶을 돌볼 수 있었던 건지, 그 앞뒤가 분명하진 않지만, 난 확실히 괜찮다. 나무 칫솔로 바꾸고 고체 치약을 쓰는 일은 ‘그냥’ 하면 된다. 엄청난 노력이나 신념 없이도 할 수 있는 이 일을 ‘그냥’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토록 삶이 버거운 이에게 내가 지닌 생기를 나누는 일,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싶다. 내가 뿌린 마음과 내가 심은 행동이 그 틈에서 싹을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 거꾸로 그들이 나를 지탱해줄 수 있도록 말이다. 나를 돌보면서 주변을 살피겠다는 생각과 다짐이 마음에 든다. “난 네가 참 좋다. 정오야.”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자

이지영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후변화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아무 문제 없던 유학 생활을 정신없이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만들었으며, 친구들과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익숙하게 만들었고,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언제 맡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게 만들었다. 사실 그전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졌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나도 모르게 방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나도 기후변화를 바꾸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대학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 깊게 공부하며 나의 생각에 더욱 확신이 들었다.

내가 선택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일명 지피지기 전략이다. 기후변화라는 적을 알려면 일단 내가 얼마만큼 기후변화에 대해 제대로 아는지 파악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이 많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기후변화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반대의 이유로 이 동아리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실제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그분들의 이야기와 내가 몰랐던 분야의 환경 관련 기사를 매일 접하면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행동하는 그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나'라는 개인도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 더욱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긴다.

이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스터디다.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발제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심도 깊은 학습을 할 수 있다.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모든 과정이 나를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텀블러 쓰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활동도 충분히 가치 있고 더 많은 개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식을 쌓는 노력이 당장은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졸업 후 하고 사회에 나가 무언가(나도 아직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과 관련된 일이지 않을까)를 할 때 지금의 이 노력이 뒷받침되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할 거라고 확신한다.

불편해도 괜찮아

임정은

2020년, 상상도 하지 못한 세상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슬프게도 익숙해진 것 같다. 코로나19와 함께 세 계절을 보내고 있다. 과거의 행동을 반복했다간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올 게 뻔했다. 나의 작은 습관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구를 위한 행동들을 실천해보기로 했다.

무심코 내던지던 플라스틱 병. 이제는 병에 붙은 비닐과 스티커를 말끔히 뜯어내고 수거한다. 화장품 용기도 물로 깨끗이 세척해서 버린다.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화장품의 양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얼마 전 어느 화장품 연구 개발 업체에서 용기에 담긴 화장품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 인간의 편리함이 아닌 환경을 위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에 내심 기뻐다.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땐 머그잔에 달라고 요청하며 빨대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쓰레기통에 가득 쌓인 일회용 컵을 보며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는데, 적어도 나만은 수북이 쌓인 플라스틱 탑을 더 높게 세우고 싶지 않았다. 요즘은 손을 씻을 때도 물티슈를 사용하기보단 화장실에 간다. 일상의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 모이고 모여 큰 변화로 이어질 거라 굳게 믿으며.

더는 인간의 욕심으로 다른 존재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 손쉬운 편리함에 눈이 멀어 지구를 병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눈앞에 주어진 현재만 생각하기보단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새롭게 찾아온 습관

장철완

지구백일장을 시작하고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이 있었다. 바로 장바구니 쓰기였다. 평상시에는 장바구니보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선호했다. 어차피 쓰레기봉투란 있으면 쓰기 마련인지라 장바구니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러던 내가 이마트에 장바구니를 들고 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장바구니 사용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우선 장바구니가 안 보였다. 의식하지 않아도 언제나 존재감을 드러내던 수달백(검색을 통해 알아낸 사실인데 수달백에는 'I'm little & cute and I love clean water'라고 적혀 있다)을 두 시간 동안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결국 수달백을 찾다가 발견한 홈플러스 장바구니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안동에 살 때 한 번 쓰고 그대로 가져온 물건이었다. 이마트에 홈플러스 장바구니를 가져가도 되나 잠시 고민했으나 그런 거로 까탈스럽게 굴까 싶었다.

마트에 도착해 장을 보면서 결눈질로 다른 사람을 살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물론 카트에서 바로 차에 싣는 사람들도 있기에 정확한 조사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사람이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 장바구니 사용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다.

홈플러스 쇼핑백에 이것저것 집어넣으며 언제나 종량제 봉투를 사서 물건을 들고 가던 나를 떠올렸다. 물론 내 행동에도 나름의 변명은 있다. 종량제 봉투는 마트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사야 하는 필수재란 변명이었다. 그러나 집에 쌓여 있는 종량제 봉투를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로 옳은 일이었나 스스로 의심이 들었다.

쇼핑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홈플러스 장바구니는 안정감이 있었다. 맥주 네 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굵어질 거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다. 종량제 봉투를 쓸 때는 몰랐던 안

정감이었다. 다만 오른쪽 모서리가 달아 그쪽으로 물건이 쏠지 모른다는 불안함은 있었다. 나와 같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이 많았는지 이마트에서는 손상된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새것으로 교체해준다고 한다. 홈플러스도 그런 서비스가 있나 검색해봤지만 아쉽게도 없었다.

지구백일장 1주 차 글에 습관의 중요성을 말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귀찮은 것이 많아서 의식하고 노력하는 단계를 지나 습관이 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얘기였다. 정말 실천하기 힘든 말이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장바구니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장바구니를 까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손에 든 채 마트를 향해야 한다. 장바구니 습관을 들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장바구니를 신발장 앞에 두는 건 어떨까? 신발을 신으면서 장바구니가 눈에 들어온다면 까먹는 일이 한결 줄어들 것이다. 우리 집 신발장 앞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장바구니 두 개를 놓아야겠다.

작은 지구를 살펴보는 일

정다정

동쪽 방향인 우리 집은 아침이면 햇빛이 가득 담긴다. 추울까 봐 닫아둔 문과 문 사이 베란다가 따뜻해진다. 따뜻한 기운이 가득 든 베란다가 열려 비닐하우스 안 같은 따뜻함을 만끽한 뒤 빨래건조대에 퍼서 말려둔 커피 찌꺼기를 뒤적이고, 어제 밤조림을 하느라 까서 놓아둔 밥껍질이 잘 말랐는지 보고 일회용 비닐에 담는다. 그런 다음 바닥에 있는 음식물퇴비함을 연다. 따끈한 기운이 느껴지는 퇴비함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며칠 전에 넣어둔 호박은 더 물렁해지고, 단호박을 찌 먹고 남은 씨앗들이 싹이 터서 꽤 길게 뿌리를 내렸다. 흙으로 돌려보내려 했는데 자꾸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씨앗들 때문에 고민이다. 흙이 아니라 화분에 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호박 씨앗 말고도 양파 껍질, 호박, 연근 꾀다리, 남은 밥, 과자 부스러기가 점점 색과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흙처럼 변화하고 있다. 흙에 넣은 음식물 쓰레기가 무사히 퇴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어찌다 받아버린 일회용 숟가락으로 뒤적이고 있다. 뒤적뒤적.

음식물퇴비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곳곳에 전하면 “냄새 안 나?”라고 물어보지만, 내가 먹는 음식은 채식 위주여서 강한 냄새가 없고 썩으면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 덕분에 퇴비함을 열면 흙 향이 더 많이 뿜어져 나온다. 향긋하다. 향긋한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져서 퇴비함을 더 잘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 냄새날 것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들고 싶어진다. 자연스레 퇴비화하기에 부담 없는 식재료로 식단을 꾸리고 남김없이 다 먹는다. 퇴비를 만드는 일 하나로 내 몸과 먹는 일을 떠올리고, 먹거리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일들을 생각한다. 이 퇴비함은 최근 비전화제작자인 꼬리님의 워크숍에서 만들었는데, 강의 끝에 퇴비함의 흙을 뒤적이다 보면 작은 지구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요즘 직접 퇴비함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면서 매우 동의하고 있다.

올해 내가 사는 수원에서 ‘작은 지구를 위한 실험실’이라는 환경 모임을 만들었다. 오래전부

터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손수건을 사용하며 비닐백 대신 에코백에 물건을 담았다. 나만의 실천에 흡족하면서 에코백만 50개가 생겼을 때쯤, 기후 위기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다. 환경을 위해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큰 지구를 위한 상상과 실천에서 작은 지구를 위한 상상으로 바꿨다. 환경문제로 자주 듣고 보는 북극의 위기에 ‘어떡하지’를 생각과 말로 하지 않고, 내가 자주 걷고 보는 곳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 라는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을 고민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적이며 퇴비화가 잘되게 돕는 일처럼 내가 사는 지역에서 환경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지런히 뒤적이고, 매일매일 조금씩 쓰레기가 흙으로 돌아가는 일처럼 사람들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다. 퇴비함의 쓰레기가 변화되기까지 2주가 걸린다. 우리의 변화는 2주보다 더 느릴 때가 많지만, 매일 변화하는 퇴비함을 보면서 ‘언젠가’를 가까운 미래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나만의 작은 지구를 상상할 수 있어 기쁘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계속

정현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건 불과 2년 전이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축소로 한국의 폐기물 대란이 예고되며 플라스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때 코에 빨대가 꽂힌 거북의 사진을 봤다. 나는 그제야 플라스틱이 얼마나 쉽게 쓰고 버려지는지 알았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시기라 더 확실히 각인됐다. 그때부터 텀블러를 챙기고 에코백을 들고 다녔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이해졌다. 텀블러가 무겁게 느껴졌고, 놓고 나온 날이면 테이크아웃 용기를 사용했다. 죄책감은 플라스틱을 잘 씻어서 내놓는 것으로 무마했다.

2020년, 코로나19와 이상 기후가 찾아왔다. 일상이 무너지고 모두의 삶이 변했다. 내가 이 지구의 마지막 세대일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 오래 살 생각은 없어도 괴롭게 죽긴 싫었다. 환경을 위한 실천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강연을 들었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분리수거도 꽤 까다로웠다. 모든 오염물 제거는 물론이고 소재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했다. 그나마도 재활용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나는 막막해졌다. 이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분리수거 바구니에 플라스틱이 쌓여갈수록 죄책감과 변명이 늘었다.

그러다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했다. 음료에 부착된 빨대를 돌려보내 기업의 개선 약속을 받는 사람, 동네 모임으로 시작해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연 사람, 동네 쓰레기 줍기를 정기 활동으로 만든 사람 등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이끄는 이들이 있었다. 동네 주민부터 기업, 정부에 말하고 요구하며 움직임을 이끌었다. 작지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말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즈음 환경에 대한 글을 쓰는 비대면 글쓰기 워크숍 지구백일장을 알았고, 어설피더라도 목소리를 보태고 싶어 참여했다.

환경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본 유튜브 영상을 다시 시청했다. 얼핏 들은 내용은 실제 기사를 찾았다. 그동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보지 않은 자료를 마주했다. 그렇게 내 유튜브 추천 영상에 환경 콘텐츠가 가득해졌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야기를 보고 들었다. 무력해지는 날이 줄었다. 내가 글에 쓴 내용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곁에서 누가 지켜보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생각했다. 무심코 물티슈에 손을 뻗다 움찔하고, 분리수거통에 쓰레기를 넣을 때도 다시 확인했다.

가장 먼저 클렌징폼과 바디워시를 바꿨다. 세수는 세안비누로, 샤워는 비누 조각을 사용한다. 손으로 거품을 내기 어려운 조각을 한곳에 모아두었는데, 샤워타월에 문지르니 몸은 닦기 충분한 거품이 나왔다. 비누를 끝까지 쓰기에 좋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핸드크림 용기를 바꿨다. 내가 애용하는 핸드크림은 두 가지 형태의 용기로 판매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튜브형과 알루미늄 캔에 담긴 단지형. 플라스틱에 비해 캔의 재활용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핸드크림을 단지형으로 바꿨다. 처음엔 크림에 이물질이 들어갈까 걱정했는데, 항상 손을 씻은 직후에 바르니까 문제없었다. 입구가 넓어 제품을 끝까지 쓸 수 있었고, 세척도 간편해 분리배출하기 쉬웠다. 또 하나, PP 소재의 작은 플라스틱과 종이팩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소형 플라스틱은 분류가 어려워 선별 과정에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며, 종이팩은 활용 가치가 높지만 전문 업체로 공장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관련 제품을 받아주는 곳을 찾았고, 이를 신발장 한쪽에 모아둔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소재를 꼼꼼히 살핀다. 옷은 물론이고 일반 생필품을 살 때도 재사용이 가능한지, 재활용률이 높은 것인지 고민하고 구매한다. 물건을 버릴 때도 올바른 배출 방법을 찾아보고 최대한 분리, 세척하여 내놓는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생활용품을 하나씩 바꿔갈 예정이다.

나는 요즘 긍정적인 환경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한다. 고무를 활용해 끝까지 쓸 수 있는 화장품 용기, 즐겁게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전 세계가 마음을 모아 되돌린 오존층 등. 작지만 의미가 있는 변화와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내가 먼저 찾고 배워 즐거운 방식으로 지인들에게 권하려고 한다. 환경운동의 첫 발자국은 쉽고 재밌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명의 완벽한 채식주의자보다 모두의 채식 한 끼가 더 효과적이듯 환경운동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활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을 한 개씩 줄이는 노력을 하다 보면 몰랐던 것이 보이고, 그 결과 자신만의 해결법을 고안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다시 계절을 찾고 미래라는 꿈을 꿀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노력하자. 나도 지치지 않겠다. 워크숍을 함께 한 여러분도,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다. 쉬운 것 하나부터, 하지만 계속.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기

차지양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장보러 나갈 때는 항상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으며, 카페를 가더라도 머그잔이나 개인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였고, 식사할 때도 남은 음식이 없도록 먹을 만큼만 덜고 내 그릇의 뒀은 모두 끝내는 식으로 노력해오고 있었다. 이미 포장되어 판매되는 상품을 제외한, 내 선에서 통제 가능한 부분은 언제나 인지하면서 행동을 수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최근 직장을 옮기면서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직업 특성상 손에 상처가 생겨서 밴드를 붙이는 일이 잦고 라텍스 장갑이나 음식의 소분 보관을 위한 플라스틱 백 사용이 많다 보니 내가 집에서 쏟은 노력을 모두 상쇄시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죄책감에 마음 한쪽이 불편하지만, 상처 치료와 함께 일의 속도와 실용성을 위하여 당장 가능한 방법 안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마냥 내 의견만 내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계속 핑계만 대며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아서 꽤나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이유를 대며 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합리화의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다음 허용은 더 쉬워지고, 반복되는 허용은 후에 인지조차 어려울 정도로 깊게 자리 잡아 습관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습관은 편안하다. 그만큼 익숙한 반복 행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편안함은 우리를 그 안에 머물고 싶게 만든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처한 현실도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발전과 자본이라는 이유를 바탕으로 거대한 전 지구적 습관을 형성하여 그 고리 안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실 플라스틱이 지금만큼 일상에 자리 잡기 전에는 장바구니를 사용하

고 음식을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 아니, 꽤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저 플라스틱의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전의 모든 일상이 이제는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려면 문제 인식, 방법 모색 그리고 실천의 단계가 이뤄져야 한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덕분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도 남은 상황으로 보인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습관 바꾸기' 혹은 '새로운 습관 형성'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내 일상 패턴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습관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환경을 위해 일상에서 바꿀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나갈 수 있을까? 직장에 머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바꿀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요 며칠 이 고민에 빠져 있고, 한동안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작업처럼 느껴질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장의 현실과 맞부딪쳐 싸워나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걸 기대하며, 나만의 속도를 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실천해나갈려고 한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최지희

혼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생각해보니, 1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로 반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고 혼자 쓰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와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빨대로 음료나 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죄책감이 생기면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최근 빨대가 달린 텀블러를 구매했고 이전에는 테이크아웃 컵을 씻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나오는 텀블러나 에코백 등 아무리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대량 제작은 환경에 좋지 않다는 생각에 가방 두세 개, 텀블러 하나 정도 사용하면서 조금 더 부지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소에 취약한 편이지만 분리배출만큼은 더욱 신경 씁니다. 우선 최대한 분리배출이 될 수 있게 병뚜껑이나 작은 플라스틱은 따로 모아두고, 혼합된 플라스틱은 최대한 잘라서 배출합니다. 박스에 붙은 테이프와 송장도 최대한 떼어내고 배출합니다.

가장 크게 달라졌고 만족하는 부분은 마켓컬리 이용입니다. 금액대나 결제 금액이 다른 사이트보다 높은 편이어서 이용하지 않았지만 환경에 관심을 갖고 나서부터 송장이나 테이프가 안 떨어지는 게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친환경적이라는 이야기에 바로 변경했습니다. 처음 박스에서 테이프와 송장을 떼어낼 때 손의 느낌이 정말 생생하고, 그 안에 있는 최소한의 비닐 사용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1인 가구가 먹을 만큼의 양만 최소한으로 팔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도 적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위해서 바꾸기로 한 것 중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비건 제품 구매도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지만 자제하기 위하여 비건짜장, 채소카레 등 비건 식품을 구매했습니다. 최근에는 비건 립밤을 구매하여 선물했습니다. 많은 동물이 사

람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희생당하고 있기에 동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차차 바뀌 나가려고 합니다.

최근 동네에서 '투명 플라스틱과 비닐 종류 목요일 배출'이라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집 우편함에 꽂혀 있는 분리배출 비닐과 전단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목요일에만 플라스틱과 비닐을 따로 배출할 수 있었고, 그 외 다른 쓰레기는 목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배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가는 현재 그 봉투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가구는 열네 가구 중 두세 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음식물이 담긴 용기를 그대로 배출하는 가구 때문에 집주인은 빌라 전체에 계속 협박성 문자를 보냅니다. 그 음식물과 쓰레기로 인해 다른 가구와 주변 주택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 환경을 위해 기업이 바뀌더라도 개인이 변하지 않으면 사회는 계속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계기였습니다. 귀찮은 일이고 만지기 싫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해진다면 모두가 좋고 깨끗한 세상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부지런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쓰레기 다이어트

표승희

엄마의 분리수거 방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종량제 봉투가 가득 차서 내다버리려고 하니 엄마가 나를 붙잡아 세우며 “재활용이다” 하고는 그 봉투를 다시 가져오라는 것이다. 봉투를 들고 분리수거장에 나가 분리배출을 하다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엄마는 작은 비닐, 커피믹스 봉투 하나 버리지 않고 작은 비닐에 모두 모아 분리수거통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올라와 물었다. “엄마, 그러면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에 있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조그마한 휴지통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저걸로 다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아서 물어보니, 매일 폐기하는 쓰레기는 저거 한 통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내 휴지통을 들여다보니 정반대였다. 폐기할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재활용 쓰레기는 큼직한 택배 박스 정도였다. 내 쓰레기통은 폐기처리용도 크고 분리수거용도 큰 대용량이다. 고백하자면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이 귀찮아 그냥 종량제 봉투에 던져넣은 경우도 많았다. 엄마의 분리수거 방식을 본 뒤 약간의 충격을 받고는 나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다. 휴지통을 작은 것으로 바꾸고 종량제 봉투에는 엄마처럼 분리수거용 쓰레기를 담아보았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다. 버리면서 발견한 점은 우리 주변 대부분의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예전엔 폐기용 대 재활용의 비율이 80 대 20이었는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자 정반대였다. 80 퍼센트의 재활용 쓰레기는 일정한 처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이 되고, 그만큼 지구가 쓰레기 더미의 부담에서 조금은 더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뿌듯했다.

지구에 던져버리고 모른 척하고 살았던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 봉투에 쓸어담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쓰레기 다이어트를 해보리라 결심했다. 물론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겠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려고 한다. 앞으로 내 쓰레기는 재활용 80, 폐기물 20으로 유지해볼 생각이 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재활용과 함께 재사용 제품을 더욱 가까이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조급하지 않게 불안 잠재우기

현묘아

요리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지만, 혼자 살다 보니 된장찌개 한 그릇을 끓여도 재료가 남는다. 결국은 다시 1인분 음식을 포장해 식탁에 올려놓는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면, 또 내가 이만큼의 플라스틱을 썼구나 싶어 울적해진다. 채식을 고집하려 애써도 시중은 육식이 훨씬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니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졌다. 더불어 매일 장바구니를 챙기고 나무젓가락을 피해도 하룻밤만 지나면 빌라 입구마다 펼쳐진 쓰레기산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힌다. 심지어 일주일 전에는 골목으로 들어서는 옆 빌라 주민이 마시던 캔을 현관 앞에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분노가 스멀스멀 끓었다. 멈추어 소리 지르고 싶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으니 화를 가라앉히는 역할도 오로지 내 몫이었다.

실리콘 빨대를 쓴 지 한 달이 가까워진다. 요구르트 스무디를 마셔도 실리콘을 펼치면 그만이니 씻기도 편하고 환경보호에도 큰 힘이 되므로 누구 하나 몰라주더라도 흐뭇하다. 지구백일장에 참여하는 작가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힘을 내신 덕분에 대화 한 번 나눠본 적 없어도 연대감이 든다. 다만 몰상식한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올라온다. 짜증에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무기력해지는 게 문제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저런 이웃 한 명만 있다면 도돌이표가 될 게 뻔하다는 생각 때문에 쉬면서도 눈물이 났고, 내일 멸망할 지구가 무서워 불안에 떨었다. 심장이 빨리 뛸 지경에 다다르자 병원을 찾았다. 범불안 장애 증증 진단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운 시기다. 다들 힘든 상황이니 나의 어려움을 꺼내는 일도 줄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니 배달 횟수도 늘었고, 집 앞은 언제나 소스통 범벅으로 뒤덮인다. 문 앞 포스트잇에 '사람다운 삶을 삽시다'라거나 '제발 분리수거를 좀 해주세요'라는 글씨가 붙어 있을 정도다. 미워하는 대상이 점점 늘었다. 반찬마다 다른 나무젓가락을 쓰는 친구가 밉고, 맥시멀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낭비하는 유튜버가 밉고, 소식과 채식을 하려는 나를 비

웃듯 엄청난 양의 고기를 꾸역꾸역 먹는 스트리머가 밉다. 우리는 지구가 잠적할까 봐 불편함을 감수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데, 그 노력을 본체만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나도 오로지 인간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고 싶다는 충동에 이끌린다.

그래도 해야지. 조금이라도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 오늘도 텀블러를 챙기고, 친환경 수세미를 쓰고, 종이 봉투를 꺼낸다. 곧 친환경 생리대나 생리컵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나무 칫솔을 사고 밀짚 화장지와 친환경 세제를 주문할 계획이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추천하는 정도로 완급 조절도 하면서. “너도 이거 해봐”라고 권유하지 않아도 ‘나도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시작해요. 우선 저부터 하고 있겠습니다.

2020년 12월 07일 1판 1쇄 발행

지은이

고서영 김보아 김지안 김희라 노현정

독고예지 박예진 서희원 선옥영 성지은

손유진 송혜현 안미향 안지연 엄지혜 유혜선

율립 이정요 이지영 임정은 장철완 정다정

정현주 차지양 최지희 표승희 함영현 현오아

기획 이울빈

편집장 서상민

편집인 이상영 황남경

디자인 서상민 유남희

마케팅 서재은

교정, 교열 노경수

사업운영 디자인이음

발행처 (재)도봉문화재단 평화문화진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마들로 932

2020 평화문화진지 일상예술워크숍 사업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의 저작권과 사진에 대한 초상권은
해당 기관 및 각 인물에게 있으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재생펄프를 활용한 친환경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표지 | 인스퍼에코 251g.

내지 | 만화종질지 80g